

建築士



K.I.R.A

vol. 411

2003

07

uta

2003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공모주제

■ 주 제 : 도시의 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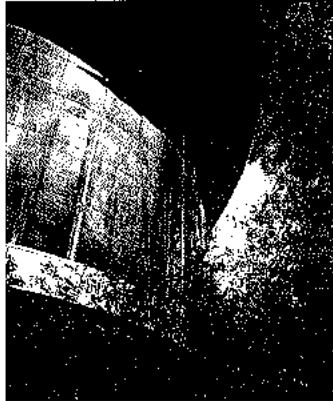
- 각 지방도시들의 지역성에 맞는 실제 장소를 선정
- 도시, 건축, 조경, 실내·외환경디자인 등 제 분야에서 계획

■ 주제설명

역사가 진행되는 한, 그리고 역사가 도시를 필요로 하는 한, 도시는 계속 변모해간다. 오직 유적으로서만 정지된 상태의 도시가 존재할 뿐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겨거나 의식적인 계획에 의해 이룩된 신도시이거나 간에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의 행동과 사고가 도시를 계속 변모시켜 나간다. 그럼에도 도시는 표준화된 원리로 편제되어 근대도시체계는 전통적인 장소성의 고유한 맥락들을 해체하면서, 공간을 균질화시켜 그와 함께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분해하여 대규모로 집적시켜 재배치하는 기능주의적 계획이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이 도시의 기능은 생산력의 극대화를 위주로 편성되고 반면 개개인의 삶은 개별화되고 이질화되어, 이분법적으로 경계지음으로서 그 중간을 매개하는 도시공동사회는 지극히 왜소해졌다. 즉 개별적인 차원에서 추구되는 편리, 효율, 합리성이 한없이 축적되어 결국 전체의 차원에서는 불편, 비효율, 불합리성을 빚어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개체의 대상 자체의 조형적 완결성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맥락 전체를 아우르면서 계획의 목적은 헤아리고 사용자의 삶도 시야에 넣으면서 그것과 사물사이의 관계를 디자인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도시는 지표면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에워싸는 모든 건물, 도로, 광장, 표지, 수목... 그리고 그 위와 옆에서 일어나는 온갖 활동과 사건이 구체적인 도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도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고, 자신을 보다 큰 도시 전체의 모습에 위치 지을 수 있음으로서, 도시의 틈은 발견되고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틈이라 함은 개별 주체가 기억하고 움직이는 대안적 노선에 따라 지도를 그리고 또 다시 그려낼 수 있는 분명한 상상들을 구성하거나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장소의 감각을 실질적으로 되찾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도시 삶의 필연적인 결과라면 삶의 정직한 표현을 잔술하게 드러내는 태도 - 그것은 주위 환경을 다시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정보나 모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거리의 현장에서 긍정적 가치를 찾아내어 체험의 대상으로서의 도시의 틈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개체로서의 차별화로부터 동질성으로서의 맥락만 주어진다면, 그것을 읽어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도시 한 조각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기대를 걸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서들)

도시와 건축	개체와 전체	상업성과 공공성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	내부와 외부
인공과 자연	전통과 현대	단절과 소통	평면과 입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포스코 역사관(이광만 · 오동희)



컬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최낙정	20
건축만평		유원재	23
회원작품	연희동 양광찬관(陽光燦爛) 주택	이영수 · 최영문	24
	포스코 역사관	이광만 · 오동희	36
	와선재(鵲善齋)	김호만	46
계획작품	광주전시컨벤션센터	정림건축 외	56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연구동	정림건축 외	59
기고	고대 문명으로의 초대-피라미드	한광호	62
	건축관련 광고문구	최종철	66
연재	공간 클럽 - 02	이재훈	68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75
	해외잡지동향		81
	현상설계		88

발행인: 이세훈
 편집기획: 김선양, 장양순, 김종복, 민승열, 박영순,
 손기찬, 윤상기, 윤시덕, 이상림
 취재·편집: 홍보편찬팀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 제이아트 (02)2269-7619
 광고문의: 홍보편찬팀(이홍식 팀장)

88



90



92



Column

The Bridge That Connects Heaven and Earth Choi Lark-Jung 20

Cartoon Yoo Won-Jai 23

Works

Sun Shine Dazzling Lee Young-Soo & Choi Young-Moon 24

Posco Historic Museum Lee Kwang-Man & Oh Dong-Hee 36

Wa Sun Jai Kim Hyo-Man 46

Process works

GWANGJU COEX Junglim Architecture etc. 56

Education Research Center,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lim Architecture etc. 59

Feature

Invitation from ancient civilization - Pyramid Han Kwang-Ho 62

Advertisement Phrases related to Architecture Choi Jong-Chul 66

Serial

Space and Rooms Lee Jae-Hoon 68

Architects' Plaza

Archi-Net 75

Overseas Journal 81

Competition 88

Publisher: Lee Se-Hoon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k, Min Seung-Ryeol,

Park Young-Soon, Son Ki-Chan,

Yoon Sang-Ki, Yoon Si-Deok, Lee Sang-Li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art)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The Bridge That Connects Heaven and Earth

최낙정 / 해양수산부차관

by Choi Lark-Jung

나는 건축사들을 좋아한다. 정확히 말하면 부러워한다. 예술과 과학을 조화시키는 창조적인 사고와 치밀한 손길이 늘 경이롭다. 좋은 건축물을 보는 것은, 운 좋게도 그 속으로 들어가 그것과 하나가 되어보는 것은 색다른 즐거움이다. 로비에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 하며 조형과 색감을 음미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건축사가 건물을 아니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과 흡사하다. 건축물이나 정책 모두 스케치로부터 시작된다. 외국사례를 본뜬 것이든 떠오른 영감을 그려낸 것이든 작은 펜 끝으로 생각들이 모아지고 형상화된다. 그 다음은 보다 정제(精緻)하게 다듬어지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선본 하나하나에 수치가 부여되고 문장도 그냥 문장이 아니라 제 이름을 가지게 된다. 정책 또한 법률안이나 시행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조문이나 목차가 부여되고 공식적인 문구로 형식을 갖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매 한가지다. 설계나 정책은 결정된 이후에도 시공과 집행과정에서 또다시 현장과 현실에 맞추어 첨삭되고 수정된다. 잘못된 조사자료, 생각지도 않은 돌발상황, 당초의 계획보다 더 멋진 대안 등 이런저런 연유로 건축이나 정책 모두 처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렇듯 건축과 정책의 실현과정이 일맥 상통하기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면서 느낀 나의 소회를 건축에 적용해 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건축물을 바라보며 즐기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자가 생각하고 바라는 건축의 원칙과 정신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건축은 무엇보다 인간을 생각해야 한다. 정책의 존재이유가 인간이듯이 건축의 존재이유도 인간이다. 인간을 떠나서는 건축이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을 품에 안아야 비로소 건축은 건축다워진다. 그래서 계단 하나 거실 한 평에도 인간을 위한 배려가 묻어나야 한다. 인간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을 부속물처럼 이방인처럼 느끼게 만드는 건축물은 아무리 화려해도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없다. 2년 전에 건축사 한 분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도시 건축물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시된 광화문의 한 공기업 건물은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듯 폐쇄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권위적인 공직사회의 일면을 보는 듯했다. 사옥 정문 앞을 길거리와 연결시켜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민간기업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건축물은 그것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인격을 반영하고 있다. 좋은 건축물이란 낮낮아를 떠나 인간에게 친절하고 따뜻하며 겸허한 모습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면서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건축물이 더 많이 지어졌으면 한다.

건축은 또한 항상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 자연 속에 있다면 자연을 존중해야 하고, 시골벽적인 도시에 있다면 사람냄새 물씬 나는 거리의 문화를 살려내야 한다. 스위스를 여행하러 가면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집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레만호숫가의 별장을 보고 있으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스위스의 건축물들이 이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오만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연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스위스 못지 않게 굽이굽이 흐르는 아름다운 산하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멋진 건축물이 많이 있으면 좋으려만 자연과 조화로운 건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더욱이 여유로운 강가에 어울리지 않는 요상한 모양의 러브호텔이나 시골에 우뚝 솟아있는 아파트들을 보노라면 아무리 돈도 좋고, 토지 효율도 좋지만 건축에 대한 기본철학마저 버린 것 같아 화가 절로 치밀기도 한다.

도시의 건축물 또한 다르지 않다. 건축물마다 색상도 모양도 제각각이다. 주위의 건물과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네모난 상자처럼 지어졌다는 것이다. 등글디 등글 세상을 온통 네모나고 각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혼자 거만될 듯 비뚤하게 서있는 건물 또한 적지 않다. 예전만은 못하다 하더라도 이 도시가 살아있음을 실감나게 하는 종로 거리에 우주선처럼 솟아있는 금속성 건물은 그야말로 독불장군을 연상케 한다. 그 거리가 간직한 문화와 삶을 고려하지 않는 비조화의 건물이 이름처럼 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낼지는 의문이다. 도시를 산만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뿐 아니다. 어지럽게 걸려있는 간판들은 심한 경우 건축물의 형태마저 알아볼 수 없게 만든다.

최근 마천루(摩天樓) 전시장으로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상하이의 경우 3천여개를 헤아리는 고층건물 하나하나가 주위 환경과의 조화와 창의성을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받는 절차를 거쳐 허가가 나가고 있다고 한다. 체제가 다른 우리로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건축하는 사람이나 행정하는 사람 모두 최소한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며 건축물을 만들고 관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연은 자연스런 멋스러움이 있고, 도시는 도심대로 사람이 모여 사는 흥겨운 장단이 있다. 이를 살려나갈 줄 아는 건축이 되었으면 한다.

건축은 또한 그 건축물이 상징하는 철학과 시대정신을 생각해야 한다. 편의성과 예술성은 건축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그렇지만 두 가지 모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인 가치이기에 건축물은 자연스레 그 시대의 문화와 정신을 담게 된다. 필자는 6년간의 영국생활과 해외 출장길에 짬짬이 유럽의 여러 유적지를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그러면서 유럽의 역사는 건축물의 역사가 아난가 생각하게 되었다. 건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당시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들의 생각과 문화가 내 몸을 감싸는 듯 하다. 특히 이태리 남부 나폴리만에 있는 폼페이 유적지를 바라보며 느낀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다. 뾰족하게 솟은 첨탑이 인상적인 19세기 쾰른대성당과 비잔틴양식을 대표하는 6세기 소피아대성당은 같은 교회건물이면서도 감흥이 전혀 다르다. 이렇듯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건물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아졌으면 한다.

시대정신과 더불어 건축물이 담고있는 상징적인 철학 또한 중요하다. 교회건물은 교회다워야 하고, 비즈니스건물은 상업성이 녹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것이 교회건물같은 것이냐고 한다면 하나님을 살아가게심을 느끼게 하는 건물, 종교의 심오한 진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건물이 교회다운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이 일에는 빨간 네온사인인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을 압도할 듯한 거대한 강대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장충동에 있는 경동교회 건물을 좋아한다. '교회는 기도의 장이 되어야 하고,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하며,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건축사의 철학이 섬세하게 시현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필자가 이 건축물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해달라고 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가겠다는 사랑의 종교정신이 곳곳에서 배어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가장 낮은 자세로 섬김을 다해야 할 관공서의 건물들은 너무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다. 특히 서초동에 지어져 있는 법원과 검찰청 건물 그리고 국민의 대표들의 모임장소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공정과 형평, 참여의 정신을 담아내기 보다는 권위만이 두드러진 듯 하다. 다른 행정관청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필자는 관공서 건축이 섬김의 모습 그대로 국민들이 다가가기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사려깊은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누군가가 필자에게 건축이 무엇인지 정의하라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말할 것이다. 모든 건축물이 땅에 뿌리를 박고 있고 하늘을 향해 솟아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은 이 땅의 바람과 의지를 하늘로 띄워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 세상에 전해주는 메신저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건축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창조성의 표현이다. 건축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인간의 오만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에게 다가가려는 간절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바라기는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고 철학이 담긴 건축물, 인간의 창조성을 맘껏 뽐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성에 겸허해 할 줄 아는 좋은 건축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생겨났으면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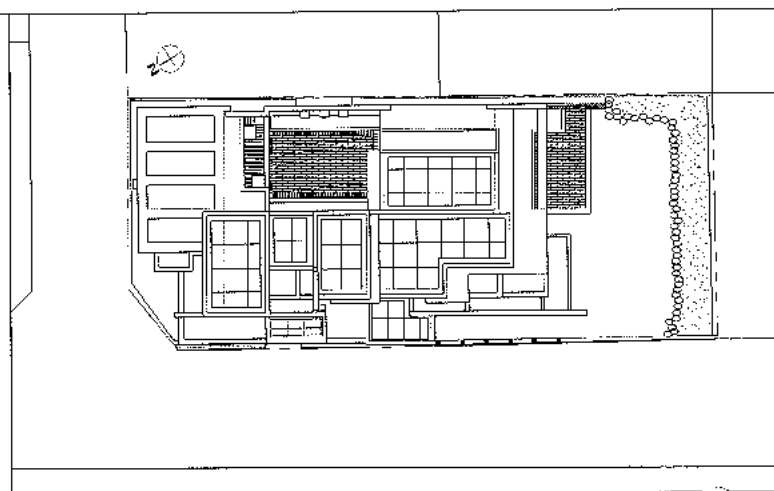
연희동 양광찬란(陽光燦爛) 주택

Sun Shine Dazzling

이영수 · 최영문 / 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건축환경그룹
Designed by Lee Young-Soo & Choi Young-Moo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90-1
지 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요 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568.90㎡
건축면적	249.60㎡
연 면 적	361.82㎡
건 폐 율	43.87%
용 적 륜	47.47%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옥탑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설 계	(주)건축환경그룹
설계담당	신영철, 신광용, 이건희
구 조	자연구조 - 양명재
기 계	세아엔지니어링 - 구용서
전 기	하나에이치테크(주) - 이동환
시 공	리정테크건설(주)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현장스케치

연희동, 전 대통령 댁에서 걸어서 3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동쪽 안산(鞍山)자락의 나즈막한 터에 놓여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상2층 이하의 건물들이 제법 그 자태들을 뽐내고 있는 곳. 그곳에 현장은 있었다. 2001년 6월 뜨겁던 여름 현장의 주변상황을 체크하면서 다소 단조로운 패턴이지만 주변건물에서 흘러 나오는 잘 다듬어진 마당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한 두해 만으로 다듬어질 수 없는 경관은 좋은 Motive가 되어 머리 속에 각인 되어 잔잔한 물결로 다가옴을 감지할 수 있었다. 주변의 환경을 잘 이용함과 동시에 주변의 상황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웠지만 현장에서의 기분 좋은 상쾌함을 맛보았다.

건축주 이야기

2001년 6월 12일 건축주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었다. (다음 내용은 건축주께서 주신 서신을 그대로 옮긴 것임)
『새집은 4식구가 살 예정입니다. 지하층은 노부부를 채움하여 가

정부와 정원사 혹은 기사로 활용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총 6명 거주) 지하층은 노부부가 생활하기에 불편없이 설계부탁드리고 손님방 하나 추가하고, 주차장은 2대 용량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남으면 지상 1, 2층에서 해결 못한 것들과 창고 등으로 활용이 되겠지요.

저는 43세이고 고전음악과 운동과 독서를 좋아합니다. 지상 1층에 정원을 보면서 러닝머신을 할수 있는 종합근력 향상 운동기구 1대를 들여놓을 예정입니다. 러닝머신 앞에 벽걸이 혹은 공중에 매달린 작은 텔레비전 한 대가 놓여 있으면 좋겠고, 운동을 하면서 때로는 오페라도 듣고 싶은데, 운동실과 음악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아예 서재도 같이 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큰공간에서 완전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즉 나는 거기서 운동도 하고 음악도 듣고 독서도 하고 또 개인적인 사무실(사무책상에서 사이버 증권 거래와 간단한 사무, 혹은 독서)도 활용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무를 볼 때 운동기구가 가려져 완전히 보이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또 러닝머신을 타다가 곧바로 문을 열고 정원에 갈 수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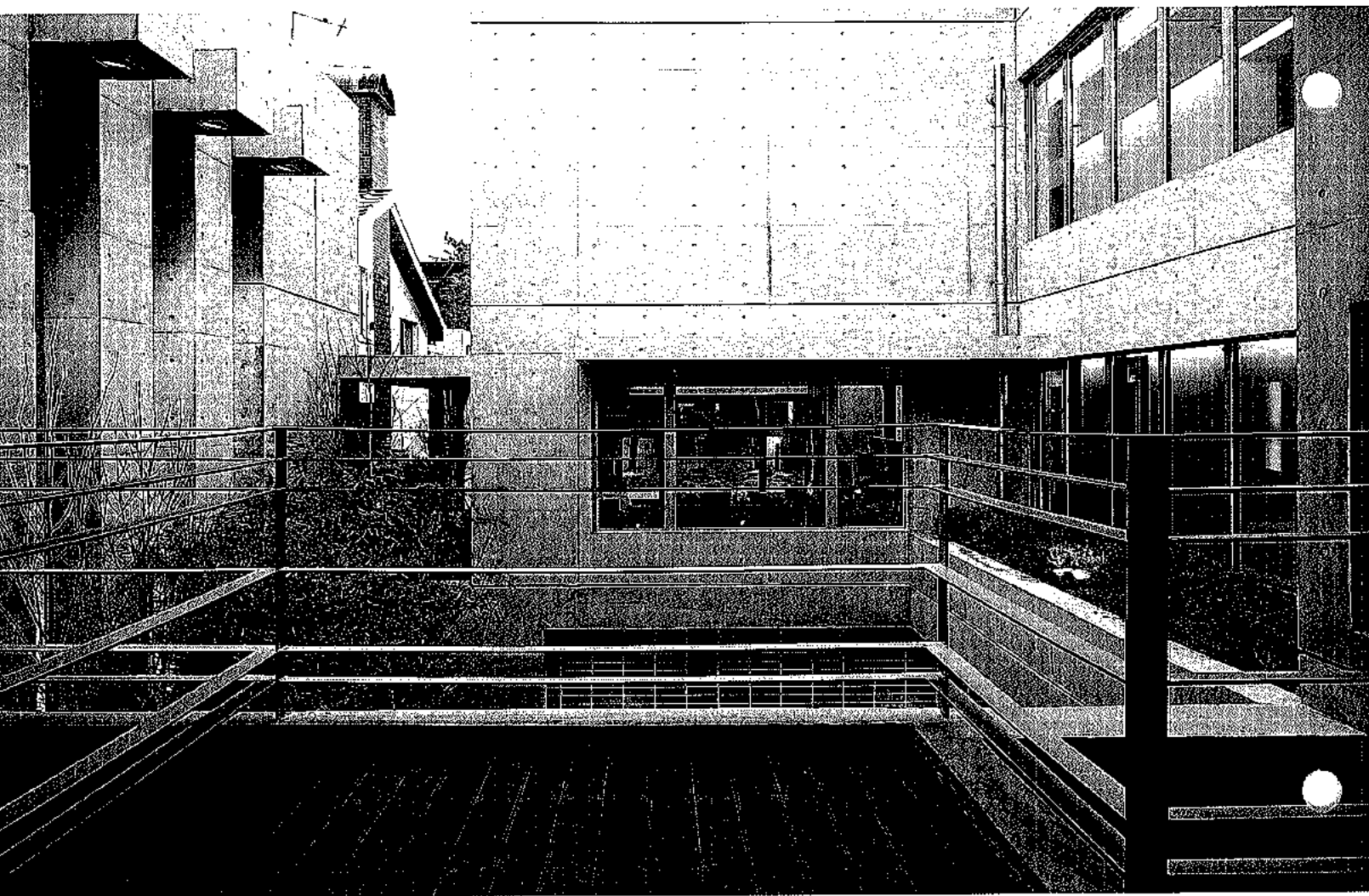


면 좋겠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참고로 전 책과 레코드, CD등이 상당히 많아 서재가 매우 커야 접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려다 보면 1층 전체를 다 저를 위해 써도 모자를 듯 합니다만, 또 고민은 책상이 정원을 향하는 것이 좋으나 운동기구가 정원을 향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 것입니다. (사무가 우선이나 운동이 우선이나, 정원은 한쪽 밖에 바라 볼 수 없는데)

아내는 40세이고 무엇보다 옷방을 강조합니다. 즉 기존의 옷장으로 옷을 충분히 찾아서 입지를 못하여 매일 옷이 없거나 같은 옷들을 반복해서 입게 되는데 한 눈에 여러 종류의 옷과 내의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무지무지 큰 옷방이 있었으면 하고 누누이 저에게 강조해 왔었습니다. 침실은 달랑 매우 큰 침대하나 (베드 스텐드 반드시 설치)와 작은 소파와 티테이블, TV만 있는 호텔식이면 좋겠고, 침실과 옷방과 욕실을 통하는 중간 복도 어딘가 화장대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주방과 식당과 거실은 한데 묶고 손님을 초대할 수 있는 10인용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고 거실도 그런대로 쓸만 하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고민이 시작됩니다. 침실이 정원을 향하는나 식탁이 정원을 향하는나, 물론 거실은 반드시 정원을 향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2층은 아

이들 둘만 살게 되어 (딸고1, 아들중2) 거실은 없어도 될 것 같고 1층 거실은 2층 공간까지 쓰게 오픈형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2층은 아이들 방2, 손님방1 총 방3개만 있으면 됩니다. 공간이 남으면 옷방, 창고등으로 쓰고 모든 중심은 1층 거실과 식당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1층 침실은 수면 기능 위주로 숙면을 유도할 수 있게 설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제 개인 공간은 욕실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디자인과 스타일은 제가 앞서 요구한 꼭 포스트 모던 스타일이 아니어도, 무조건 밝고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예술적이면 됩니다. 또 파격적으로 성공회 교회 같은 스타일로 설계하셔도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은 남다른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디자인과 스타일과 기타 미학적인 면만은 철저히 선생님의 주관과 구상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생활하기에 즐겁고 편한, 조금은 다분히 예술적인 집, 무조건 밝고 (저는 어두운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또 자연친화적이지만, 세련되고 복잡하지 않는 색상을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지만, 그것이 전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선생님의 주관대로 소신껏 설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하기 즐겁고 편한, 조금은 다분히 예술적인 집, 공기소통이 잘되고 자연광이 잘 쬔 집, 조형과 자연이 대립이 되지 않는 편하고 우아한 집, 요구가 너무 많지요? 하지만 그리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위글 내용으로 보아 건축주는 침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였다.

최초, 기존집을 리노베이션하여 쓸까도 고민 하였지만 결국 새집을 짓기로 하였다. (기존집도 깨나 쓸만 했음)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 본 건축주는 건축가의 전문성을 각듯이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진솔하게 글로 요구해 왔을 때, 참으로 범인(凡人)이 아닌 듯 싶어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접근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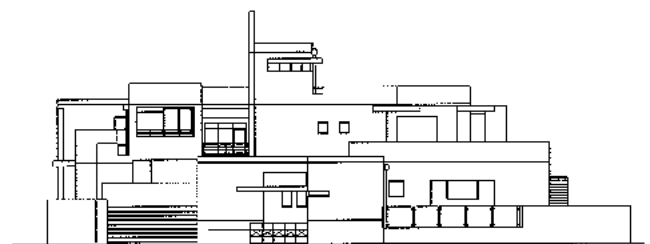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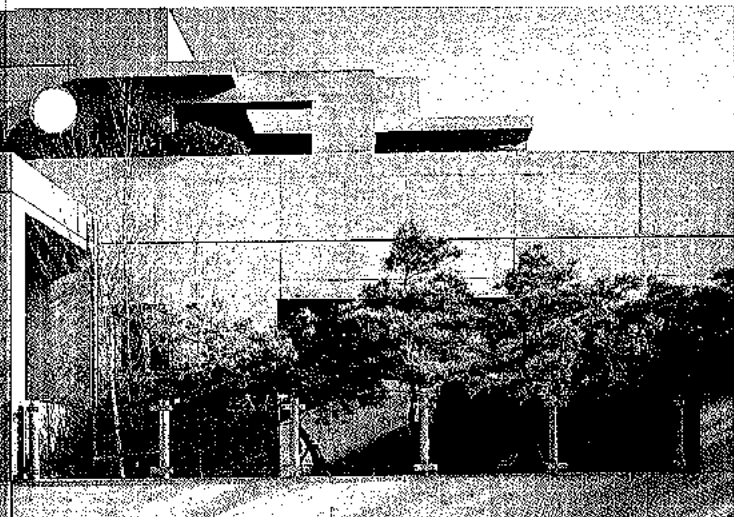
건물이야기

설계를 시작하여 기본 컨셉이 정리되면서 건축주가 제안한 “양광찬란 (Sunshine dazzling)은 본 주택의 특징이자 이름이 되었다. 밝고 시원 시원한 공간을 선호하는 건축주의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 빛을 통해 공간에 활력을 제공하며 바람이 잘 통하면서도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확보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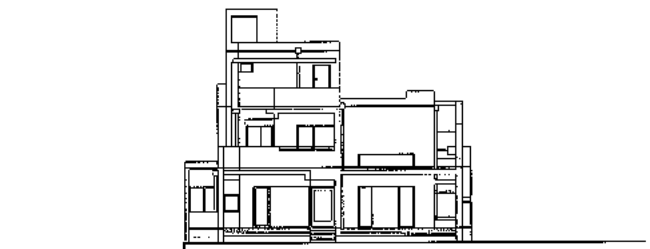
어 은둔할 수 있는 정신적인 의미를 느끼게 하는 소우주를 창조하는 것을 디자인 목표로 삼았다.

전용주거지역에 위치한 대지는 서쪽으로 8m 전면도로에 길게 면하고 북쪽으로 6m 측면 도로에 짧게 면하여 가로세로의 비율이 2.5:1이나 되는 남북으로 긴 형상을 취한다. 거실과 식당 그리고 주인침실의 남향 배치를 위한 결과 자연스럽게 건물 한가운데 중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건물 매스를 북측으로 바짝 붙여 배치하여 기존수목들로 구성된 남측 정원을 최대한 살리기로 하였다. 남측 정원에 면하게 거실 및 식당을, 북측에 주인침실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중정이 위치하여 자연채광이 충분히 인입 되도록 하였다. 8m 전면도로에서 현관 매스의 외부 덧문과 대문을 통하여 외부계단을 돌아올라 내부로 들어서게 되는 주진입은 건물의 남북으로 흐르는 허리축과 복도에 다다르면서 중정 상부의 오픈 공간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진입 경험을 느낄 수 있다. 복도 현관 입구에서 중정으로부터 우측으로 퍼블릭 스페이스를, 좌측으로 프라이빗 스페이스를 배치함으로써 3개의 존으로 나누어 단순 명쾌한 영역구분이 되도록 하였다.

건물 매스의 북측과 남측을 연결하는 복도는 중정에 면한 동쪽에 전면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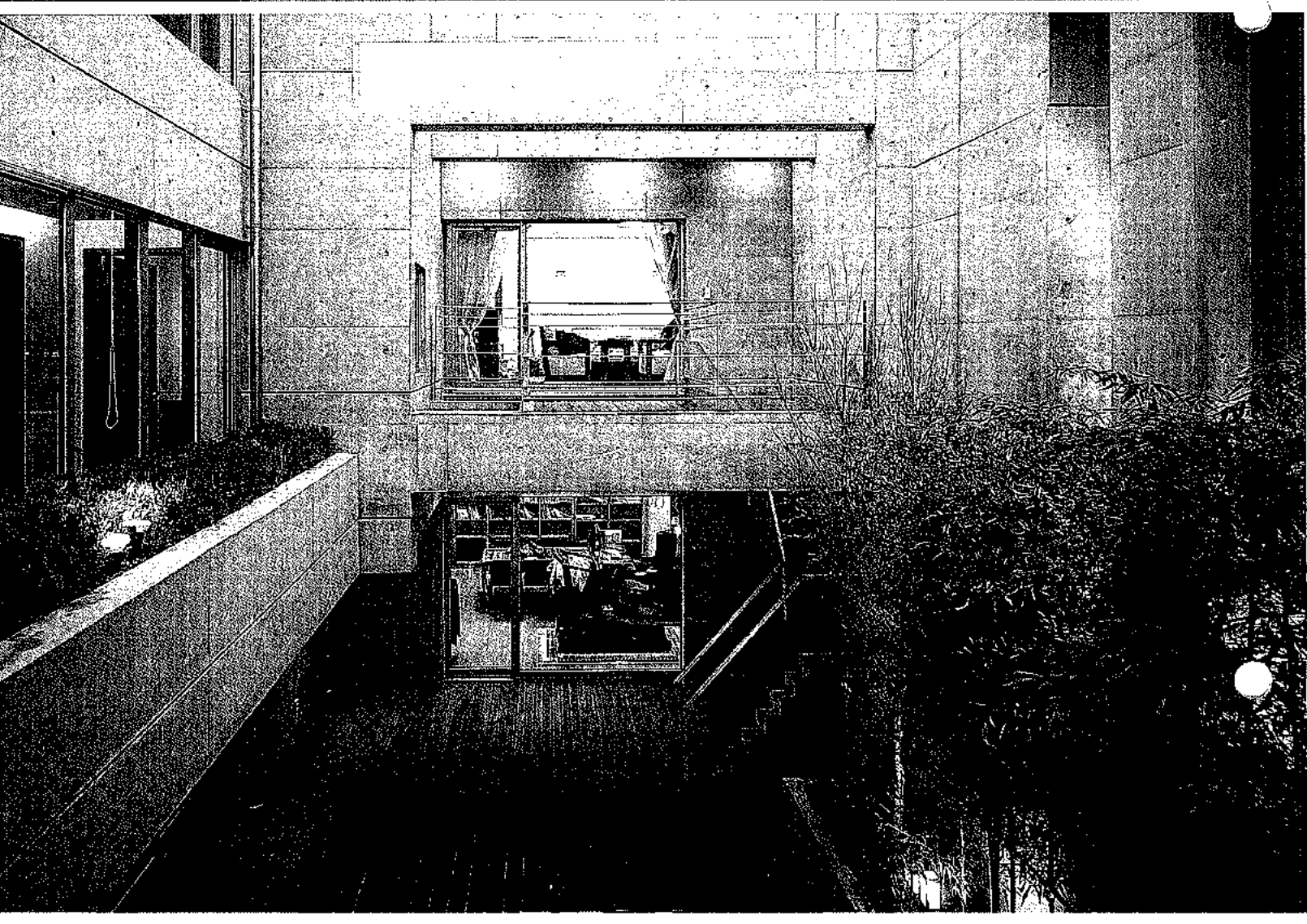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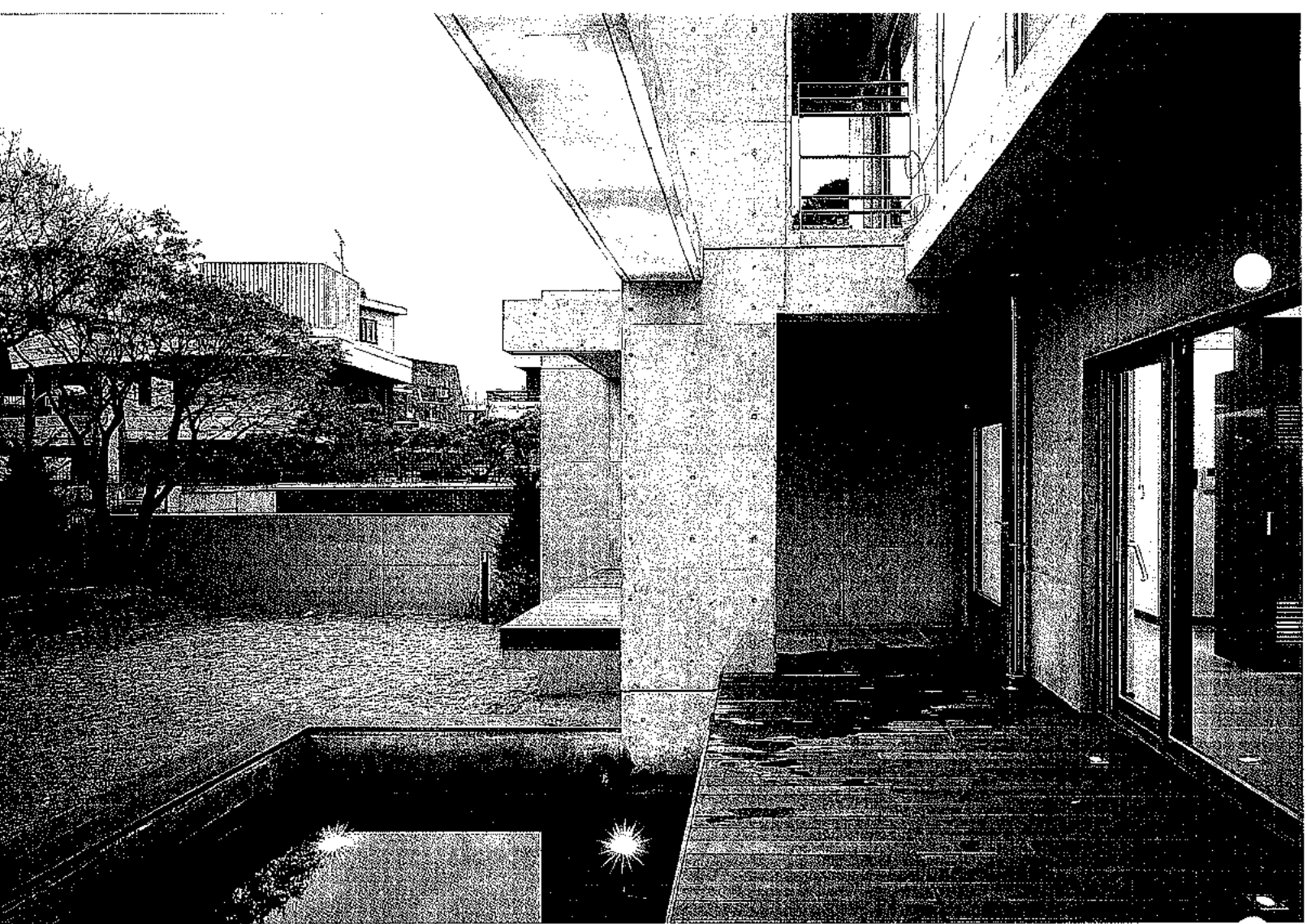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을 설치하여 충분한 자연채광이 되도록 하고, 밝고 넉넉하게 열린 동산을 따라 거닐며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였다. 현장에서 한층 내려가면 중정과 연한 복도에 이르게 되는데 높이와 폭의 비례가 1:1 가까운 충분히 넓은 중정은 지하층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개방감을 부여하였다. 건축주의 개인 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넓은 서재는 중정으로 나갈 수 있는 전면 유리창과 문, 중정의 건너편 거실 남측의 고창을 통해 액자 형태감을 느끼고 평소에 인식하지 못한 하늘을 새로운 기분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위를 향하여 시원하게 개방된 중정 공간은 바라만보는 '내정' 이 북측과 서측에 설치된 목재 텃마루, 야간에 다운라이트가 비춰지고 두껍게 느껴지는 노출 콘크리트벽의 기동처럼 들어간 세 개의 수직 공간과 남측벽의 붉은 벽돌벽의 따뜻함이 혼재되어, 전통건축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이와 편안함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침잠하여 명상할 수 있는 도심속의 점진적인 공간의 공존 속에 대비를 통한 조화미를 날게 하였다. 6m 층고를 갖는 거실 동쪽벽 상부에 있는 천장으로 부터 은은하게 쏟아지는 아침햇살은 높은 천장을 더욱더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시간상의 변화를 건축에 끌어들이므로써 시공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지를 처음 방문했을 때, 평범하고 아무런 성격도 부여되지 못하는 마지막 남은 주거지 중의 하나인 동네에 어떻게 하면 생동감을 주고 또한 주민들이 이 주택을 지나칠 때 유쾌한 기분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그 결과 전면도로인 서측에 위치한 주방과 식당으로부터 '길' 을 볼 수 있고 '길' 에서도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주택의 정원의 일부를 볼 수 있도록 담장의 일부를 강화 유리로 설치함으로써 저마다 높은 담장으로 공공 달고 사는 동네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주게 되었다. 동시에 계단실의 외벽에 면한 작은 창을 통하여 건물내부의 중정 상부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여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상태에서 최대한의 개방성을 부여하도록 노력했다.

건물 매스는 도로에서부터 중압감이나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점진후퇴(Set Back) 되어지도록 구성하여 자연스럽게 계단탑 쪽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지닌다. 동시에 계단탑 모서리를 따라 올라가 있는 수직기둥과 계단실 상부의 구조물은 액자 형태감을 통하여 멀리서 바라보아도 건물의 아이덴티티와 동네에서 높은 스카이라인을 차지하는 '아이콘(icon)' 역할을 하도록 했다.

뒷이야기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날은 2월하순경, 꽤나 쌀만했던 기존 건물 철거를 아쉬움속에 묻고 새로 탄생할 건축물에 대한 기대에 사뭇 가슴은 뛰고, 그러나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지하터파기 공사 및 흙막이 공사는 난관에 부딪히고 건물 전반에 걸쳐 수막은 흐르고 주위건물 담장에 크랙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가져야 했다.

최초 화강석버너구이의 외벽미감이 노출 콘크리트로 변경 되면서 6개월 간의 설계기간을 거쳐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고, 그인 인해 예정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건축주의 단호한 결정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결국 지하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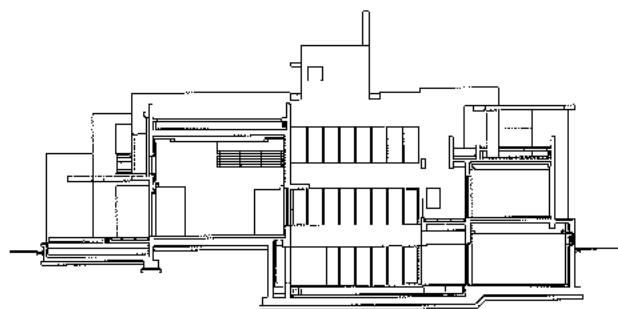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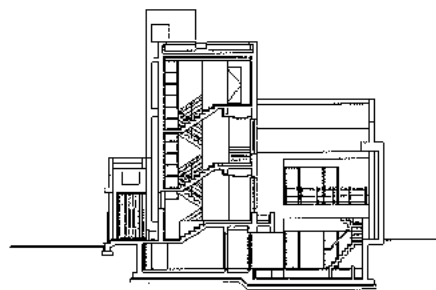
사 기간만 3개월여, 총공사 예정기간 8개월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인해 결국 9월 공사에정 마감을 12월에서야 마칠 수 있었다.

노출콘크리트의 물성을 자연느낌 그대로 살리고자 시공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설계감리자는 현장에서 보내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차츰 골조가 완성되어 가면서 노출콘크리트의 매력이 한껏 건축주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공사는 주변 민원없이 순조롭게 진행해 나갔다.

빛 자연채광, 자연환기, 통풍, 北高南低, 적절한 프라이버시, 하늘 중점을 중심으로한 삶의 궤적,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 주는 전이공간, 사색과 여운이 남아도는 듯한 풍요로운 공간, 테라스, 간 복도, 옥외 DECK 이 모든 공간이 햇살가득 어루어진 건강하고 행복한 공간이고자 정성을, 참으로 힘든 정성을 기울여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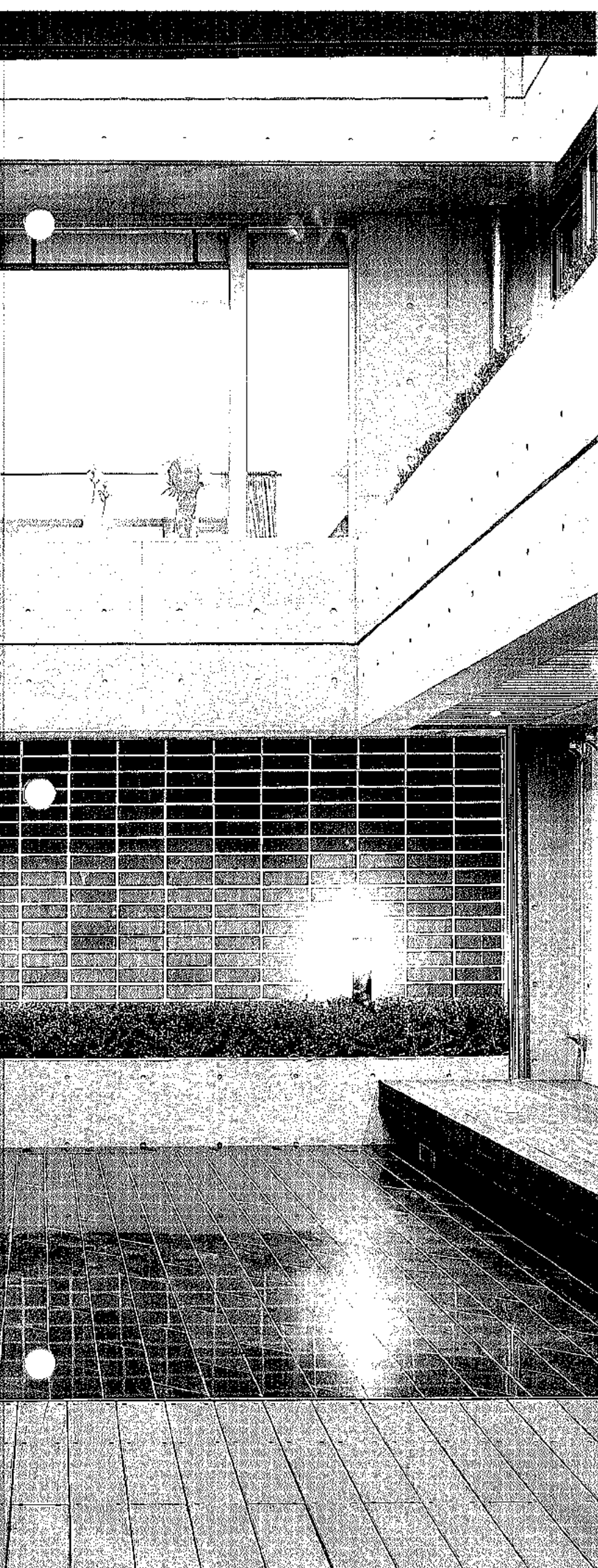
최초의 DESIGN CONCEPT이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변하지 않는 초지일관의 모습이 시공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져 갔다. 다만 그로인해 DETAIL 한 작업량은 갈수록 늘어만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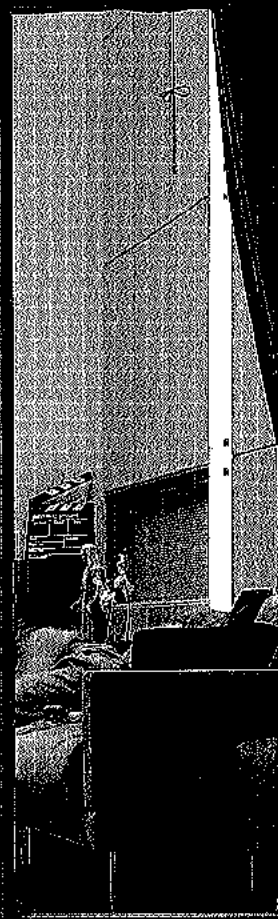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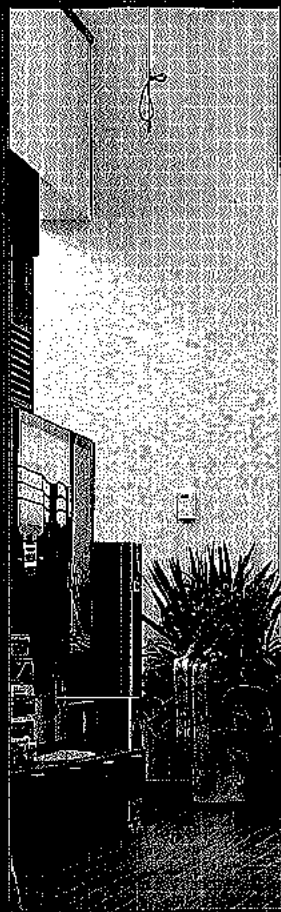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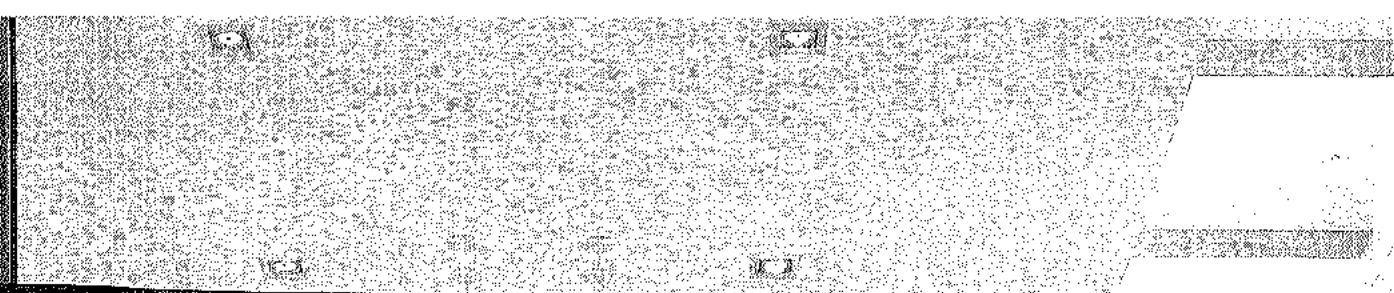
이웃의 아름다운 정원을 향해 열려 있는 공간, 이웃에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보여지는 공간, 이웃의 잘 갖추어진 마당을 각각의 방에서 내마당처럼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된 방, 옥상 휴게공간과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분위기를 한껏 살리는 조경, 방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는 자연채광, 이 모든 물성들이 노출콘크리트 외벽재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요소가 되었다. 이를 통해 살아 숨쉬는 듯한 풍요로운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실현된 듯 하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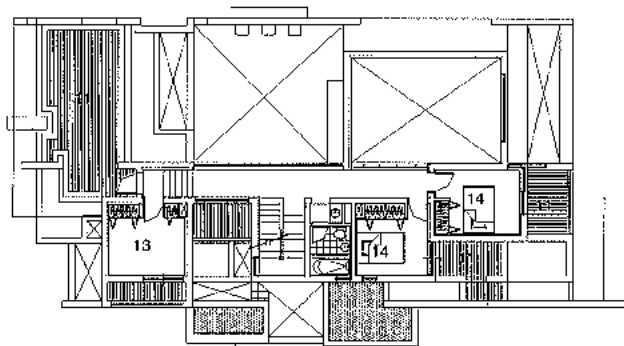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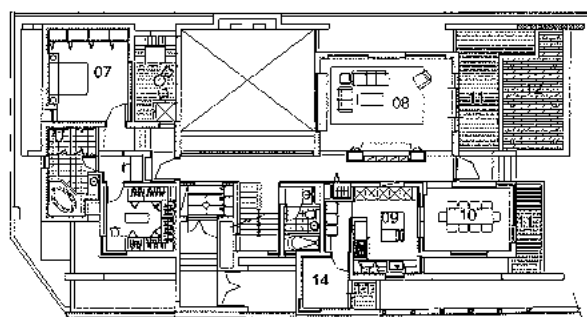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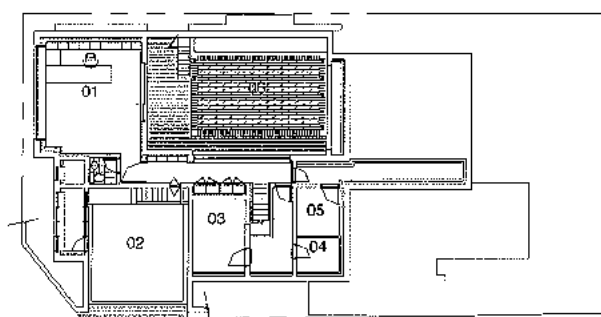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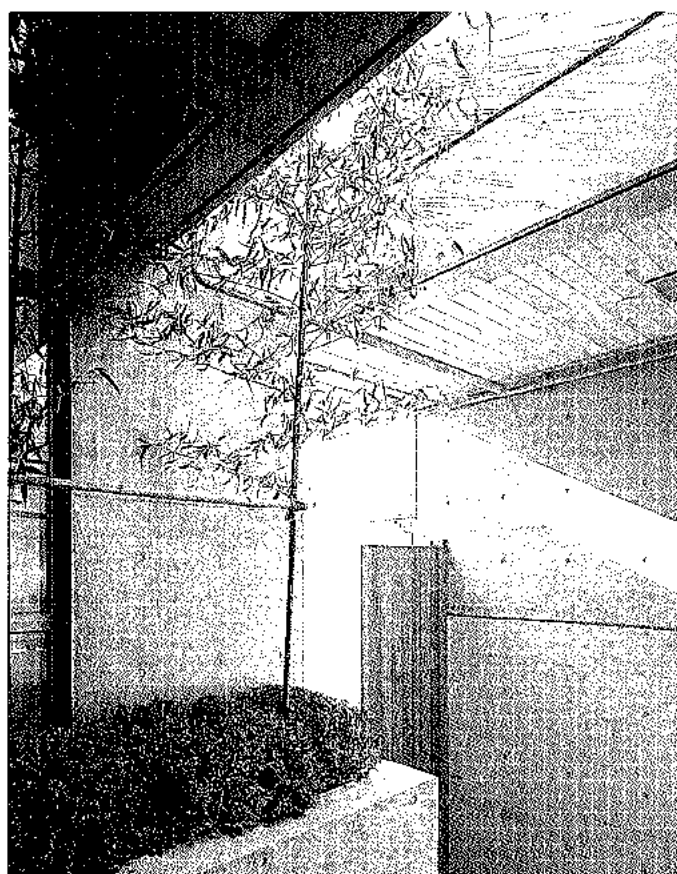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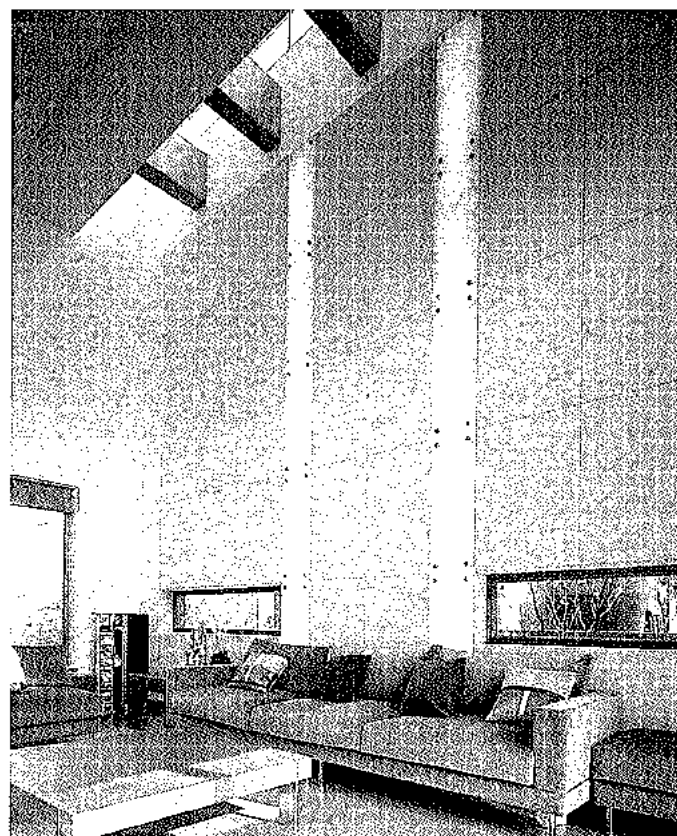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 | | | |
|----------|--------|---------|
| 01_ 서재 | 07_ 안방 | 13_ 손님방 |
| 02_ 두서방 | 08_ 거실 | 14_ 방 |
| 03_ 통풍크 | 09_ 부엌 | |
| 04_ 보일러실 | 10_ 식당 | |
| 05_ 피트 | 11_ 데크 | |
| 06_ 선반 | 12_ 입문 | |



포스코 역사관 Posco Historic Museum

이광만 · 오동희 /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Kwang-Man & Oh Dong-He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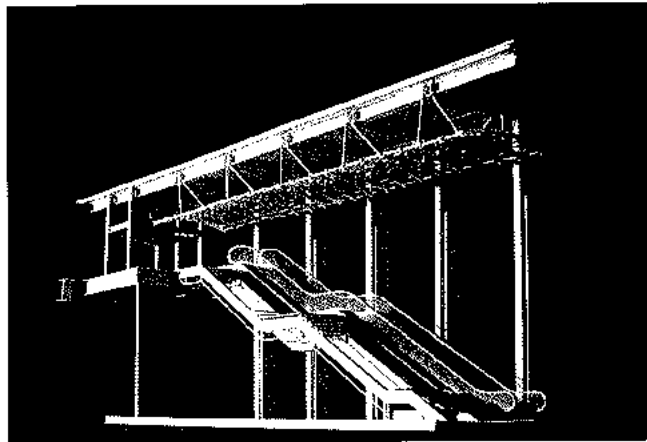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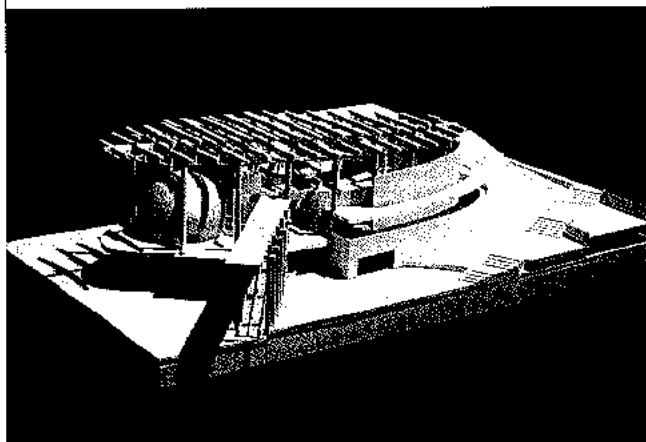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10번지 외 5필지
지 역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10,143.21㎡
연 면 적	3,736.28㎡
건축면적	2,344.93㎡
조경면적	2,575.46㎡
주 용 도	문화 및 잡회사설(전시장)
건 폐 율	23.12%(법정 70%)
용 적 륜	36.84%(법정 400%)
주최대수	8대(옥외 38대)
층 수	지상 4층, 옥탑 1층
최고높이	23.90m
구조종별	철골조
외부마감	T:10 STS, H/C PANEL(OPEN JOINT TYPE) T:0.5 STS PL (446M DULL FINISH) T:15 강화유리
내부마감	THK 40mm 시멘트몰탈 / THK 20mm 대리석 악세스 플로어 / THK 6mm 카펫타일 50×50 ST L PIPE / THK 2mm ST L PL 불소수지 도장 / 경량철골천정틀 / THK 9.5mm 석고보드 2겹 위 비닐페인트
설계담당	김병현, 서승원, 노태근, 박훈석, 윤하용, 이순원, 강동균, 고윤영
시 공 자	(주)포스코건설
감 리	문수남, 이상락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Treasures in flying elliptical tu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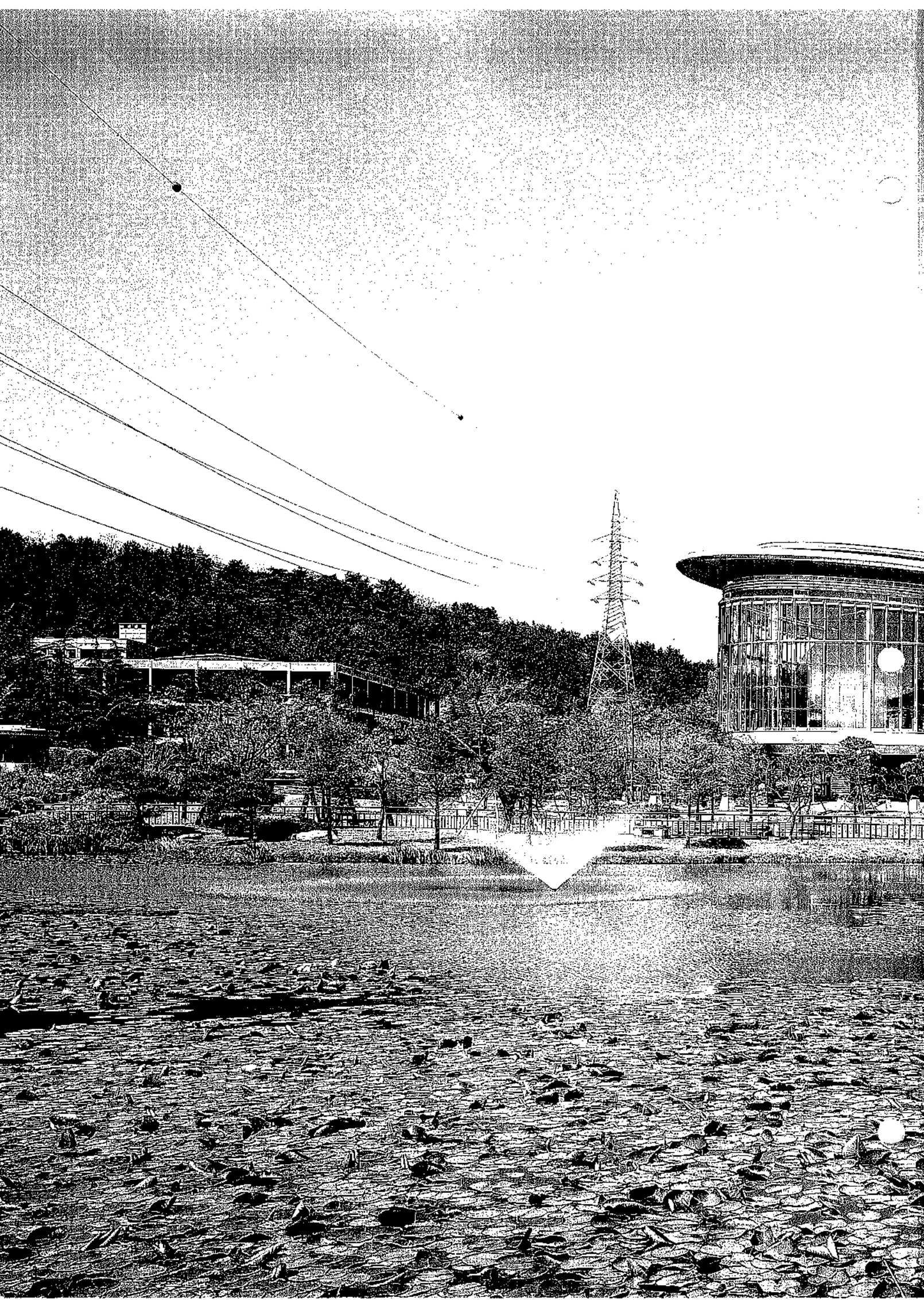
지식, 정보화 사회 건축의 변화는 '속도'라는 말로 표현된 만큼, 급속히 적용되고 있다. 기업은 대중보다 앞서 변화를 감지하고 이것을 기업의 브랜드로 재창조하고 있다. 소비의 수요를 주도해야 하는 기업에서 스스로 자발적인 변화의 의지는 곧 신뢰로 연계되고, 이것은 바로 기업의 미래를 예지한다.

POSCO 역사관은 POSCO 35년의 지나간 역사를 정리하고, 이를 미래를 지향하는 초석으로 삼아 국민기업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인류문명의 근원이 되는 철의 가치를 알리는 한편 '철'이 지닌 환경친화적 재창조성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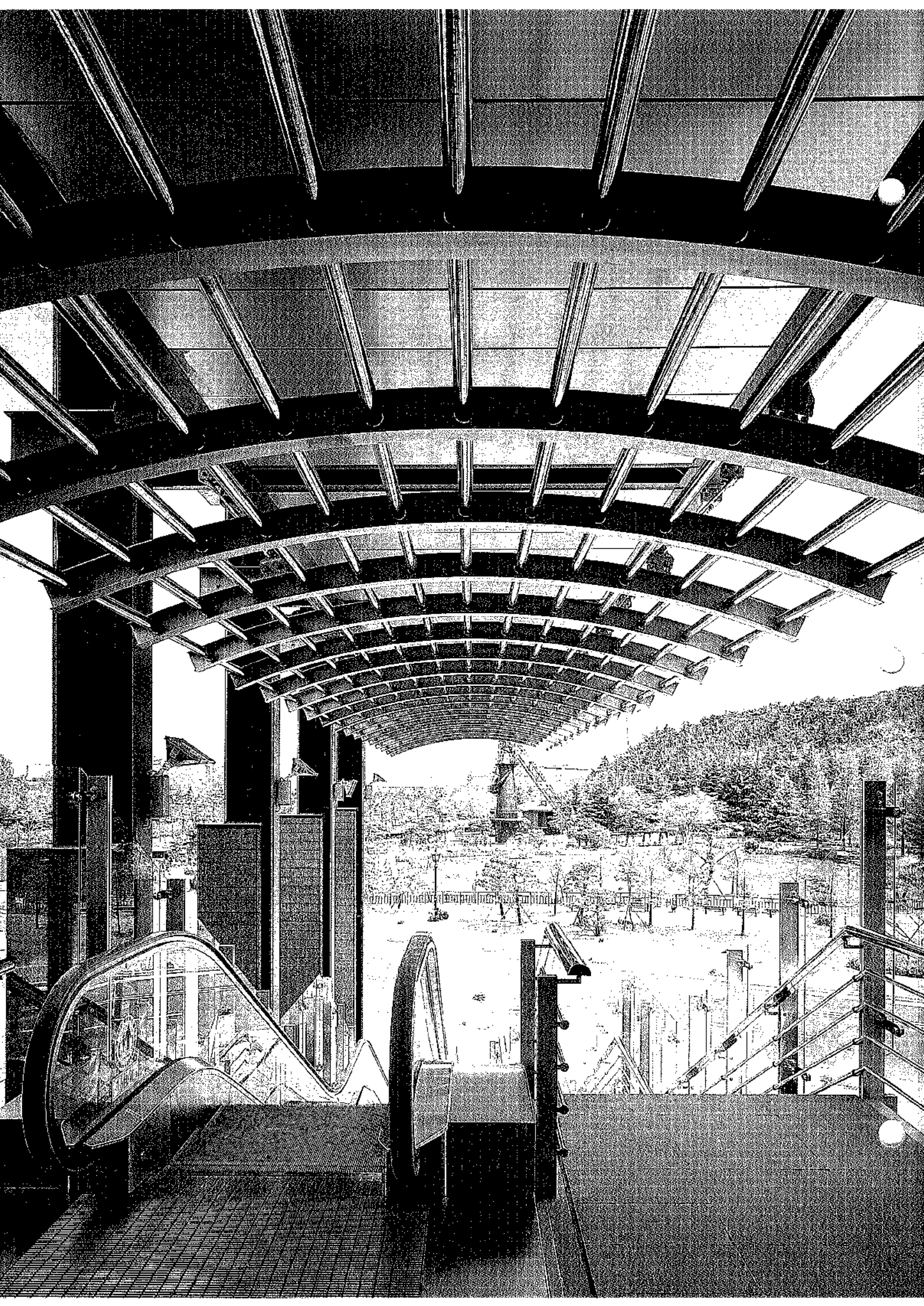
박물관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죽은 물건들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대상물과 빛과 소리와 냄새로 생명을 되살려 내야 한다는 관념이 있다. 따라서 박물관의 건축은 대개 현실과는 격리된 장소에 최첨단의 전시기법을 통해 효과를 발휘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간삼건축이 추구하는 POSCO 역사관은 계획초기부터 이러한 원칙을 깨뜨리려 하였다. 역사관이 대응하는 것은 동해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이고, 그 태양의 빛이 역사관에 투영됨으로써 건물은 아침과 낮, 오후가 되도록 스스로 변화한다. 이런 점에서 POSCO 역사관은 살아있는 박물관을 지향하고 이것은 곧 간삼건축이 늘 주장해오는 '유동성'의 미학과 '빛'의 변화, 이를 통한 '환경건축'의 창조를 다시 재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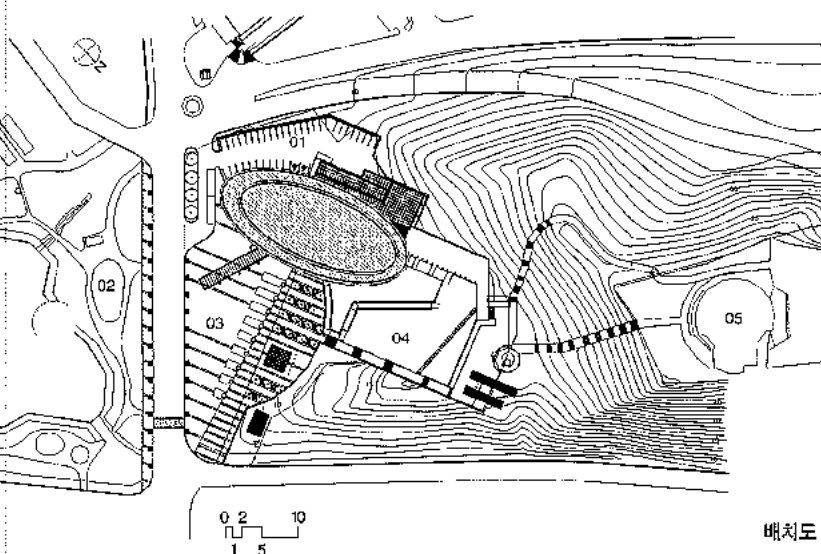








- 01. 주차장
- 02. 공원
- 03. 진입광장
- 04. 야외전시공간
- 05. 기존 홍보센터



POSCO 역사관은 후면의 홍보센터와 전면의 연못을 사이에 두고, 그 공간을 광장으로 비워둠으로써 부지의 서쪽 변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관람객을 향해 광장과 야외공원을 제공하고 건물은 뒤로 물러서 자리잡고, 또한 거대한 Glass Tube가 마치 떠있는 타원처럼 중량감을 느껴지지 않도록 한쪽을 띄우고 있으며, 그 Glass Tube 내부에는 '지구'를 상징하는 '구체'가 물 위에 실려서 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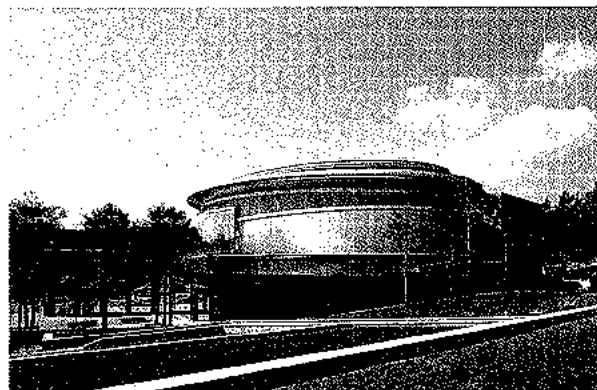
모두 3층으로 구성된 건물은 광장에서 직접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2층의 역사관 전시홀로 접근되는데, 거대한 진입구의 철 캐노피는 주변 환경에 동화되어 관람객을 압도하지 않고 오히려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약 66m × 28m의 타원형 공간은 역사관의 주 전시홀과 영상관으로 구성되며 무주공간으로 처리됨으로써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이 수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예상할 수 있는 전시홀의 변화에 능히 대응할 수 있는 비워진 공간이다. 2개의 레벨로 구성된 전시공간 내부에는 '철'의 역사와 'Posco 창업전사' 그리고 '주전사관'을 중심으로 '명예의 전당'과 '세계속의 Posco'가 위치하며, 이것은 건물 남측의 '영상관'을 체험함으로써 관람객의 기억속에 Posco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기억되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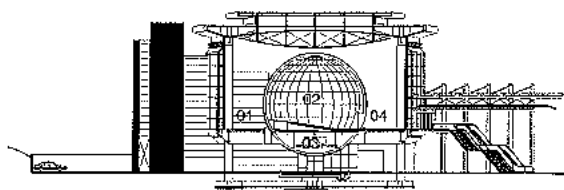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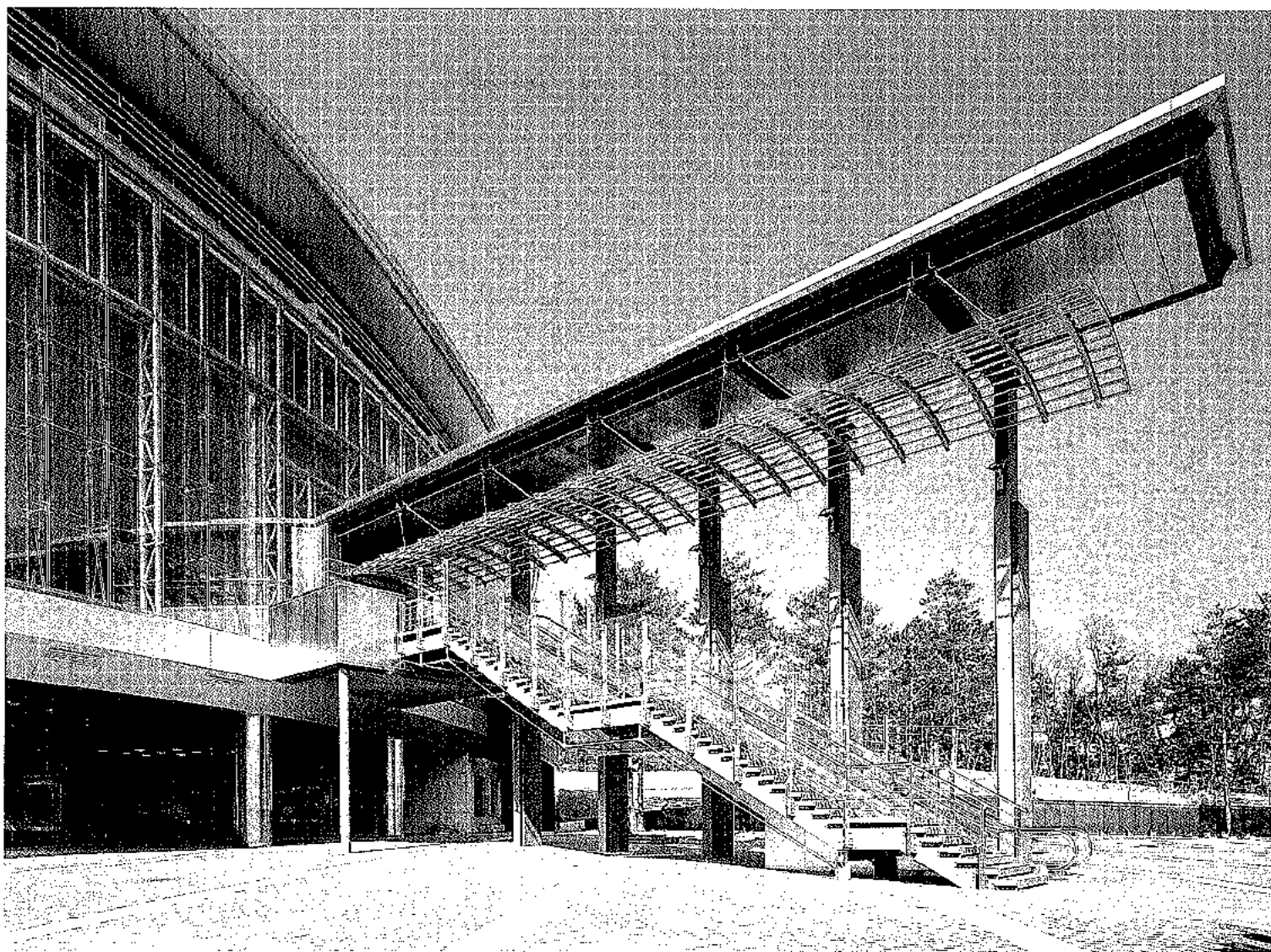
야외전시장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전망 walkway는 건물의 타원을 따라 유순하게 외부의 정원으로 관람객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공간을 따라 야외공간에서의 체험을 기대하도록 하고 있다.

Glass Architecture를 통해 건축의 중량감을 줄임으로써 건축의 비물질적 가치, 즉 '유동성'을 승화시키는 POSCO 역사관은 그 표면의 처리에 있어 'Double Skin'을 도입하고, 대공간의 설비계획상 UNDERFLOOR DUCT SYSTEM을 적용하여 Hi-technology의 건축시스템을 채택하였다. 또한 고정된 구축물의 최소한의 무주공간에서의 개변공간을 삽입하여 'space within space'를 구성함으로써 건축공간의 제한성을 확장성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POSCO 역사관은 1990년 이후 지향해 온 건축의 개념, Hi-tech, 정보화로부터 '환경건축'과 Ecology로 전환하고자 하는 간접건축의 건축가집단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글 : 오동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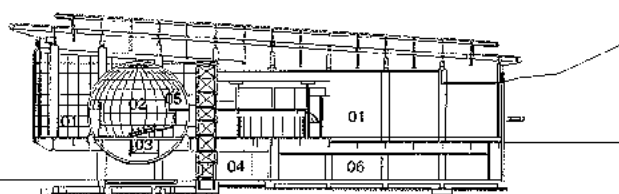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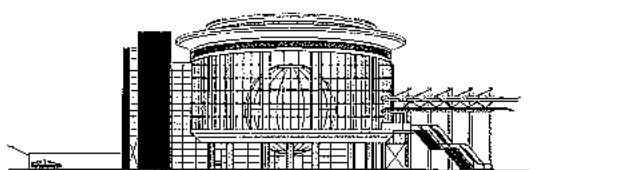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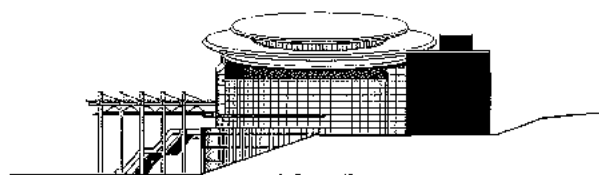
- 01_ 전시실
- 02_ 양상관
- 03_ 공조실
- 04_ 로비
- 05_ 조경실
- 06_ 수장고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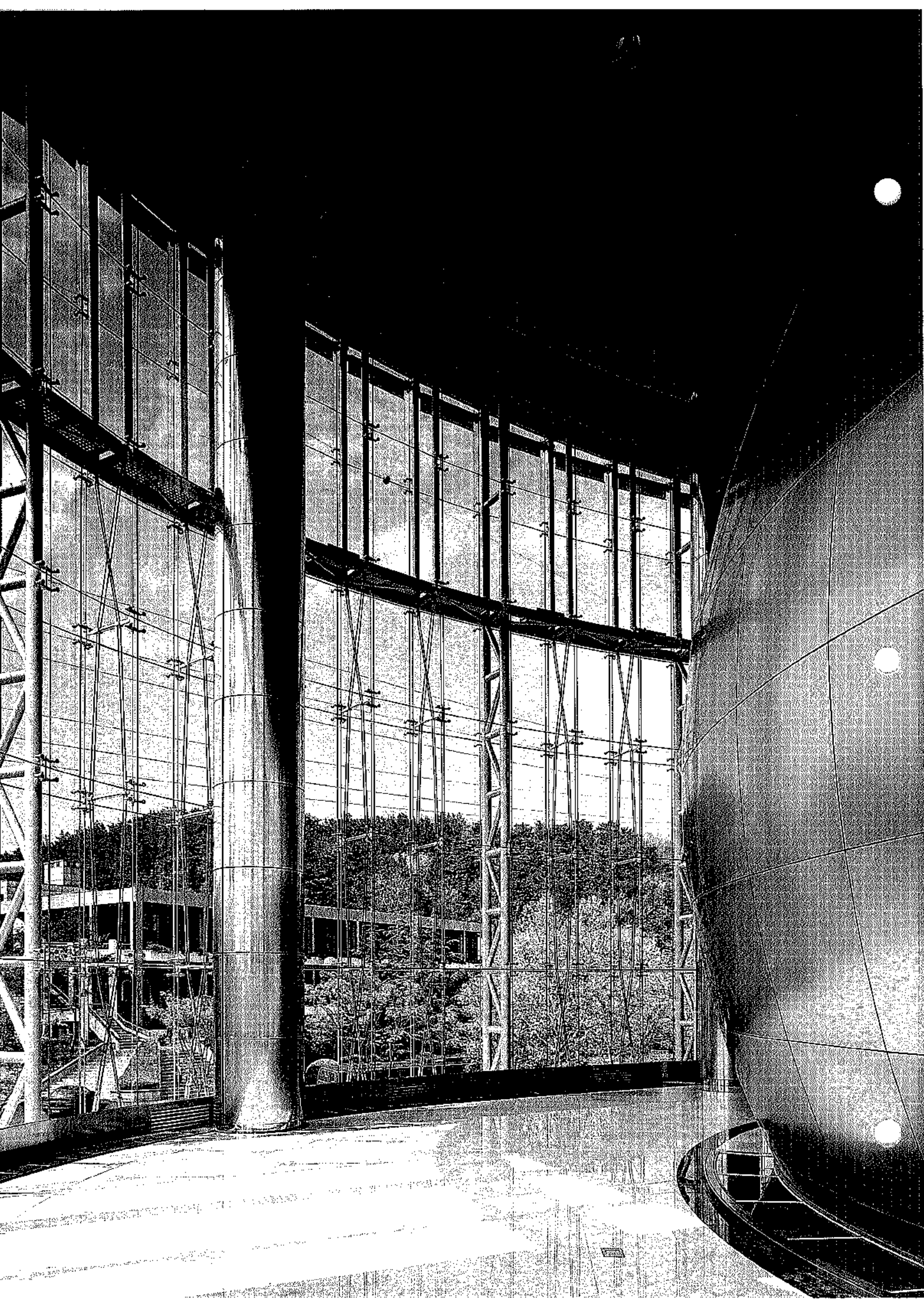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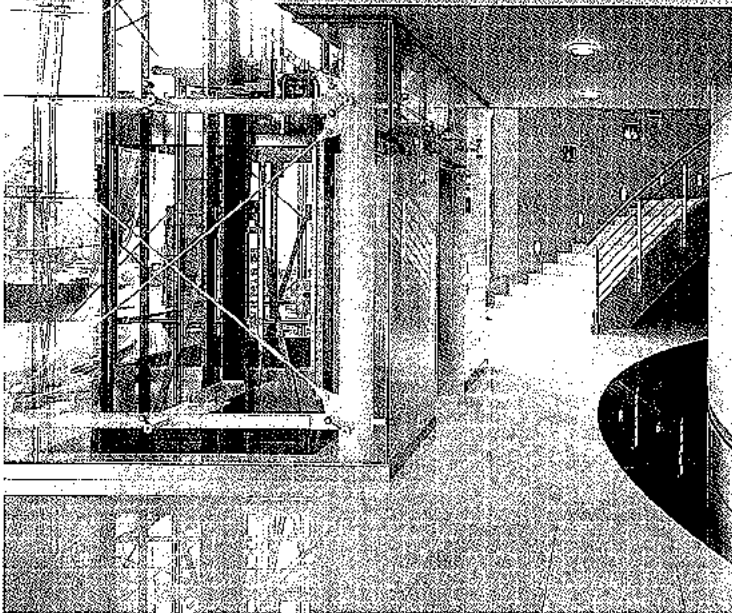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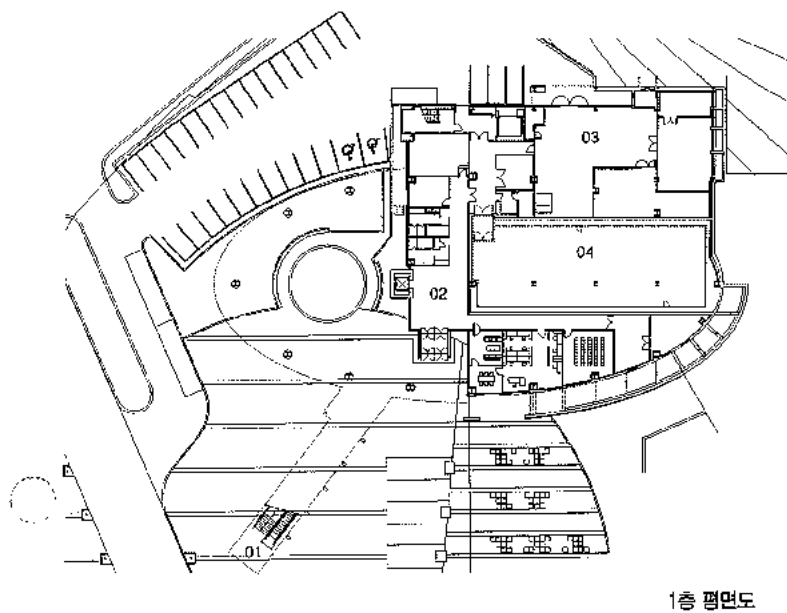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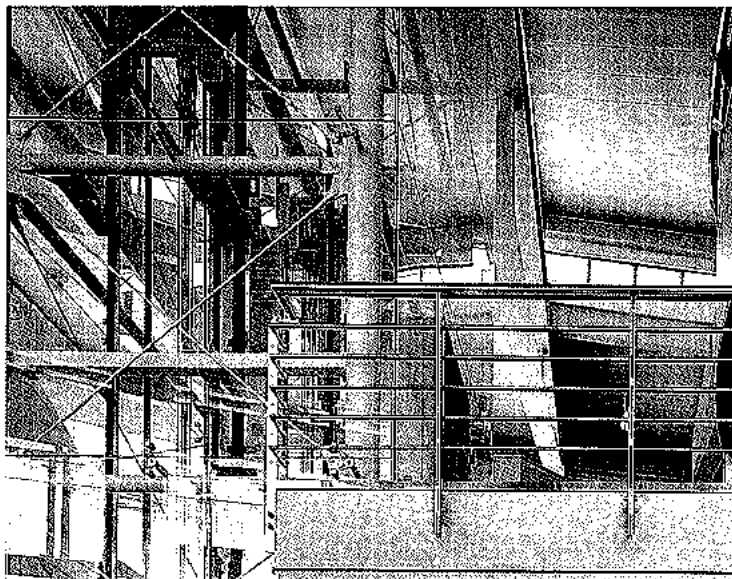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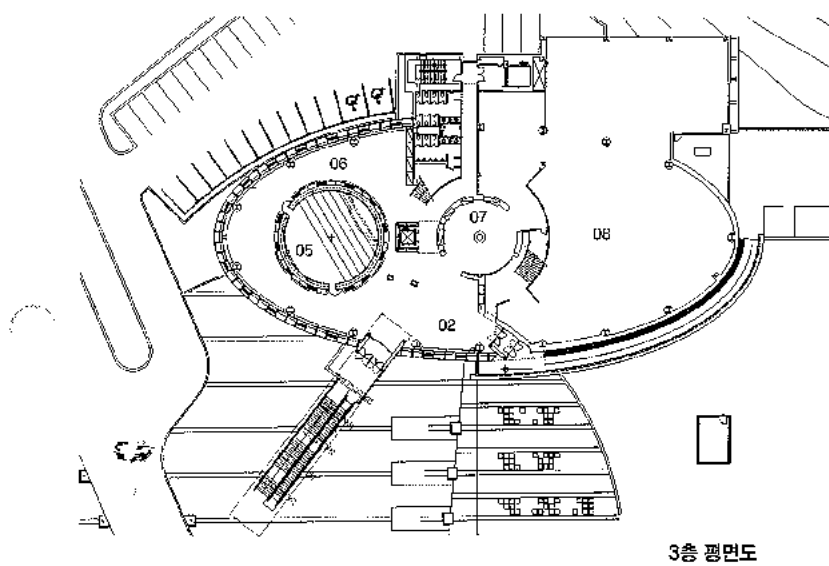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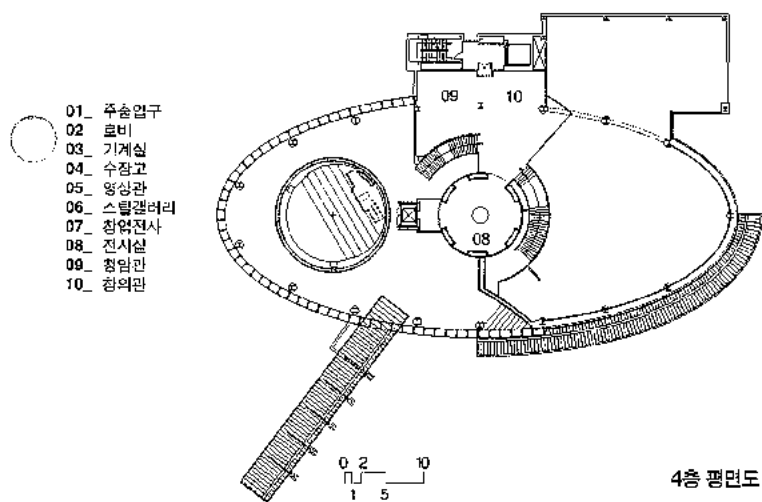
남측면도



북측면도

0 2 10
1 5





와선재(蝸善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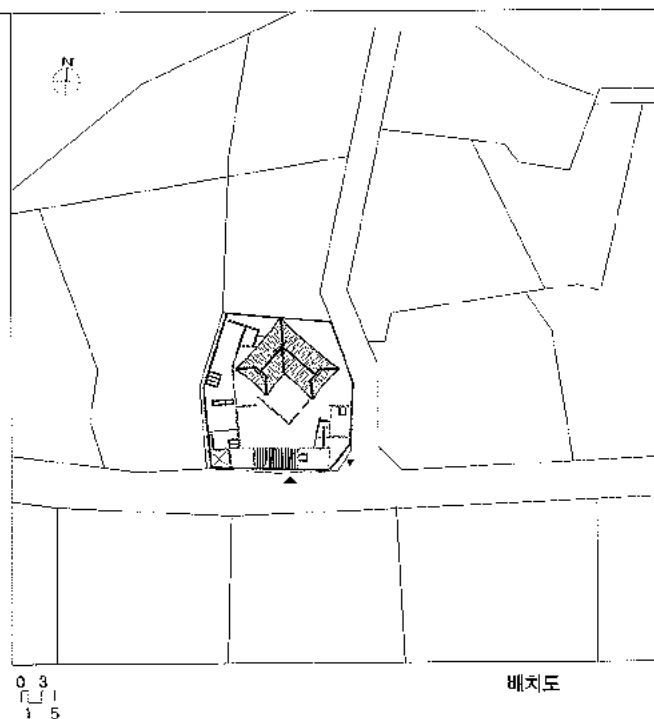
Wa Sun Jai

김효만 / 이로재김효만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yo-Man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27-4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주요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515㎡
건축면적	200.66㎡
연 면 적	275㎡
건 폐 율	38.96%
용 적 율	53.4%
규 모	지상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내후성강판, 드라이비트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온돌옹목재후로링, 미송합판/색라카, 석고보드/색라카
설계담당	정수미, 박미영
구조설계	전광민
시 공 자	김 영
건 축 주	최환상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이집의 주인은 기존 한옥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이 땅에서 자라났으며, 이 동네는 조상들의 선산이 있는 곳이기도하다. 그에게는 이곳이 생명의 기원이며, 감수성 있는 삶의 흔적과 추억들이 응축되어 스며들어있는 "장소"인 것이다.

그 후 출가하여 뜻을 이루며, 이제는 또 한세대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그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 지금까지 줄곧 이 곳을 지키고 계셨던 어머니를 모시고, 삼세대가 모여 사는 삶의 터를 일구었다.

그는 방종작가이다.

한 울타리의 땅에 기존의 전통한옥을 존치하고, 새로운 주거를 수평 증축하여 서로 연결시키는 방식의 건축이 요구되었으며, 이것은 곧 "전통과 현대"의 병존, 그리고 그들의 조화라는 이시대의 난제를 만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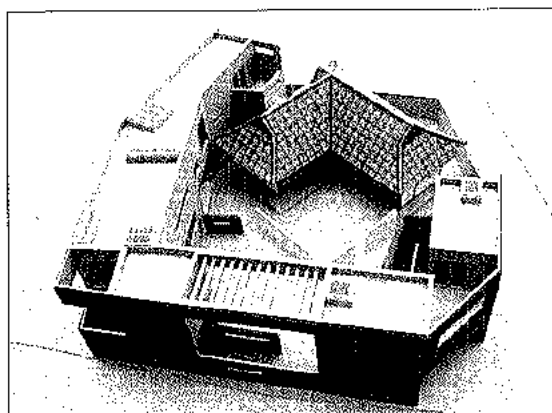
우렁이는 껌질 속 자신의 살 속에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은 어미 우렁이의 살을 먹고 자라며, 그 새끼들이 다 자라면, 어미 우렁이는 "껌질" 만으로 남는다고 한다. 생명의 전수를 위한 본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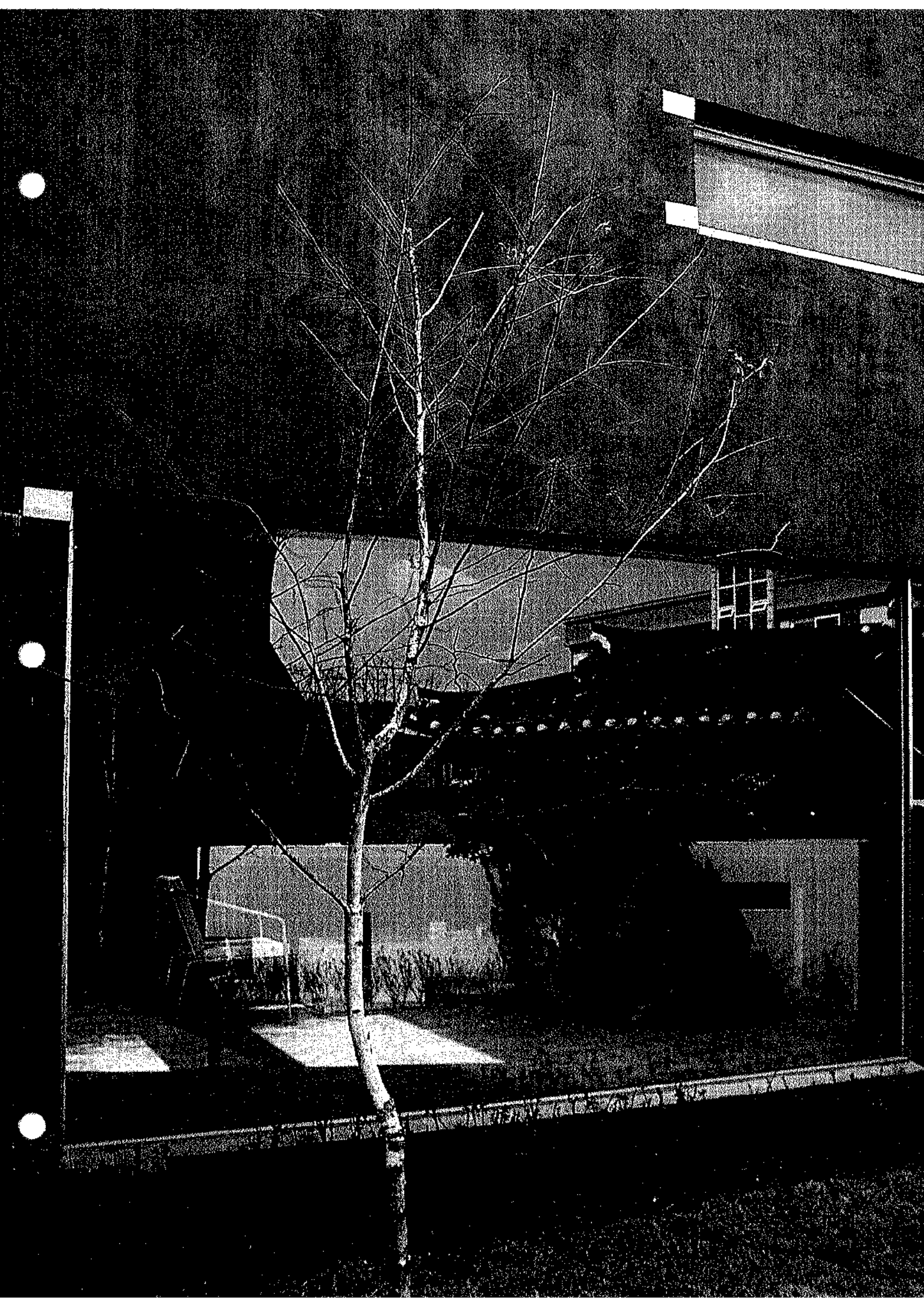
적 헌신이며, 삶의 숙명인 "蝸의 善"인 것이다.

그는 선조들의 헌신이 쌓여진 이 땅에서, 또다시 우렁이의 善을 실현하려함인가.....

"껌질" 로서의 "켜"만을 지으려 했다.

"껌질" 로서의 건축적 "벽"만을 쌓았으며, 이 벽은 시간적 의미







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내후성 강관의 "오래됨"은 원초적 껍질이
며, 미장의 벽과 노출콘크리트의 벽등은 흘러간 이야기들의 "속살"
이면서, 동시에 지나간 연제인가의 "껍질" 들일 수 있을 것이다.

상징적 시간성을 가진 이 벽들은 이집의 터를 십여 "장소"의 "마
당"으로 분할하며, 지나간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는 그 땅, 그 장소
로서의 각개 마당은 또 다른 미래의 삶의 프로그램을 잠재하게 될
것이며, 그 마당과 각 마당의 이야기들의 연결이 풍요로운 공간적
드라마와 삶 적 이야기를 연출해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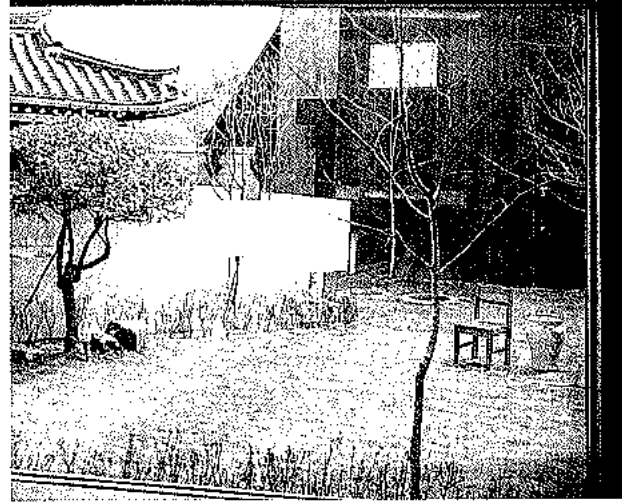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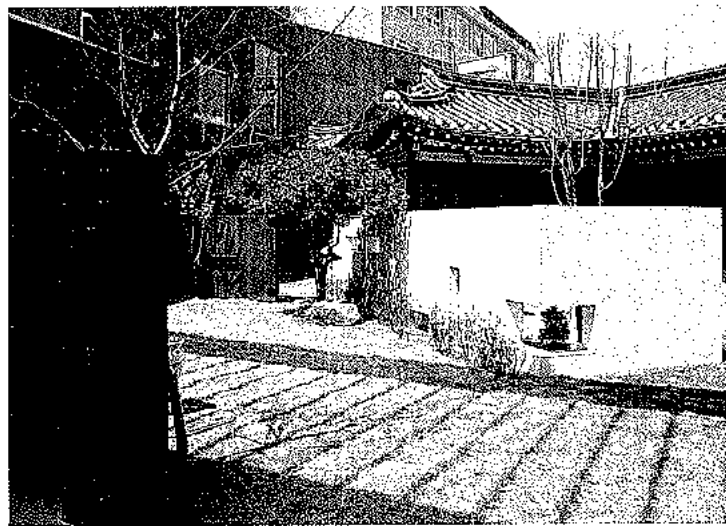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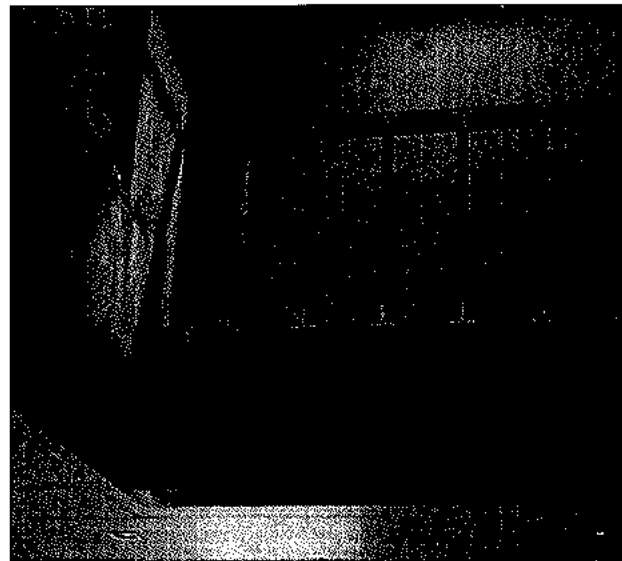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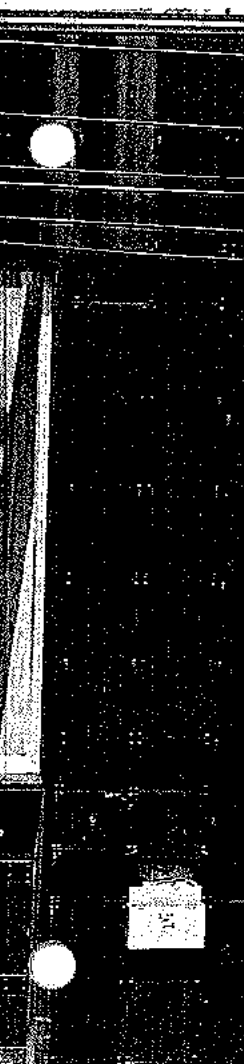
기존 한옥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의 외벽, 내부담장, 외부담장들
의 모든 공간 구성 요소들을 단순한 "면"만을 "형태"로 가지는 "벽"
을 쌓음으로, 어느 곳에서나 한옥이 상징적으로 부각되며, Object
가 되었고, 이것은 이집의 거주자들과 또한 방문자들에게도 "추억
의 풍경"으로서 자연스레 작용할 것이다.

특히 2층에서 내려다보이는 한옥의 꿈틀거리는 기와지붕과 그 뒷

배경으로 다가오는 분당신도시의 고층 오피스텔 빌딩 군이 함께
하는 도시적 풍경은 시간적 문화성의 격차와 묘한 불협화적 조화
를 느끼게 하며, 동시에 긴 세월을 지키고 있는 이 작은 기와집의
당당함을 볼 수 있음은 누적된 세월의 든든함이 그 이유일 것이다.
대지의 경계를 따라 신축의 주거 매스를, 한옥을 둘러싸며, 길게 배
치함으로써, 그 매스는 외부와의 울타리가 되었고, 동시에 기존 한
옥과의 사이에 외부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이 외부공간들은
기능별, 지역별로 나뉘어 시간성을 가진 "벽"으로 구성되는 "마당"
들로 성격화되는 "장소"가 되었다.

결국 시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이 "장소"로서의 "땅의 보존"과 그
위에 새로운 시간의 이야기를 담게 하는 건축적 장치로서의 "벽들
의 기획"이 이 주택의 계획적 목적이 되었던 것이다.

이 주택을 짓는 중, 최근 일어난 수도권 다가구 주택 개발붐을 타
고, 대지 주변의 기존주택들이 일제히 그 문화적 태생이 애매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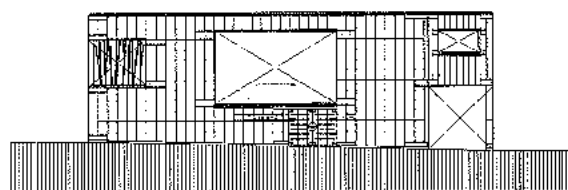


습과 비대한 몸뚱이로 순식간에 돌변하여 우후죽순처럼 이 집을
"포위" 했다.

이집의 내후성 강판외벽이 실제로 그 시간적의미를 담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키 큰 고층빌딩군에게 위협당하며, 주변공동주택군에 포
위된 이 집이,반대로, 그 주변들을 당당하게 거느리는 지휘자처럼
튼튼하게 보임은 어디에 연유하는가.....

그것은 오랫동안 응축된 "세월의 흔"과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겹질"들의 견고함 때문이 아닐까.....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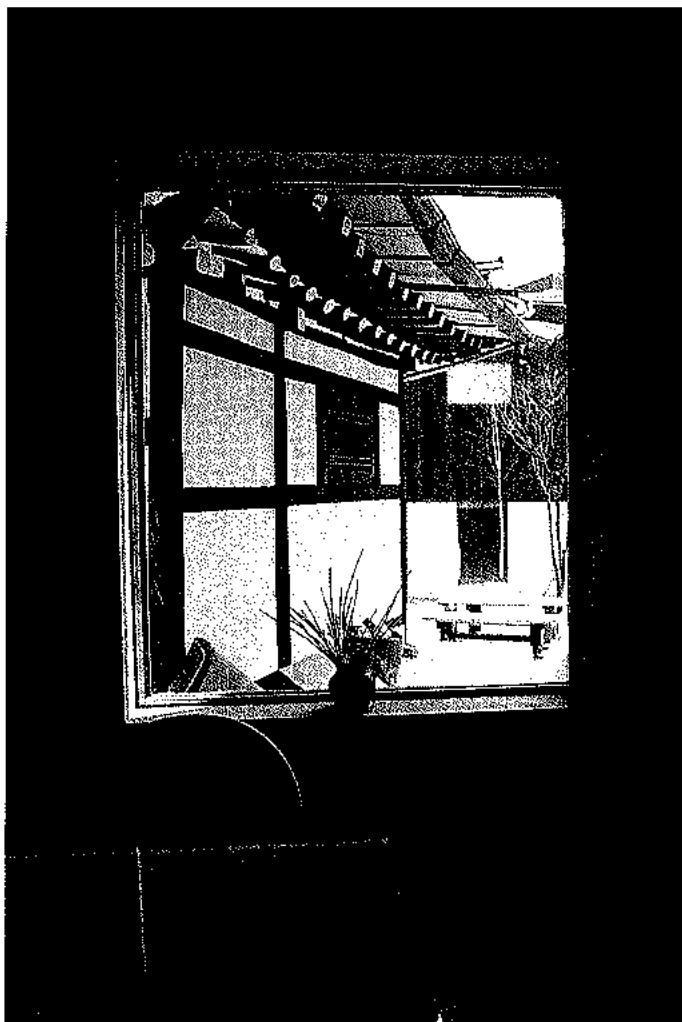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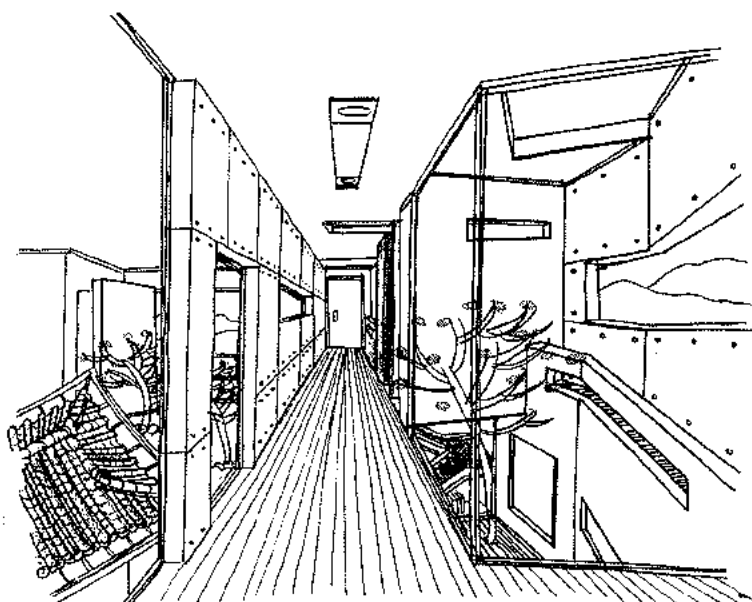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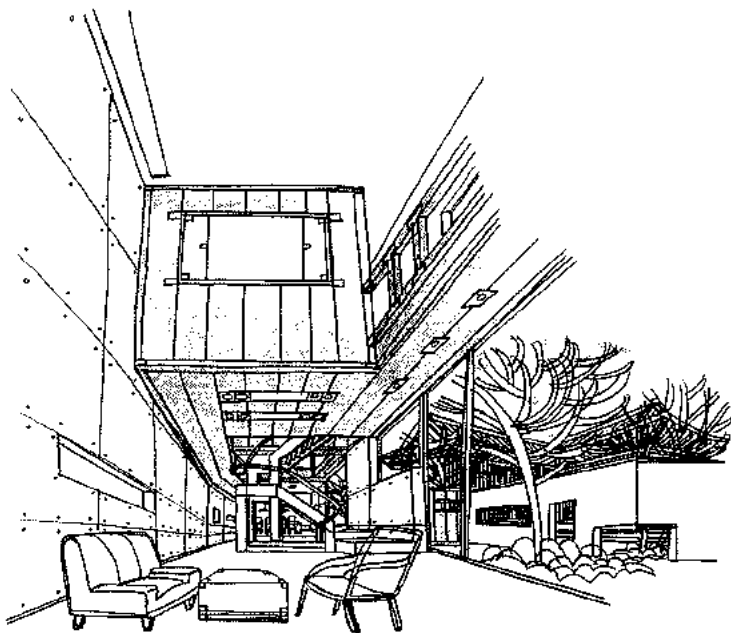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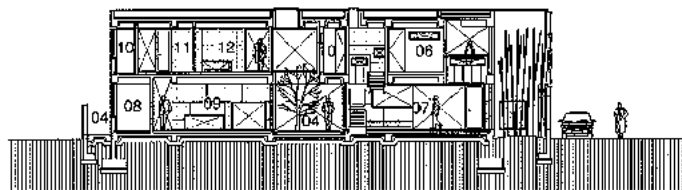
0 1 3 5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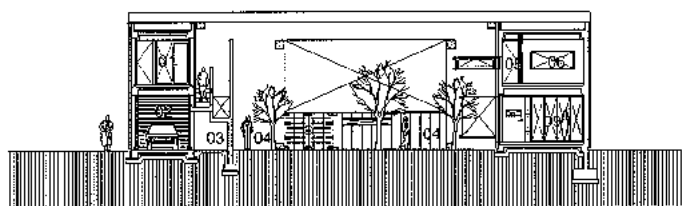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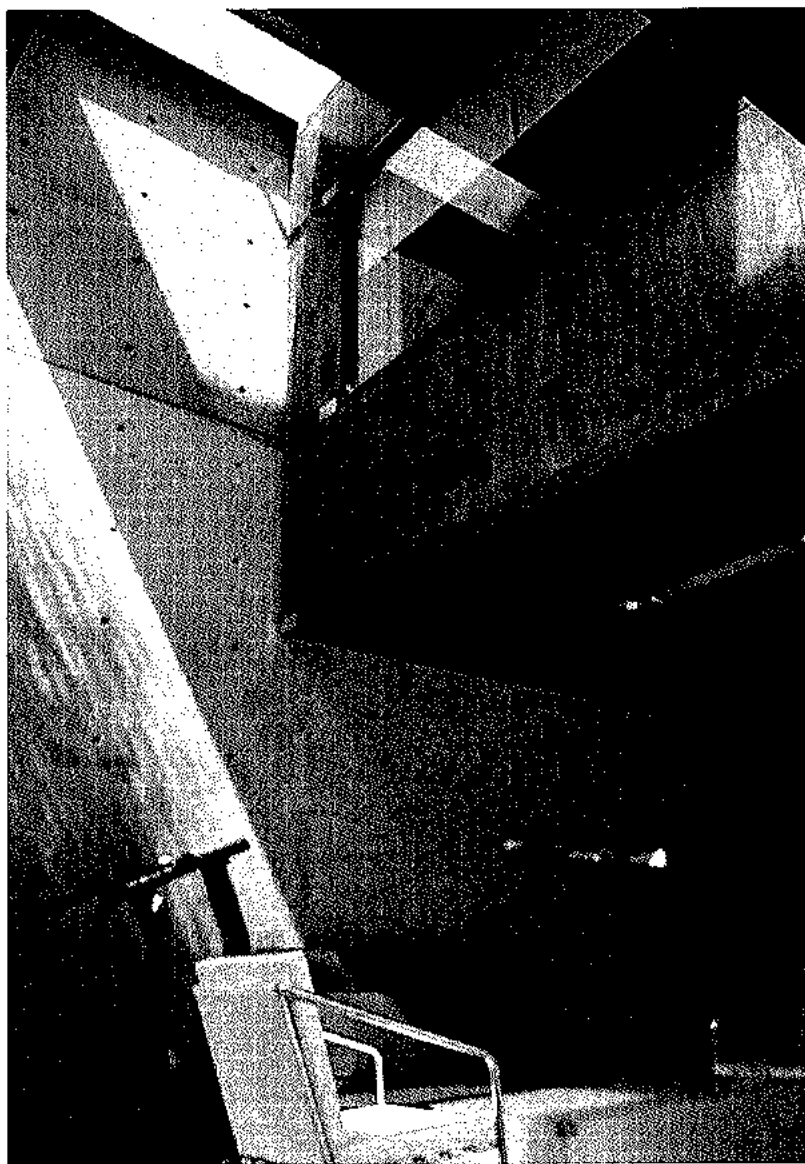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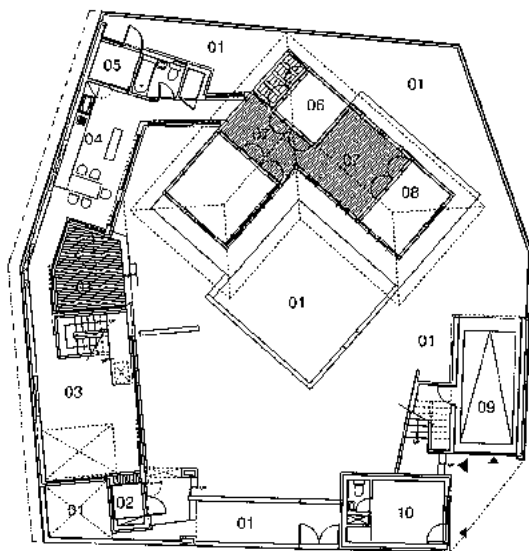
- 01. 원룸
- 02. 차고
- 03. 창고
- 04. 마당
- 05. 복도
- 06. 침실
- 07. 거실
- 08. 다용도실
- 09. 주방
- 10. 욕실
- 11. 주인침실
- 12. 가족실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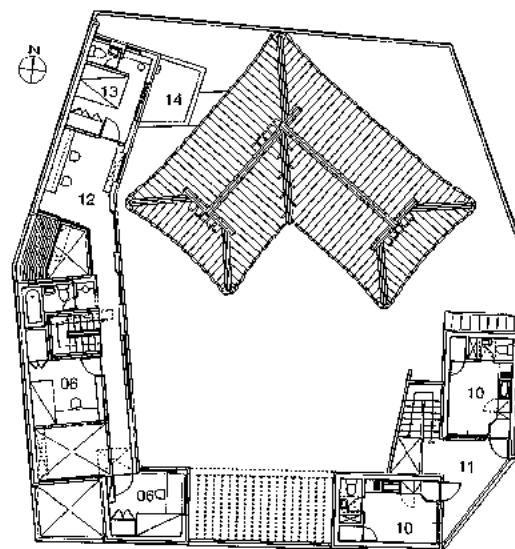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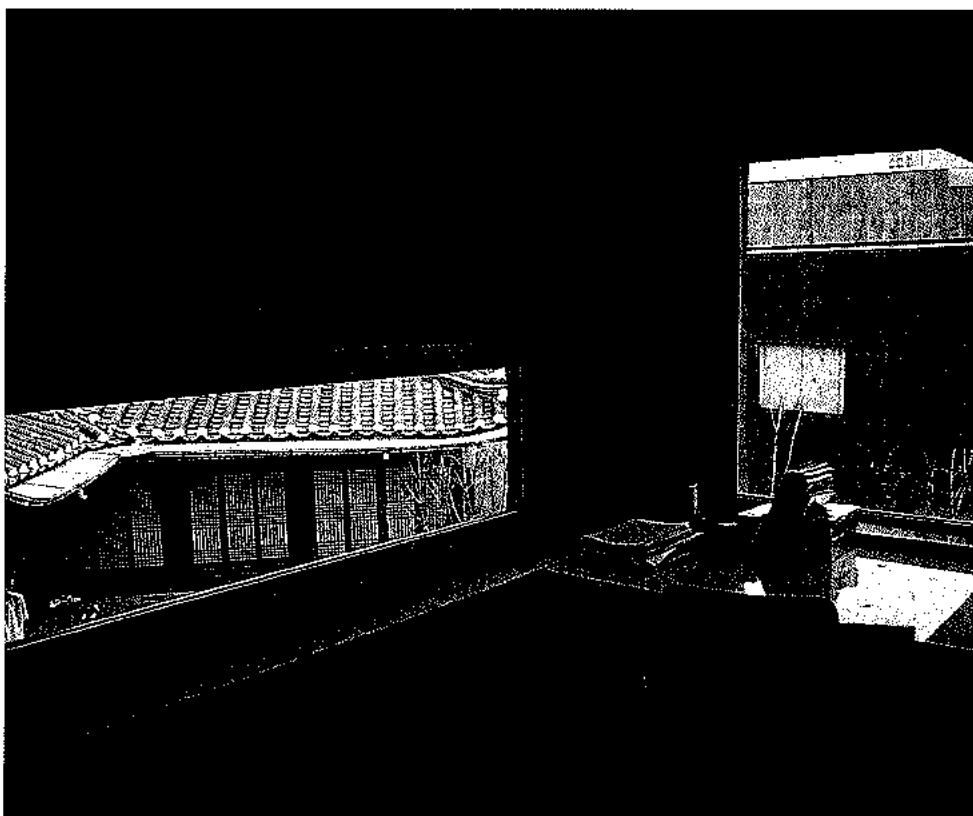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01_마당
- 02_현관
- 03_거실
- 04_주방
- 05_다용도실
- 06_침실
- 07_태평마루
- 08_서재
- 09_차고
- 10_원룸
- 11_노대
- 12_가족실
- 13_주안침실
- 14_테라스



2층 평면도



광주전시컨벤션센터 GWANGJU COEX

정림건축(문진호·백문기) + 국보이엔지 건축사사무소(이창율) + 건축사사무소 대호(송건) + 박영호(부천대학)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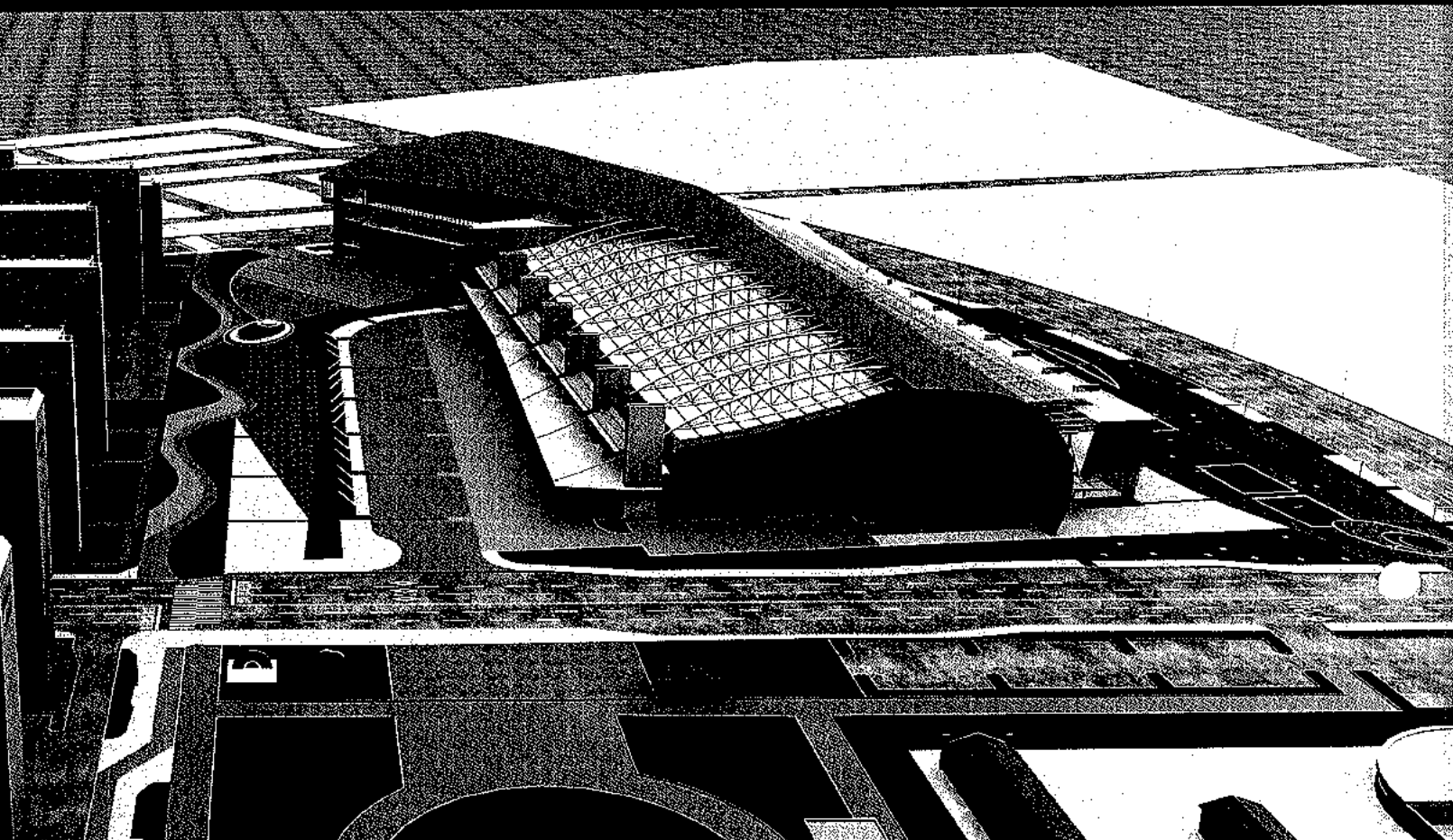
흐르는 땅 흐르는 빛

생명을 품은 / 땅 / 그 땅은 / 삶을 타고 흐르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 빛 / 그 빛은 / 미래로 흐른다.

광주 전시 컨벤션 센터는 국토 서남단의 중심도시이자 중국, 일본 등 환 태평양의 국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북아 경제권의 거점도시로서, 또한 21세기 신산업인 디자인 산업과 광산업의 메카로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려는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전시 컨벤션 센터이다.

우리는 새로운 전시 컨벤션 센터를 설계하기 위해 세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 상징성
- 장소성
- 기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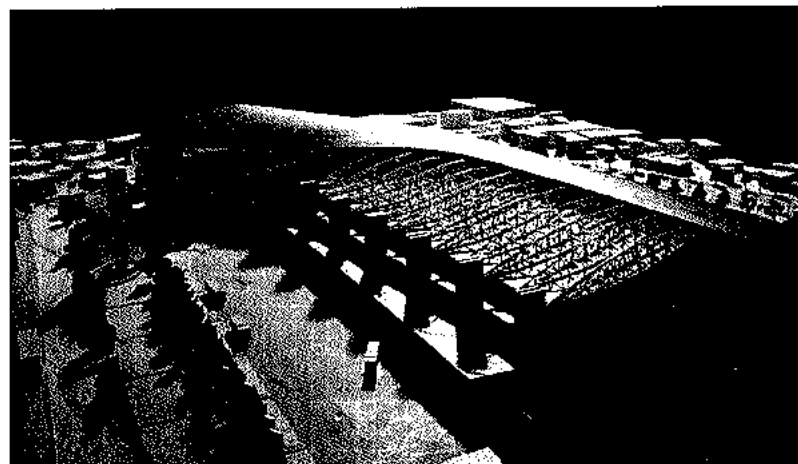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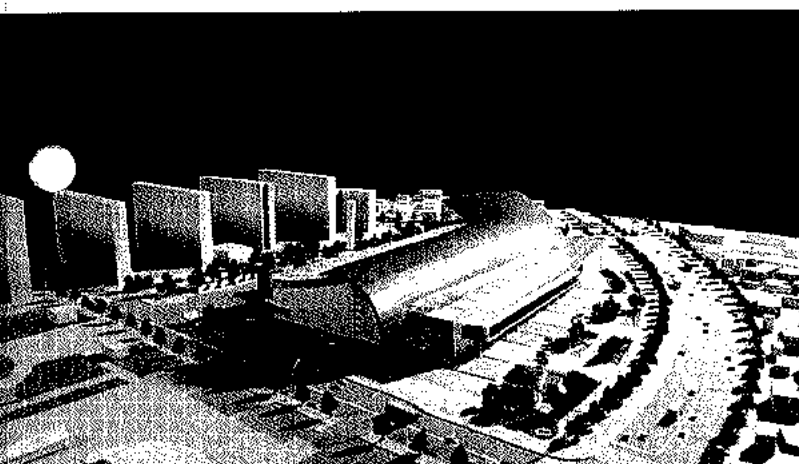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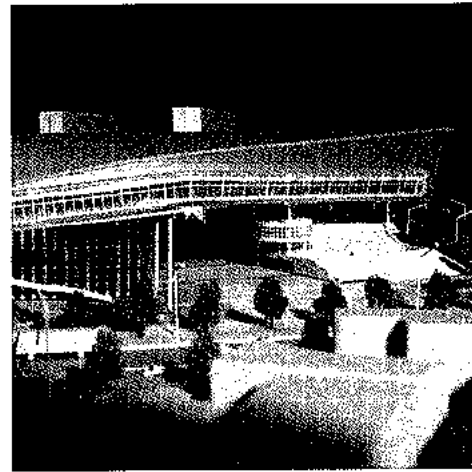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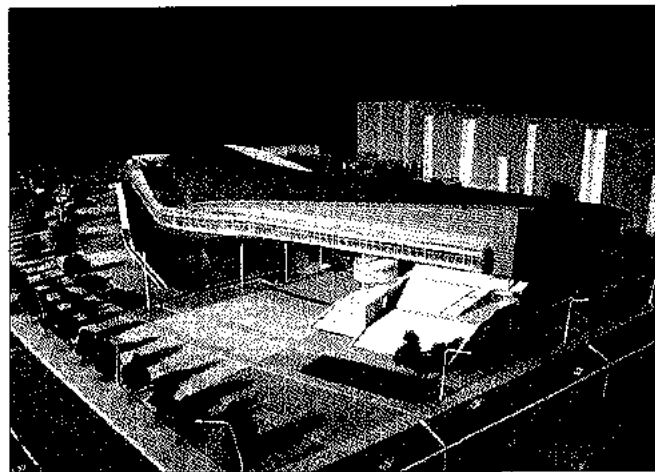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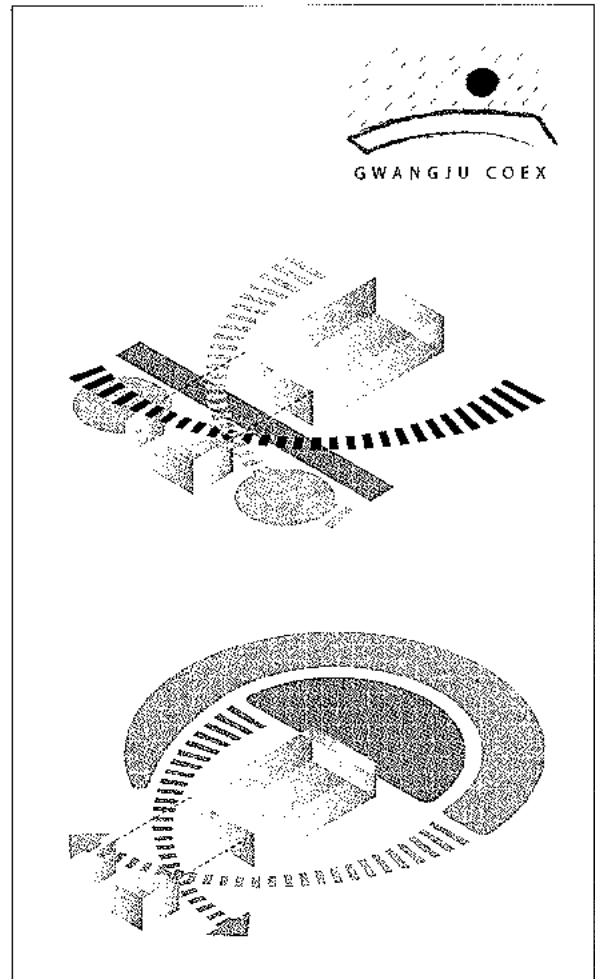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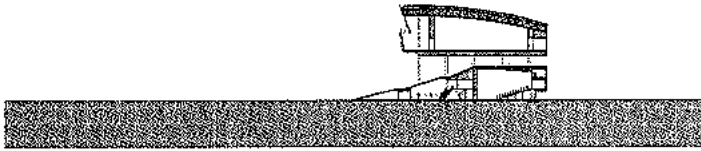
· 상징성 : 광주광역시를 상징하는 광주만의 것을 찾고자 하였다. 우리가 고뇌 끝에 얻은 결론은 빛, 민주화, 무등산 이었다. 빛 고을 광주의 상징성, 순수하면서도 공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민주화의 역동적인 에너지, 마음의 고향 무등산을 건축화하여, 서울이 아니라, 고양시가 아니라, 대구와 부산 그리고 제주가 아니라 광주에만 있는 전시 컨벤션 센터를 제안하였다.

· 장소성 : 건축가에게 땅은, 장소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곳이 광주이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어려운 장소적 맥락을(북측 : 5·18자유공원, 동측 : 주거시설(아파트), 서측 : 도시계획 시설의 지역(전, 답), 남측 : 근린상업시설)을 제한 요소가 아니라 장소와 땅이 가진 가능성으로 받아 들여 새롭게 해석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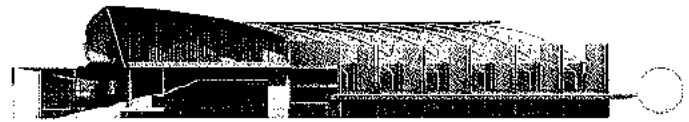
· 기능성 : 새 전시 컨벤션 센터는 전시 컨벤션 센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과거의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변화하는 미래에 적합한 새로운 광주 전시 컨벤션 센터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제안이 실현되도록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고 있다.
흐르는 빛을 / 맞으며 / 흐르는 땅 / 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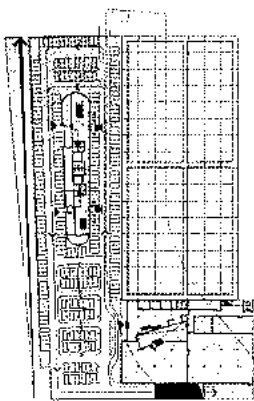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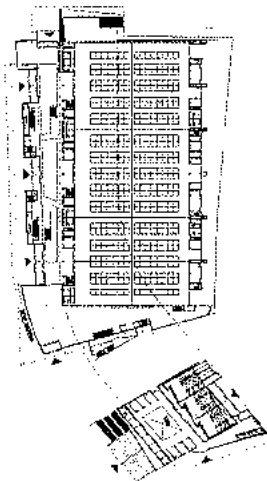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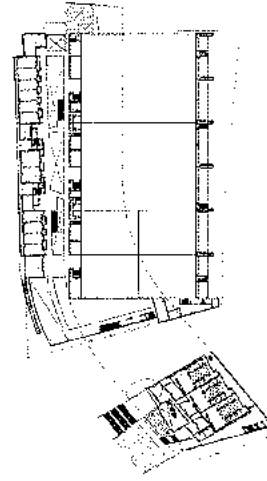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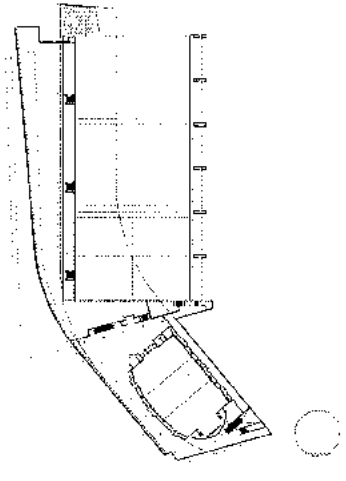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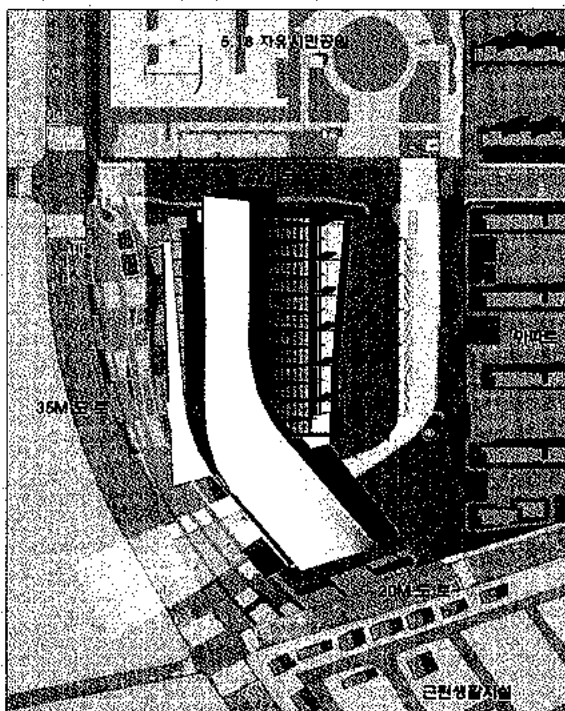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건 축 개 요

대지위치	평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59-2번지(상무지구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상세계획구역
대지면적	53,301.9 m ²
건축면적	20,316 m ²
연 면 적	38,430 m ²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건 폐 율	38 %
용 적 륜	48 %
층 수	지하1층, 지상3층
최고높이	35 m
외부마감	THK 3 알루미늄 시트, THK 24 칼라복층유리
주차개요	총 주차대수 - 403대(장애자주차 12대 포함) 육내주차 - 275대 육외주차 - 128대
조경면적	8,970 m ² (대지면적의 16.8%)
구 조	센구조
설 비	삼신설비
전 기	나라기술단
조 경	솔토조경(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연구동

Education Research Center,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정림건축(문진호, 백문기) + 까치건축 + 장윤규(건축실험아프리에 운생동)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KACI Architecture & Jang Yoon-Gyoo

ResearchScape

총체적인 다양체의 구조와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의 일환이 〈Scape〉의 톨이라 볼 수 있다. 〈Scape〉의 설정은 대지자체의 코드에서 확장된 몇 개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ResearchScape〉는 연구라는 프로그램과의 결합을 통해서 〈Scape〉다양체로 변환되는 가설이라 볼 수 있다. 〈Scape〉의 다양체로서의 공간들은 하나의 코드로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대지, 공간적 성격의 요구를 담아내는 총체적인 틀로 작용한다. 〈Floating + Landscaping〉의 기본적인 구조속에서 〈랜드스케이프 포디움 Landscape Podium〉 〈변형된 선형연구매스 Transformational Linear Structure〉 〈환경적 선형 이벤트 중정 Environmental Linear Event Court〉 〈다목적 미디어 복도 Multi-purpose Media Corridor〉의 개념을 적용한다.

랜드스케이프 포디움 Landscape Podium

대학전체로의 대지적인 총체성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랜드스케이프 포디움 Landscape Podium〉을 적용한다. 대지의 모든 방향에서의 접근과 연결을 수용하는 대지적 연속성 Nature Connection을 구현한다. 현재의 실험동을 제거하고 본래 관악이 가지고 있던 자연을 재현해내는 설정이라 볼 수 있다. 하부의 실험 및 주차장의 영역과 상부의 선형의



연구 매스 사이를 관통하는 환경적인 코드이기도 하다. 자연적인 코드로 구성된 이 공간은 공대에서 요구되는 퍼블릭한 기능들인 체력단련, 휴식, 매점, 로비 등의 공간과 연관되며 열려진 대지를 구성하게 된다. 랜스케이프 포디움은 단일된 레벨의 구조가 아니라 경사지를 따라서 구성되는 기단형의 스킨을 구성하여 입체적인 자연을 구성한다.

변형된 선형연구매스 Transformational Linear Structure
연구를 위한 공간은 환경적인 코드에 의해서 달성되는 합리성을 기초로 한다. 랜스케이프 포디움위에 연구를 위한 4개의 선형매스를 구성한다. 환경적인 극대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정 Courtyard>과 <선형외부공간 Linear Exterior Space>이 결합된 외부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변형된 선형연구매스 Transformational Linear Structure>을 제안한다. 최대한의 외부스킨면적과 내부의 편복도 시스템은 일반적인 환경적 코드인 자연채광, 환기, 통풍, 시각적 조망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형의 연구공간은 융통성과 가변성을 전제로 시스템적인 연구공간을 구성한다.

환경적 선형 이벤트 중정 Environmental Linear Event Court

랜스케이프 포디움의 자연적인 코드의 입체적인 연장으로 <환경적 선형 이벤트 중정 Environmental Linear Event Court>을 구성한다. <변형된 선형연구매스>와 긴밀하게 연관

된 외부공간으로 <중정Courtyard>과 <선형외부공간Linear Exterior Space>이 결합된 외부공간이다. 휴식과 산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 내는 외부공간을 구성한다. 첨단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는 정보적인 휴식공간을 제안하는 <미디어가든Media Garden>, 체력단련, 매점 등과 연계된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극대화하는 <놀이가든Play Garden>, 감성적이며 문화적인 성격의 다목적 옥외 전시공간인 <갤러리가든Gallery Garden>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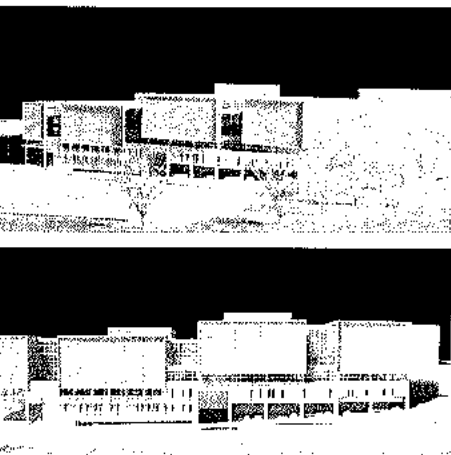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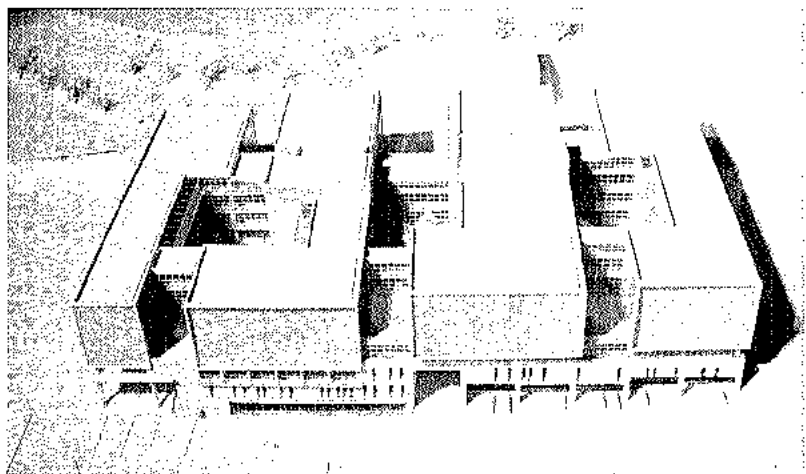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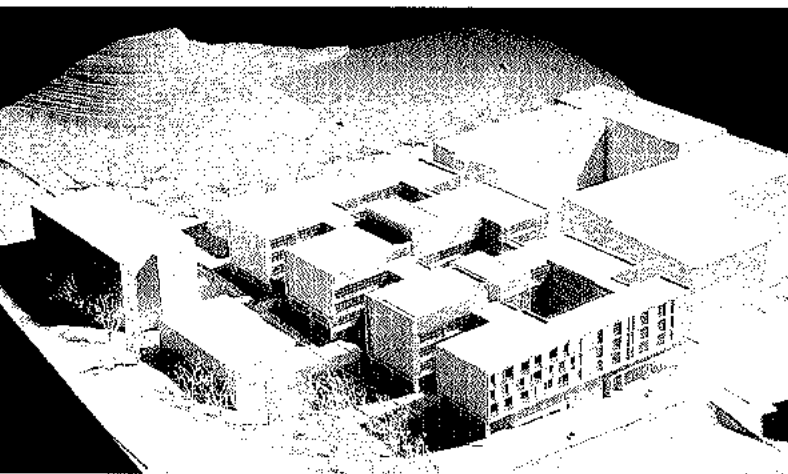
다목적 미디어 복도 Multi-purpose Media Corrid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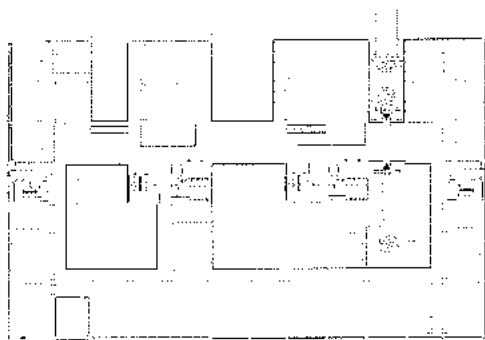
선형 연구공간을 연결하는 동선시스템으로서의 다목적 이벤트교류공간을 제안한다. 교묘하게 숨어있는 프로그램의 일부인 건축적 기능성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를 연결하는 동선시스템이면서 전시, 공연, 휴식, 그룹미팅, 세미나 등의 대학 프로그램을 무한하게 가능케 하는 <다목적 미디어 복도 Multi-purpose Media Corridor> 개념이 된다. 다양한 물리적 장치와 연결을 구성하는 미디어 교류박스가 된다.

에필로그Epilogue - 합체 효과Combination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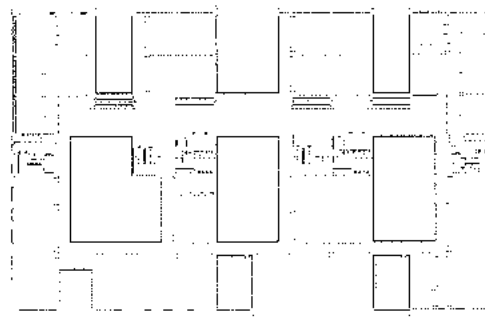
많은 인원이 조화된 팀을 구성할 때 그 구성원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증폭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또다른 의미는 팀의 완벽한 구성이 이끌어낸 이른바 <합체효과Combination Effect>에 있다.(글:장운규)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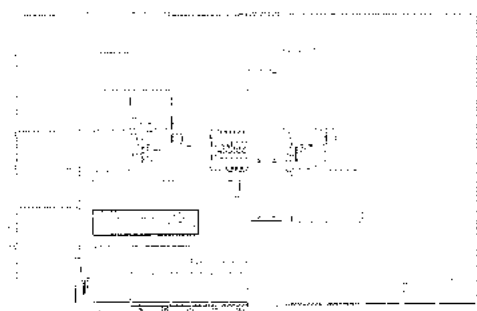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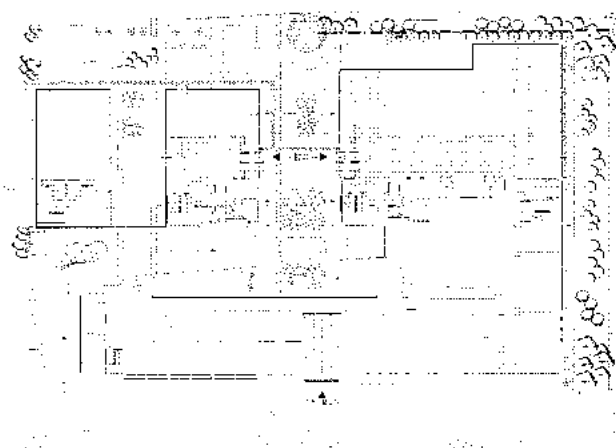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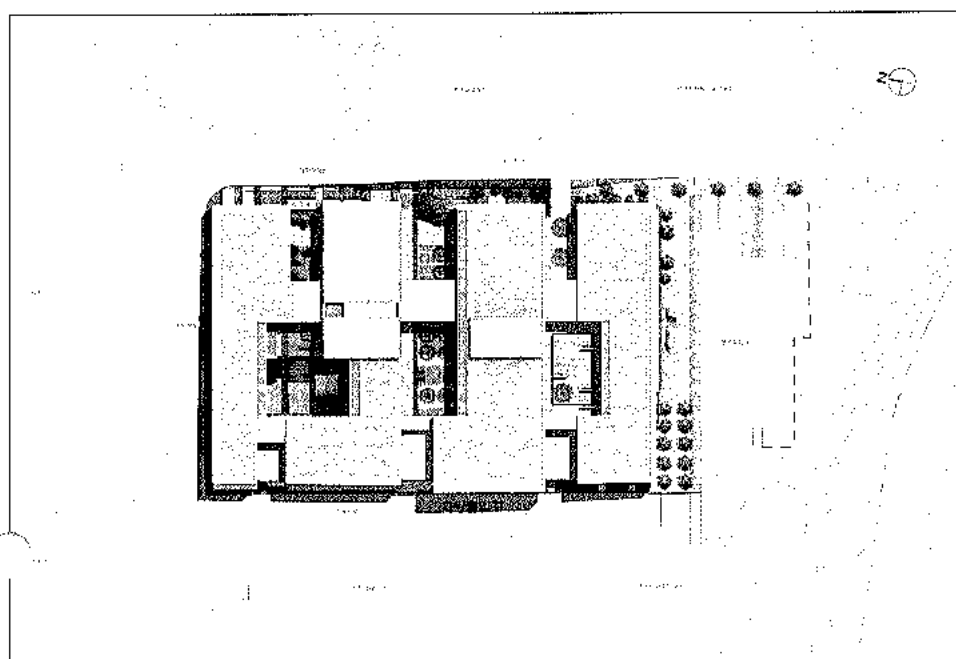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건 축 개 요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대지면적	6,230.00㎡
연 면 적	26,655.70㎡
규 모	지하3층 / 지상5층
주차대수	옥내 132대 / 옥외 13대 = 총 145대
구 조	철근철골 콘크리트조
최고높이	17.5 m
용 도	교육연구시설
녹지면적	930.39㎡
외장재료	티타늄 아연판, 목재, 노출콘크리트

고대 문명으로의 초대-피라미드

Invitation from ancient civilization - Pyramid

한광호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산

by Han Kwang-Ho

이집트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기자의 피라미드 군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한다.

그 거대한 석조물이 저녁녘에 붉게 타오를 때의 경이로움과 우주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일 것이다. 죽은 왕의 영원한 사후세계로의 여행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피라미드는 그 기능에 비하여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크다. 하지만 무려 5000년 전(6500년 전을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에 이를 건설한 이집트인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논하기엔 현대인은 너무나 이능 것이 부족하다.

몇 해전 테마 기행으로 이집트(Egypt)의 기자 피라미드와 아직은 생소한 멕시코(Mexico)의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피라미드 군을 다녀와서 평소에 늘 궁금해 했고,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의문점과 더불어 시공(時空)을 뛰어넘는 지구 반대편의 두 피라미드 군에 대하여 평소 느꼈던 동질성에 대한 단상(斷想)을 적어보았다.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Pyramid)는 고대 이집트왕(파라오)의 무덤(마스타바-피라미드-암굴로 발전)의 일종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일강을 따라 이집트 전역에 산재되어 있다. 그 중 최초의 피라미드라 불리우는 조세트왕(Zoser)의 피라미드와 고왕국 제4왕조 시대 건설된 3대 피라미드인 쿠프(Khufu), 카프레(Khafer), 멘카우레(Menkure)가 가장 유명하며, 이집트의 자존심으로 인류 문명의 자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집트인의 자존심 어귀중의 하나: 이집트 is the center of civilization) 쿠프(Khufu)왕 피라미드는 그 크기 및 규모로 보아 최대를 자랑하며 카프레(Khafer)왕의 피라미드는 상층부에 남아있는 화강암 표피의 흔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아직도 갖추고 있고, 카프레왕의 얼굴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스피נק스(Sphinx)는 건립시대가 틀리지만 이로 인하여 더욱 유명하다. 멘카우레(Menkure)왕의 피라미드에서는 국력의 쇠함인지 손자로서의 겸손함인지 상당히 소박해 보인다. 사카라(saqqara) 지역에 위치한 조세로(Zoser)왕의 피라미드는 역사상 최초의 예술가로 기록되어 있는 임호텝이 설계한 단순한 피라미드가 아니라 대규모 복합 건물군의 일부분으로 피라미드의 발달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자료로 손꼽힌다. 이는 기원전 5세기 경 그리스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집트 여행기에서 주장한 이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도 피라미드 건설후 2000여년이 지난 후의 일이니 그 의문점을 제기하는 역사가도 많다.

멕시코 테오티우아칸의 피라미드

흔히 마야문명이라고도 총칭할 수 있는 멕시코 문명에서의 피라미드 역시 멕시코 전역에 지구라트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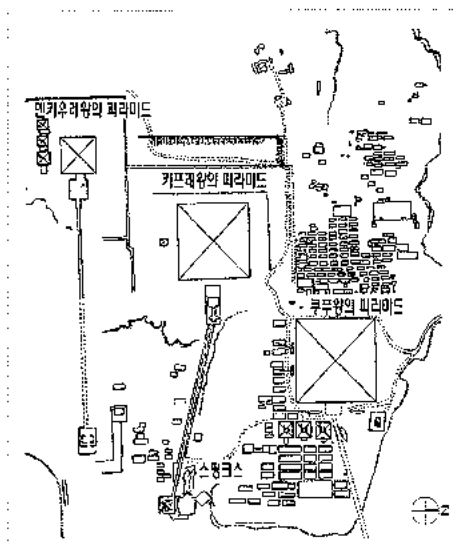
으로 산재되어 있으며 특히 유카탄 반도에는 수백개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피라미드군을 찾을 수 있다.

마야문명의 유적들이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는 옥소말(Uxmal)과 치첸이차(Chichen Itza), 팔렌케(Palenque)등에서는 신전으로 사용된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물 군이 있으며, 마야시대의 피라미드와 차원을 달리한 멕시코 고원의 유명한 피라미드군인 테오타우아칸의 태양과 달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기차 피라미드와 비견되는 거대한 규모로서 최근 들어 고고학자들의 연구뿐만 아니라 미주 최고의 고대문명의 유적지로서 관광객의 각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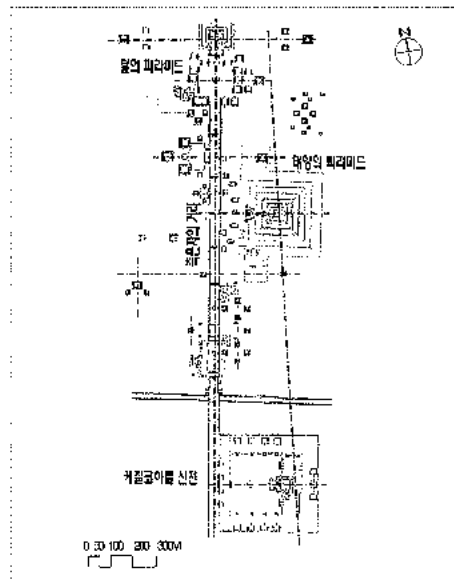
두 피라미드 군의 비교

일명 “사자(死者)의 거리”라 통칭하는 테오타우아칸은 계획화된 도시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신들의 만남 장소”로도 통칭될 정도로 각종 건축물들로 가득 차 있다. 멕시코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가 내·외부 모두 화강석 적층인 것에 비하여 대부분의 피라미드가 외부는 다양한 석재로 적층을 이룬 여러단의 계단식형태로 내부는 흙을 채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며 전체의 건축물 군도 이런 형태이다. 특히 외부에서 이집트 피라미드가 4각뿔의 커다란 반사경(각 면이 굴곡이 지지 않고 일직선을 이룸)으로 그 찬란함을 발하였다면 멕시코 피라미드는 외부를 회반죽으로 감싼 후 다양한 안료로 벽화를 그렸더니 당시 시대의 현란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멕시코에서의 피라미드가 거의 전부 신전의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팔렌케(Palenque)의 비명의 신전에서는 지하 26미터 아래서 무덤(파칼왕)의 형



'GIZA' 이 피라미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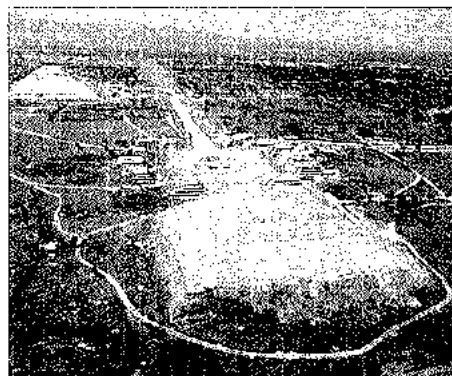


'Teotihuacan' 의 피라미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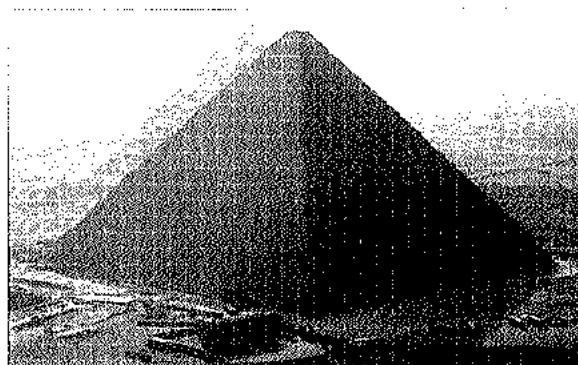
태로 나타나 이집트 피라미드와의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GIZA' 의 피라미드 전경



'Teotihuacan' 의 피라미드 전경



키프왕의 피라미드



태양의 피라미드

〈이집트와 멕시코 피라미드의 비교(제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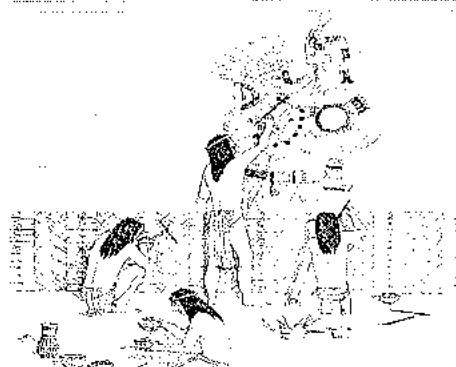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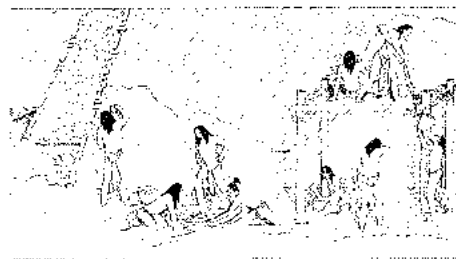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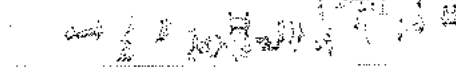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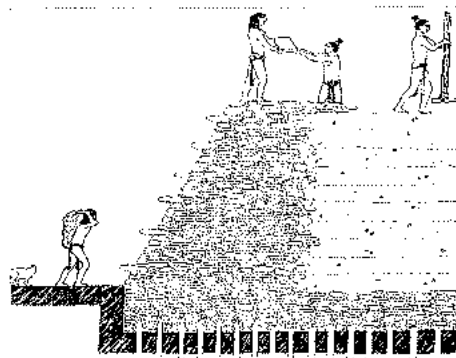
구 분	이집트(쿠푸왕의 피라미드)	멕시코(태양의 피라미드)	비 고
높 이	147m	75m(신전높이 포함)	
용 적	2,600,000m ³	1,000,000m ³	
무 게	6,000,000 Ton	2,500,000 Ton	
저 변	230 m	225 m	
연 대	B.C 2500년	B.C100~AD800년으로 추측	
재 질	화강암과 석회암	다양한 석재 및 흙	
용 도	무덤	신 전	팔렌케의 '비명의 신전' 제외

두 피라미드 군의 동질성

이집트의 대표적 피라미드군인 기자의 3대 피라미드와 멕시코의 테오티우아칸의 피라미드(태양의 피라미드, 달의 피라미드, 케찰코아틀 신전)는 공통적으로 각각 3기의 피라미드를 갖고 있다. 단순한 일치로 지나치면 그만이지만, 높이와 규모를 달리하여 건설된 3기의 피라미드가 인접하여 있고 그 꼭지점 높이가 같은 것은 분명 두 거대 피라미드 군에 대한 동질성을 갖기에 충분하다. 물론 부지내의 자연적인 구배에 따라 피라미드의 높이를 달리하여 하늘에서의 균형을 유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신 앞에 모든 피조물은 평등하다."는 고대사회의 신정일치사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여타 지역의 수많은 피라미드와 달리 이 두 곳의 피라미드가 세인들의 미스터리적 요소로 다가오는 것은 그 배치 컨셉으로 우주의 천체도를 응용한 별자리와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기자의 피라미드는 오리온자리, 테오티우아칸의 '죽은 자의 거리'는 은하계 그리고 피라미드의 배치는 태양계의 각 행성을 상징하는 배치로 되어 있어 신비적 요소로서의 동질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고대문명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절대권력자의 신격화에 따른 인간신에 대한 우상화의 일단으로 사후 신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장소로 피라미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기자의 피라미드가 '인간을 신으로' 그리고 테오티우아칸의 피라미드가 '인간이 신이 되는 장소'로서 신성시 되었음은 지구를 반바퀴 돌린 대륙에서 수 천의 시간적 흐름의 차이에



멕시코 피라미드 건설과정

반추해 보면, 그 동질성이 인간과 우주의 시간적 개념을 떠나 경이로움을 갖기에 충분하다.

현대 건축에의 응용

현대인의 고대문명에 대한 동경과 불가사의한 세계에 대한 상상은 곧잘 현대건축에 접목되어 마치 새롭게 재 탄생한 고대 유적의 일면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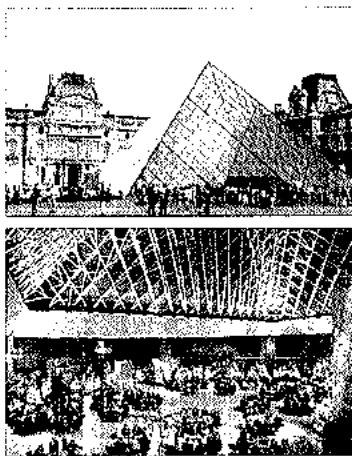
특히 이집트의 피라미드 입면을 응용한 미국의 대 식물원을 비롯한 크고 작은 수많은 유형들은 호기심을 넘어 우주의 기를 담는 그릇으로서 건축적으로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루브르 박물관을 설계한 I.M. Pei의 "유년시절 기자의 피라미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말은 그가 피라미드를 응용하여 신(新) 루브르 박물관을 설계한 것이 결코 천재적인 영감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지하의 역사와 땅위로 솟아 오른 루브르의 피라미드를 보고 오랫동안 그 모습을 간직할 것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위대한 지구인의 유산이지만 이를 현대인이 가까이서 누리고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은 건축가의 몫이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나폴레옹 홀

1984년 국제현상을 통해 I.M. Pei의 루브르



르 증축 및 개조안을 채택, 1989년에 공사를 마치고 21세기를 향한 박물관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냈다.

높이 21m 저변 35m로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를 기존 정원에 건축적 기능으로 수용함으로써 독창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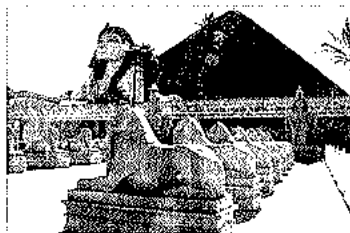
해결을 제시하였으며 일명 "나폴레옹 홀"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유리 피라미드는 와싱턴 국립미술관의 기존건물과 동관의 연결통로에서 소극적으로 채택된 바 있었다.

새로운 건설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어휘로서 가장 명료한 건축적 기호가 되는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의 새로운 시도로 인해 고전적 조형을 배경으로 강렬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결합시킨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

자연광에 의한 지하공간의 결점이 해결되고 루브르궁을 이곳에서 바라볼 때 지하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또한 건축과 도시를 연결하는 방법의 실천이며, 그 직설적인 의식에 의해 현대건축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의 제시이기도 한다.

●미국 룩소호텔(Luxor Hotel)

Las Vegas 거리를 오가다 보면 이것저것 볼거리가 많다. 로마시대의 인물상이 거리 귀퉁이에서 화려함을 뽐내며, 로마의 기틀을 다진 카이사르도 거기서 만날 수 있고, 한겨울에도 실감나는 아와 오페라 구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로마시대의 조각



물도, 100만불을 한눈에 보는것도, 세계 최대라는 금광석을 보는것도 아닌 Luxor Hotel의 외관일 것이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테마로 한 그 독특한 외관(상층부의 4,470여개의 객실, 스트립 거리, 룩소의 멋진 수영장) 등 독특한

전망을 갖고 있다.

30층 높이의 반짝이는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피라미드와 정문 입구에 있는 10층 높이의 거대한 스핑크스는 멋진 볼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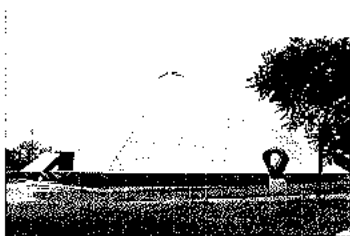
디자인 형태가 카프레왕의 피라미드를 연상케 한다.)과 스핑크스, Luxor 신전의 진입부 등은 이집트를 상징하는 다양한 조형물로 불야성을 이루는 Las Vegas 최대 명소중의 하나일 것이다.

건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 넓은 홀의 카지노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5000년 전의 신비감이 느껴지는 30층의 호텔을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다.

10여 층 높이의 스핑크스, 4,500여 객실, 그네들 다운 스케일은 피라미드를 테마로 한 세계 최대의 건물답다.

●춘천 물시계 전시관

2001년 "세계 물의해"를 맞이하여 춘천 공



지천 조각공원 내에 물시계 전시를 위해 마련된 전시관. 피라미드의 외형을 컬러 반사유리와 철골 프레임으로 구성하였다.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투자가 부족하여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임에도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춘천 공지천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만한 건물이다. ㉞

건축관련 광고문구

Advertisement Phrases related to Architecture

최종철 / 여주대학 건축과 교수

by Choi Jong-Chul

‘아파트에도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설계가 이루어진...’ ‘초록빛 테마 파크의 탁 트인 전망’ 등등. 요즘 신문에 간혹 소개되는 건축관련 광고의 카피들이다. 유명 일간지의 전면을 장식하고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첨부했기 때문에 가히 엄청난 것으로 판단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선전되고 있는 건축관련 광고에 ‘공간’이나 ‘전망’과 같은 그야말로 건축과 관련된 전문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만해도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포함되던 것들이 아젠 꽤 종종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수준이 예전과는 달리 전문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건축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수준을 다른 분야에 대한 인식수준과 비교해보면 그것이 아직도 초보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관련 광고가 실려있는 신문의 다른 면에 실려있는 전자관련 광고를 보면 놀랄 정도이다. 컴퓨터와 같은 경우 ‘Intel Pentium 4, 2.4GHZ, 256DDR’ 등 각종 시스템의 성능이 정확히 명기되어 선전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이 되어 오히려 그것들을 전문적이라고 말하면 그야말로 고인들이라는 소리듣기 십상이다. TV를 통해 소개되는 휴대폰 선전은 한 술 더 뜬다. 휴대폰의 대단히 세밀한 성능들이 재미있게 소개된다. 헤드폰을 끼고 듣는 음악보다 ‘64화음’의 휴대폰 소리가 더 감동적이며,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는 놓치기 싫은 상대를 쫓아가며 ‘연속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진보하였다. 세탁기 광고를 보면 ‘전자 이온수’에 의해 세탁이 이루어져 빨기 힘든 얼룩도 쉽게 없앨 수 있다고 한다.

전자관련 제품의 광고들은 그 제품의 첨단적인 성능이나 시스템을 직접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알린다. 그에 비해 건축관련 광고들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건축적 성능과 관련된 내용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막연하고 부차적이다. 아직도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고 크게 선전되는 것은 건축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내용들이다. ‘투자의 3 요소인 입지, 수익, 안정성을 모두 갖춘...’ ‘○○○건설회사 책임시공, ○○생명 파이낸싱의’ 계획 신도시,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과 같은 광고 카피들이 전면에 등장한다. 여전히 건축관련 광고에서 중요한 것은 비 건축적인 내용들이며 이 속에서 건축은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

물론 건축관련 광고가 전자관련 광고와 같은 다른 분야의 제품과 비교된다는 것이 말이 안될 수도 있다. 규모와 더불어 지금 면에서 비교가 될 수 없으며,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건축적인 내용보다는 건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적 가치변화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건축적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축적인 내용들이 아예 무시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건축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논지를 불러일으킨다.

건축 디자인을 하겠다고 지향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건축의 입지나 시공브랜드와 관련된 것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무시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공간이나 형태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고 그것에 심취하고 즐겨워한다. 또 그런 공간이나 형태구성을 계속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밤을 지낸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구상하는 건축이 어떤 모습이며, 어떤 감동을 주는 공간 인지가 중요하지 건축의 위치나 규모, 시공회사의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건축의 입지 같은 것들은 건축과는 별개의 것들이라 배울 필요도 없고 관심을 둘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전선에 뛰어들면 무시했던 그런 것들에 의해 건축의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고는 대단히 실망한다.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사회에 진출해서야 그런 것들이 갖는 현실적인 무게를 느끼고 갈등하는 것이다. 건축사들은 건축적인 내용 보다는 건축을 이용한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건축사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을 무시한 채 환상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닐까. 현실적인 내용을 무시하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환상에 빠져 자만해오다가 결국에는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많은 수의 건축사들이 현실적인 괴리에 갈등하다가 학창시절의 열정이 사라져 가는 느낌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면 그런 우려가 무리는 아닌 듯 싶다. 만일 그렇다면 건축사들은 교육도 잘 못 받아왔고 스스로의 환상도 잘 못 키워왔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지식과 열정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화과정을 무시했거나 스스로의 열정이 먹혀들 만한 현실을 조성하길 게을리 했던 것임이 틀림없다.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용량을 늘리고 속도를 빨리 하려 애쓴다. 물론 컴퓨터도 브랜드 이미지라는 큰 변수가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컴퓨터를 성능을 기준으로 가치를 가늠한다. 이것은 컴퓨터에 문외한이었던 사람들에게 컴퓨터 성능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능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널리 알린 덕택에 가능해진 것이다.

그에 비해 건축사는 자신의 고유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 그들이 그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훌륭한 공간, 편리한 기능, 시대적 감각에 맞는 형태와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예술적이며 주관적인 것들이어서 외부로 알리지 못했는지 모른다. 아님 그것들을 알리기에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고, 교육과 광고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혼자만의 환상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인생의 좌절을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남아 있기에 그것들은 너무 중요한 것들이다.

64화음, 65,000컬러의 휴대폰이 선전되듯이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감동적인 공간이 연출되는 건축이 선전되어야 한다. 앙드레 김의 의상이기 때문에 비싼 것처럼 건축사 개개인의 고유한 디자인에 의해 가치가 매겨져야 한다. 그것은 유명세에 의해 디자인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한 때 미국에서 리처드 마이어의 디자인이 좋아 수많은 건축주들이 물렸다는 것은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미국의 건축주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문화의 발달은 건축사들의 일이지만 반드시 그들만의 일은 아니다. 오히려 건축주를 비롯한 사회적 동조와 지원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아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풍토에서 건축문화의 발달은 거의 전적으로 건축주에게 달려있다. 그렇다면 건축사들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건축주들의 동조를 구하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걸 위해 현재 조직된 전국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불특정 다수의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동조를 얻고 수준을 높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건축사들 모두가 합심해서 힘을 모은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미술이나 음악, 조각 등의 예술은 밥을 굶어도 할 수 있지만, 건축은 밥을 굶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의 존재를 부정하고 건축은 이루어질 수 없다. 건축이 다른 예술과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 중 건축사를 움직이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르네상스의 위대한 건축 뒤에 메디치가라는 가문이 있었다는 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플로렌스 성당의 돔은 후원자들의 탁월한 예술적 안목이 없어서는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건축사들의 탁월한 건축적 소양을 실현시킬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사들이 배우고 매력을 느끼는 것들은 자신의 취미나 지적 유희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면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우연한 기회에 의해 문화적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배고픈 지적 자료를 집적시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공간 클럽 - 02

Space and Rooms

이재훈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Lee Jae-Hoon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쩌보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 할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사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잊혀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공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

목 차

1회

- a. 공간은 하나인가요?
- b. 공간의 증거
- c. 공간은 없다

2회

- a. architectonic space
- b. 노자의 공간개념
- c. 5차원공간

3회

- a. 누구의 공간인가?
- b. 얼어붙은 공간
- c. 서랍속의 공간

4회

- a.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 b. 공간개념지도
- c.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5회

- a. 중성의 공간
- b. 공간의 성격-공적공간
- c. 공간의 성격-장소성

6회

- a. 공간의 밀도
- b. 공간의 위계
- c. 공간의 전이

7회

- a. 공간의 창조
- b. 기억나는 공간
- c. 쉬운 공간만들기
- d. 공간실험

8회

- a. served space & servant space
- b. 공간의 종류
- c. 공간의 극

9회

- a. 공간의 경계
- b. 공간의 관계
- c. 공간의 모듈
- d. 공간의 비례

10회

- a. cyber space
- b. space syntax
- c. spatial behavior

11회

- a. 공간속의 기동
- b. 씨나리오 있는 공간
- c. 창으로 본 공간

12회

- a. 공간계획
- b. 공간디자인
- c. 공간문법

Architectonic Space

Architectonic 의 어원적 의미를 갖는 tectonic 은 직설적으로는 '목수'의 라는 뜻이지만, 목수가 하는 행위인 구조의 뜻을 함유함으로써 '구조'의 라는 은유적 의미를 갖는다. architectonic 은 사전적인 일반적 의미로, 건축을 빗대어 고도의 구조적 기술을 갖는 분야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매우 '정교하며,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의미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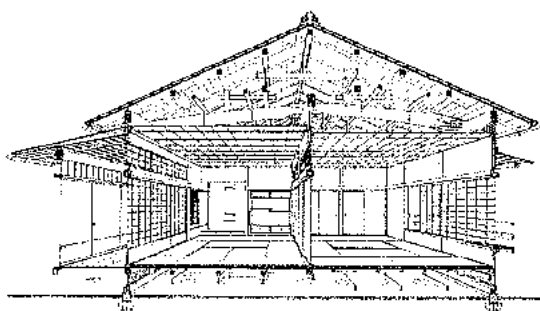


그림 1 tectonic한 사례로 보여주는 일본 목조주택의 예

정교한 구조적 기술이라는 일반적 의미를 갖는 architectonic 은 거꾸로 건축에 대해 정교하게 축조적이며, 구성적, 기술적인 의미를 부각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된다. 그것은 건축의 일반적 구법과 관련하여 정교성과 기술성, 구조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언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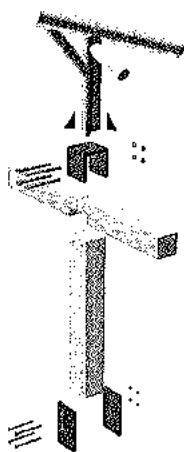


그림 2 칠갑산 관공농원의 tectonic한 요소 결합의 예

architectonic의 이러한 의미로부터 architectonic space는 건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적인 공간이나 현실적 공간과 구별되는, 정교하게 구성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지칭하기 위해 언급될 수 있다. 그것은 건축공간이 느껴지고 임해지는 공간으로 뿐만이 아니라 구성적으로 조직적으로 분해되고 조립되는 의미의 공간을 언급한다. 구조부위에서는 개별요소와 접합의 디테일이 발생되듯이 건축공간에 있어서 공간구성 요소와 요소의 결합방식에서 정교성을 갖고 조직적으로 결합됨으로서 architectonic space의 의미를 갖게된다.

architectonic space를 언급한다는 것은 건축가들이 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의미에 구성, 기술의 영역을 포함시킨다는 것을 뜻하며, 공간의 구성에 대한 독립적 이론의 성립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Architectonic 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Frampton 은 scenographic의 개념을 도출하였는데, scenographic 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배경화법적'이란 뜻으로, architectonic 이 건물의 구성적 의미를 강조한다면 scenographic 은 건물의 주변과 어울림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도시속의 건물을 설계할 때, 건물의 구조나 재료 맞춤, 실구획의 관련성 등, 건물의 구성적 측면에 치중하여 볼 수도 있지만, 건물의 스카이라인이나 주변건물과의 조화, 외부동선의 연속성, 보도와의 관계, 대지가 갖는 의미의 표현 등, 배경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설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건물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구성적 의미가 보다 중요하겠지만, 건물을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외부인들에게는 배경화법적인 의미가 보다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Architectonic 또는 tectonic 의 일반적 정의를 통해 그것이 기술적이며, 구조적인 뜻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이들 언어에 의한 건축물의 설명이 건축물의 구조나 요소결합의 시스템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이 건축물의 구조적 측면이나, 건축공간의 구성적 측면의 의미를 부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tectonic 이나 architectonic이 정교한 구조나 시스템만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tectonic

에 대한 깊이 있는 의미해석을 보여주는 Eduard Sekler는 1973년, "Structure, Construction & Tectonic"이라는 에세이에서 Tectonic을 최종 모습이 구조나 시공의 용어로는 설명될 수 없는, 구법적 형태가 정적인 저항으로 생겨난 형태표현으로서 정의내리고 있다. 마치 미스 반 데 로에의 코너 디테일을 보듯 구조나 시공의 다양한 조합을 통한 미묘한 변화의 모습이 텍토닉에 어울리는 것으로 본다. 그는 tectonic 이 아닌 것의 뜻으로서 건축에서 하중과 지지의 표현적 작용이 시지각적으로 무시되거나 애매해진 방식을 예시한다. Sekler의 이와같은 사고를 바탕으로 Frampton은 한 단계 더 나아가 tectonic 이 정적인 저항 이상의 어떤 고도의 형태적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tectonic 에 구조적 의미 이상의 미학적 가치를 부여한다. 즉물적으로는 '구조'라는 뜻과 연관되는 tectonic 과, 건축물의 정교한 구조적 측면으로서 architectonic 은 단순히 그러한 의미로서 인용된다고 보다는 건축물의 구조적 정교성을 통한 건축의 미학적 가치에 연관되어 언급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architectonic space 는 미학적 가치의 구성적 정교함을 갖는 건축공간을 언급하기 위해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노자의 공간개념

Space Conception of Laozu's

건축공간에 대한 개념이 서양이론으로부터 태동되었지만, 동양의 관점에서도 건축공간에 대한 관념을 찾아볼 수

있다. 노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서 80여개의 시구로 이루어진 도덕경을 논하였는데, 이 중 몇 구절로부터 건축공간에 대한 시사를 받을 수 있다. 노자의 도덕경이 건축공간을 대상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전달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공간에 대한 개념 내지는 건축행위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서양이론으로만 정립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인의 생활과 가치관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온 노자의 공간개념을 굳이 들추어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三十幅 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 埏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鑿戶牖 以爲室 當其無 有室之用 — (道德經 11章)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집중하여 있다. 그러나 그 바퀴통속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바퀴는 회전할 수 있어서 차로서의 쓸모가 있는 것이다. 진흙을 이겨서 질그릇을 만든다. 그러나 그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빈 부분이 있어서 그릇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지게문과 창문을 뚫어서 방을 만든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 있기 때문에 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은 두가지 뜻을 암시해준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문장내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비워진 부분 허(虛, VOID)의 중요성이다. 서른개의 바퀴살은 비워진 바퀴통이 있음으로서 그 작용을 할 수 있다. 질그릇은 그 내부가 비워져 있음으로서 무엇을 담을 수 있으므로 유용성을 갖는다. 방은 비워진 내부에 의해 유용한 공간의 역할을 한다. 노자가 지적하고자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물의 겉

모양이 아니라 그 모양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중요성이다. 비워져 있음으로서 채울 수 있다는 기능적인 뜻과 함께, 사물을 만들지만 사물의 의도는 비워진 부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목적의 중요성을 언급해준다.

둘째는 사물을 만드는 원리에 대한 이해이다. 차바퀴를 만드는데, 바퀴살이 바퀴통에 끼워짐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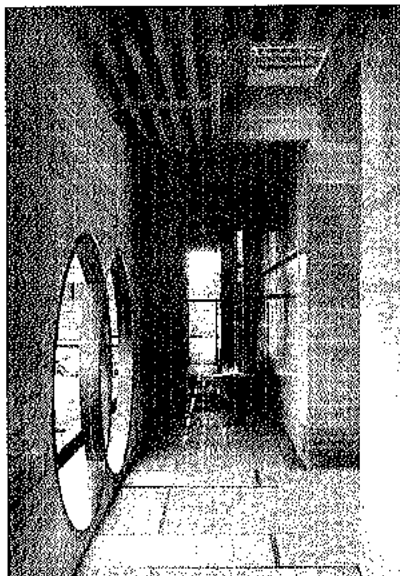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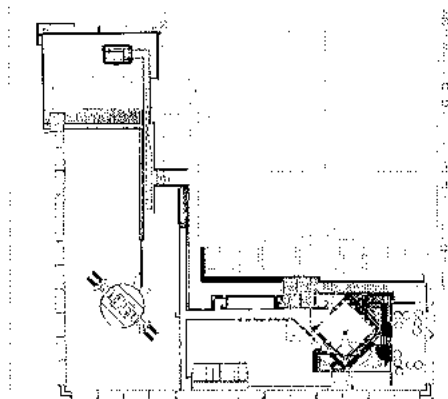


그림 3 정교한 공간결합을 보여주는 Carlo Scarpa 의 Brion Cemet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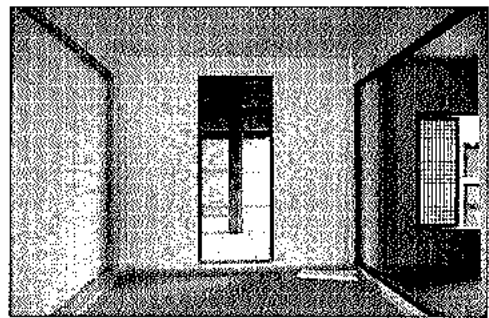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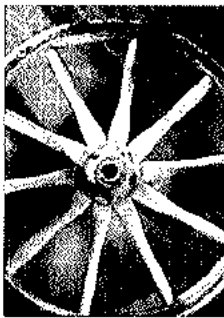


그림 4 비워진 부분 비워진 / 그곳 / 방 내부

다는 것이며, 비워진 방은 창과 문을 뚫음으로서 환기와 채광이 가능해지며 유용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해준다. 공간을 그저 비워놓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비워 놓는 방법의 중요성을 함께 언급하는 셈이다. 건축공간으로 비유하자면 건축공간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공간구성의 원리가 있으며, 그 원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집으로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비워진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노자의 비워짐, 허(虛, VOID)가 단순히 비워짐에 대한 미학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VOID는 인간에게 유용성을 주는 목적을 갖는 대상이며, 그것을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원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계기가 됨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視之不見 命曰夷 聽之不聞 名曰希 搏之不得 名曰微 此三者 不可致詰 故混而為一 (道德經 14 章)

그것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夷)라고 한다. 그것은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희(希)라고 한다. 그것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미(微)라고 한다. 이 세 가지는 말로 구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道)라고 한다.

염수원은 건축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가 없는 도덕경의 이 구절을 통해 건축공간의 적당함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한다.(건축과 철학관 66쪽) 그는 교실을 예로 들면서, 어떤 사람이 수업을 하기 위해 교실로 걸어 들어가자마자 곧 광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면, 당연히 광선은 적절치 않은 것이며, 만약 그가 들어가자마자 교실의 광선이 매우 양호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면, 그것도 역시 좋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광선의 문제를 느꼈기 때문이며, 지나치게 밝았던 것은 이미 자극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적절한 광선은 교실로 들어가서부터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근본적으로 광선의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곧 사물이 가장 적당한 곳에 이르는 것이며,

진정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적합한 광선임을 말해준다.

이것은 모든 공간이 무감각한 공간이 되어야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종교적인 건물은 종교적인 의미를 위해 감정의 고양ی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인위적으로 신앙심을 강요하



그림 5 유치원-Henri Girs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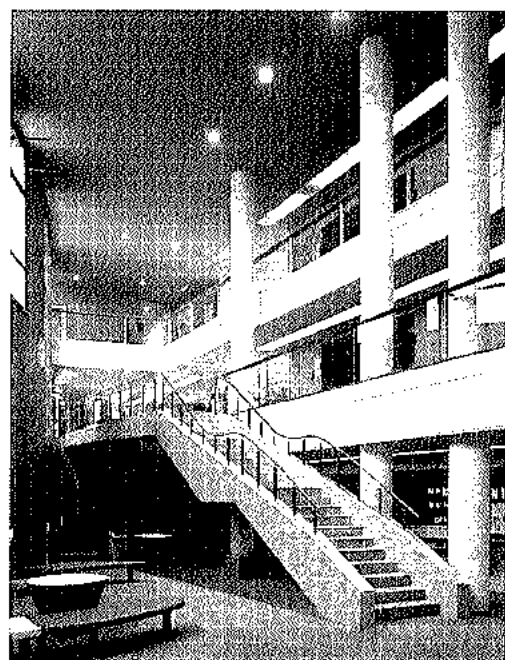


그림 6 Cité de la Musique Christian de Portzamparc

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신앙심이 우려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적당한 공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각하지 못한 채, 의식하지도 못한 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사진에 보여 지는 두 곳은 시각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주거나 크게 의식되지 않으면서 매우 편안하게 경험될 수 있는 건축공간이다. 그와 같은 것이 노자의 도덕경에 따른 보지 않고, 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와 닿는 진리임을 시사한다.

노자의 공간개념은 공간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삶에 대한 지혜를 언급해준다고 생각된다. 서양의 이론과 기술에 대한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삶이나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우월성을 판단하기는 힘들것이다. 공간의 가치는 다들지라도 삶에 와 닿는 건축공간은 동서양 어느곳이거나, 도시나 변두리거나, 큰 건물이거나 적은 건물이거나, 그 어느곳에나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5차원 공간

The 5th Dimension of space

3차원 공간은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물리적인 척도의 공간이다. 공간의 폭, 길이, 높이가 3차원을 이루며 공간을 만든다. 그러나 이곳에는 인간이 없다. 추상적인 대상으로서의 공간만 있을 뿐, 인간의 개입을 설명하는 내용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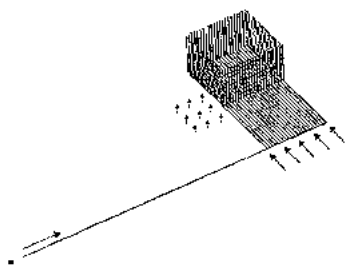


그림 7 x,y,z축의 3차원공간-Paul Klee

인간은 생활을 하며 기본적인 삶을 영위한다. 3차원의 공간에서는 일방적으로 삶이 수용된다. 물리적 척도에 끼워진다. 그러나 그러다보니 생활이 끼어들어가지 않는 공간이 생겨난다. 넓은 운동장에서 축구만이 발생되기도 하고, 큰 거실에서는 2인 가족만이 썰렁하게 T.V.를 보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넓은 거실은 출가한 자녀들이 오는 주말이면 손

자들이 뛰어 놀기에 좋은 널찍한 공간이 되고, 넓은 운동장은 주말 축구팀의 훌륭한 축구장이 된다. 즉, 공간은 3차원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항상 인간의 생활과 연관하여 논의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생활은 일정한 공간속에서 어떤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한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시간속에서 사건으로서 발생된다. 작게는 책을 읽거나 밥을 먹는 사건에서부터, 국가경제가 위기에 몰리거나 전쟁을 겪는 사건에 이르기 까지 인간의 삶에는 어떤 시간대에 일정한 장소



그림 8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4차원공간-낙수장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다.

4차원 공간은 시간이 개입된 공간을 말한다. 추상적인 3차원 공간이 사건에 의해 변화되어지는 공간이다. 즉, 인간의 삶이 연관되어진 3차원 공간을 말한다. 인간은 아직 시간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공간의 조작은 가능하다. 인간의 삶을 수용하는 공간을 조작함으로써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 행위,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다. 건축가는 이 목표에 진력함으로써 기본적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차원 공간에는 사람의 냄새가 스며들어 있지는 않다. 사람은 생활을 하며 살기는 하지만 생활이 인간의 삶을 대신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의 삶에는 삶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건축공간을 볼 때, 건축공간이 어떠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축

공간이라고 일컬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엽수원은 건축과 철학관이라는 책에서 5차원 공간에 대해 주장한다. "사람이 사물에 대해 그림을 그리지만 그린 그림은 다 다르게 보여 진다. 그것은 똑 같은 사물이더라도 사람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진을 본다. 똑같은 사진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사진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기는 마음속 이미지를 말한다. 같은 생활공간 속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름다운 달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우수에 젖어 쓸쓸함과 애뜻함에 슬픔을 갖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생활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삶의 맛이라고 정의내리고 싶으며, 그것이 엽수원의 5차원 공간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생각된다.

5차원 공간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정돈된 이론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5차원 공간의 존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공간에 대한 상·心像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그에 적합한 건축공간의 구성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차원에 대한 설명은 사실 매우 불확실하다. 혹자는 인간 세상의 많은 의혹들이 풀리기 위해서는 12개의 차원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를 중



그림 9 서로 다른 화가들이 그린 정물은 대상물 보는 인간의 마음속 모습-5차원의 형상-을 시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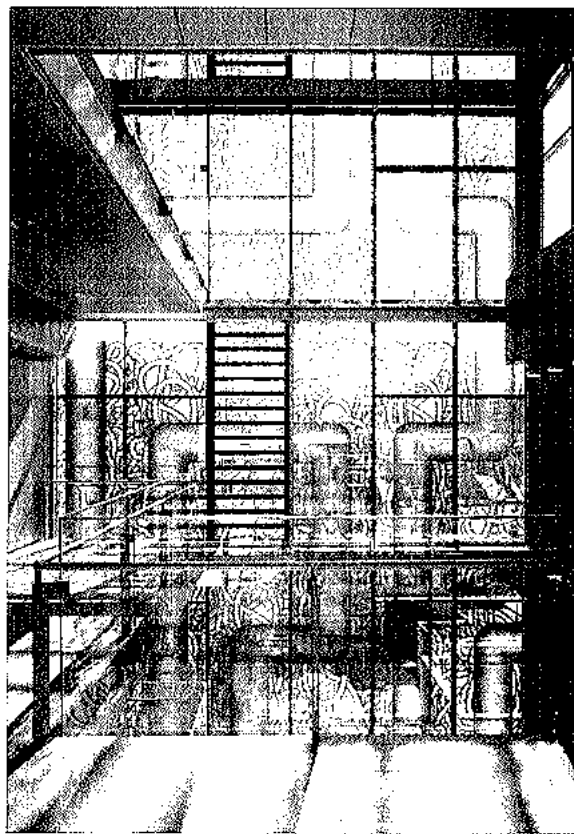


그림 10 우리 창에 투영되는 상의 다른 모습을 연상시키는 창-5차원 공간의 가능성

방하거나 믿기에는 너무 요원한 이야기로 돌린다. 그러나 상위 차원은 현재 믿고 있는 페러다임의 수정을 말한다. 아인슈타인의 시간이 개입된 4차원은 뉴턴의 물리법칙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효한 이론이다. 즉,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이는 현상에 대한 차원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많은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보이지 않는 현상이나 좀더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현상속에 귀중한 달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어떤 건축공간이 좋은 건축공간인가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차원이 있겠지만, 좀더 상위의 차원에서 좋은 건축공간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면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보다 풍요로운 건축공간 설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건축계소식 / 75

해외잡지동향 / 81

현상설계 / 88

건축계소식 archi-net

2003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준공건축물부문 9월 2일까지
계획건축물부문 10월 7일 작품접수

우리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2003한국건축문화대상이 우리협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공모부문은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에 나뉘며, 준공건축물부문은 9월 1일부터 2일까지, 계획건축물부문은 10월 7일 작품접수를 한다. 준공건축물부문은 2001년 8월 이후 국내에 준공된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등)과 비주거용건축물(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로 구분하여 공모작품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로서 제출 인허가관련서류(건축물 대장, 건축허가서 등)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이면 응모할 수 있다. 계획건축물부문은 '도시의 틀'이라는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작품을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대학(교)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일반국민 모두 응모할 수 있다.

문의: 우리협회 홍보편찬팀
(02-581-5711~4)
www.kira.or.kr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건교부, 지난 6월말 시행령·규칙 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규칙이 지난 6월 30일·31일 각각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는 그간 서울시와 이견이 있었던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 연수 기준을 20년 이상으로 확정하는 등 세부 내용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시작했다. 건교부가 이번에 공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지정기준(300세대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중 세대수기준은 새로 건축하는 세대수 또는 기존 세대수 중 어느 하나라도 300세대 이상이면 구역지정 대상임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이거나 새로 건축하는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나, 세대수 산정에 있어서 인접필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
- 법에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시기조정권한을 명문화하였으나, 시기조정의 대상이 분명치 않았음 - 시기조정의 대상을 안전진단 실시 시기 및 사업시행인가 시기로 규정
- 안전진단평가분야중 경제성 평가를 비용 분석으로 수정
 - 구조상·사용상 문제가 없더라도 경제성평가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분을 부풀리는 경우 안전진단결과가 재건축실시로 결정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 보수·보강비와 철거·신축비만 비교하는 비용분석만 실시하도록 한 것임(B/C 분석이 아닌 C/C만 분석)
- 법 시행일 이전에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나,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 및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경과규정

이 없었는바,

-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공람 절차를 거친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

○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상가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었으나, - 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전체 조합원 8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부완화

- 변호사·회계사 등을 고용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한 것으로 인정

문의 : 건교부 주택도시국 주거환경과
(02-504-9136)
www.moct.go.kr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발표

110명 합격

건설교통부는 688명이 응시한 올 해 건축사예비시험에서 110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지난 6월 23일 밝혔다. 이번 시험의 최고득점자는 400점 만점에 315점을 얻은 신수경 씨가 차지했고, 여성 합격자는 1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13%를 차지했다. 합격자 명단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나 건

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볼 수 있다. 건축사자격시험은 오는 9월 21일(일) 실시할 예정이다. (113쪽 참조)

「해인사신행 도량」설계안 확정

조성룡+사단교수(미) 공동설계안



당선작 배치도

해인사는 지난 6월 17일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사사무소)+프랜시스코 사단(미국 시라큐스대 교수)의 공동설계작을 「해인사 신행 문화도량」의 기본 설계안으로 선정했다. 신행 문화도량은 해인사와 신부락 중간에 있는 구 해인초등학교와 해인사 성보박물관, 상가건물 일대를 포함한 2,000여평의 부지에 세워진다. 1,0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범보공간(예불공간), 일반인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체험 공간, 학술회의, 강연, 교육,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거주 공간, 편의시설 공간 등이 들어선다. 출품작 심사를 맡은 김종성(서울건축 대표) 씨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관스님 등 7명의 심사위원은 선정작에 대해 전통적 사찰 건축구조와 기법을 충실히 계승

하면서 21세기 현대적 사찰의 창조성을 가미했고, 법당을 동쪽으로 향하게 해 기존 해인사 및 암자들과 건축적 연계를 추구한 점과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설계안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해인사는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허가를 받은 뒤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05년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이다.

제8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작품공모

사용승인건축물부문 8월 20일까지
계획건축물부문 10월 10일까지

경기도에서 문화적 가치와 도내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사상함으로써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하고자 제8회 경기도건축문화상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 공모부문 및 대상

- 사용승인건축물부문 (2001. 1. 1.~2002. 12. 31. 사이 사용승인된 경기도 소재 건축물)

• 주거부문(공동주택포함) : 경기도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의 추천작품, 시장·군수의 추천작품(건축문화상 제도 운영 시·군에 한한다.), 설계자·시공자·건축주의 개별 접수된 작품

• 비주거부문 : 주거부문과 동일

- 계획작품부문(미발표 창작작품)

• 도내 소재 대학(대학원·전문대 포함) 건축전공 학생의 학교장 추천작품

• 도내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축사보의 관계건축사 추천작품

※ 부문별 공히 본 행사 이외의 시·도 단위 이상 기관 공모전에서 입선된 작품은 제외

▷ 응모방법

- 사용승인건축물부문

- 1차접수 : 작품설명서가 포함된 B4 규격의 사진첩(8"×10"사진 5매 이내 및 기본 배치도, 평면도 수록) 1부와 출품작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의 간이소개서, 건축물대장 1부,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2차접수 :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패널(90cm×90cm)을 제출하여야 하며(필요시 모형 포함), 제출시기는 추후 해당작품에 한해 별도 통보

- 계획작품부문

- 패널 1매(90cm×180cm) 또는 2매(90cm×90cm) 및 모형 1점(100cm×100cm이내)
- 작품설명서(A4용지 2~3매 분량) 및 추천서 1부 제출
- ※ 작품을 공동으로 제출시 작가명 의는 3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작품접수

- 사용승인건축물부문

- 접수기간(1차) : 2003. 8. 1.~8. 20.(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2차접수는 1차접수된 작품중 입선된 작품에 한하여 별도 통보

- 계획건축물부문

- 접수기간 : 2003. 9. 20.~10. 10.(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관 5층(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56-1)

※ 작품응모 신청서는 경기넷(<http://www.kg21.net>) 또는 접수당일 현장에서 제공

▷ 문의 : 우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전화 031-247-6129)

제1회 ACSI학생건축공모전

9월 30일 접수마감

우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인천 건축도시주간의 일환으로 제1회 인천 학생건축공모전(ACSI: Architectural Competition for Students in Incheon)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유생어무(有生於無); 있음은 없음에서 생긴다」이며, 단서로 Non Being, Ground Zero, Artificial Horizon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주어진 대지는 인천송도매립지 내이며, 전국의 건축/인테리어 관련학과 대학생으로 개인 또는 3인 이내 공동 출품도 가능하다. 접수마감은 9월 29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이며, 우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10월 18일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의 코디네이터는 공주대학교 이호정교수가 맡고 있고, 심사는 김준성(한국예술종합학교), 서해림(건축스튜디오 힘마), 이호정(공주대학교) 씨가 맡는다.

문의: 인천광역시건축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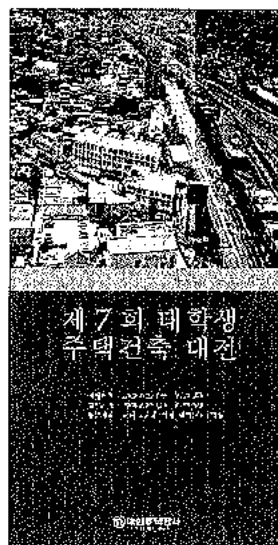
(032-437-3381)

홈페이지 acsi.co.kr



대한주택공사, 제7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도심형 집합주택과 복합용도 재개발' 주제로



대한주택공사는 대학생들의 현실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대학생 설계공모전을 올해부터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으로 명칭을 바꾸어 진행한다. 이번 제7회 공모전의 주제는 '도심형 집합주택과 복합용도 재개발'이며, 미래 도시생활에 적합한 기능과 공간, 특히 도심형 집합주택을 수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심 재개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의: 031-738-3114

itis.jugong.co.kr

- 주제: 도심형 집합주택과 복합용도 재개발(서울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4~8지구일원)
- 참가자격: 국내 2년제이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전공불문, 한팀 3인이내)
- 신청접수: 2003. 6. 20.(금)~7. 10.(목)
- 작품접수: 2003. 8. 20.(수)~8. 22.(금)
- 당선작발표: 2003. 8. 30.(토)예정
- 작품전시: 2003. 9. 5.~9. 16.(주공 본관 2층 홀)

2003. 9. 19.~9. 21.(서울시내 공공
장소 중 선정)

제3회 DBEW 국제디자인 공모전 2003

9월 17일 마감

(아키반건축), 장시리(중국), 세지마 카
즈요(일본)씨가 맡는다.

문의: 02-590-3472

www.hanssemcompe.com

www.designcompe.com 참조

시카고 하드웨어 SHOW 2003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세계3대 하드웨어 박람회중의 하나인
"시카고 하드웨어 박람회"가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12일(3일간)까지 미국
시카고(McComick place, Chicago,
IL, USA)에 서 Association
Expositions & Service 주체로 개최
된다.

이 박람회는 1946년 이래 매년 개최되
고 있는 북미 최대의 하드웨어 전문 박
람회로서 독일, 쾰른 하드웨어 박람회
와 함께 세계 최고의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박람회이다. 이번 전시에는 개최
국 및 3,300여 업체가 참가하며,
55,000여명 참관할 예정이다. 전시품
목은 홈하드웨어, 도어 악세서리 및 하
드웨어, 열쇠류, 냉·난방, 조명, 도어,
바닥재, 지붕, 페인트, 정원 및 조경용
품, DIY용품, 욕실 악세서리 등이다.

신청문의: (주)코리아나투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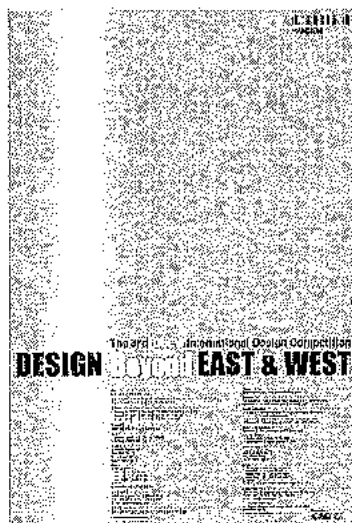
(전화: 02-736-4191

팩스: 02-753-8435)

웹사이트:

http://ww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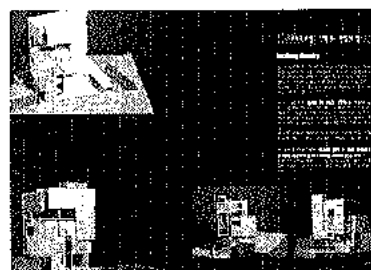
nationalhardwareshow.com



주. 한샘이 개최하는 「동과 서를 넘어서
는 디자인(Design Beyond East &
West) 국제디자인공모전」의 개최요강
이 발표됐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 공
모전의 주제는 지난해에 이어 한 자녀
가정을 위한 동과 서를 넘어서는 디자
인(DBEW for the One Child
Family)이며, 디지털화된 공간, 새로운
부엌 문화, 자녀들의 새로운 실내 환경
을 키워드로 합리적인 주거공간을 계획
할 것을 요구한다. 카테고리는 맞벌이
한 자녀 가정을 위한 공동주택 단위세
대 평면설계부문(카테고리 A), 맞벌이
한 자녀 가정을 위한 인테리어 디자인
부문(카테고리 B), 맞벌이 한 자녀 가
정을 위한 가구디자인부문(카테고리
C)으로 나뉘어 있다. 참가자격은 국적,
성별, 연령, 직업, 전공, 팀구성 여부 등
에 제한이 없으며, 공모전 웹사이트 온
라인 회원가입을 통해 예비등록을 하
고, 오는 9월 17일 18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0월 15, 16일에 하고
1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알레산드로 멘디니(이탈리아), 김석철

제12회 김태수 해외여행 장학제 수상자 발표

수상자로 조성주씨(A건축) 선정



제12회 김태수 해외여행 장학제에서
조성주(A건축)씨가 올해의 장학금 수
혜자로 선정됐다. 지난 5월 15일 총
42명의 응모자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1차 심사하여 4명을 선정하고 5월 20
일 본선진출자 4명과 최종 인터뷰를 거
쳐 최종수상자로 조성주 씨가 선정됐
다. 수상자는 미국달러 만불의 해외여
행 장학금이 지급되며, 한양대 건축공
학과(안산캠퍼스)졸업하고, 경기대 건
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삼간
건축사사무소를 거쳐 현재 A건축사사
무소에서 근무 중이다. 심사는 김태수,
서현, 황두진, 신종환, 김정곤 씨가 맡
았다.

아트필라(Artpillar), 원형콘크리트 아트성형품 개발



아트필라(Artpillar)는 세계에서 유일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기둥 본연의 기능인 건축물의 하중과 미적감각을 동시에 표현하는 공법인 원형콘크리트 아트성형품을 개발하였다.

이 공법은 1998년 전원주택에 적용, 시공하여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통하여 현장에서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부틀, 중부틀, 하부틀로 만들어 3가지의 형틀을 철봉(아시바)조임쇠벨트로 결합한 후 철근 및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예술적인 원형콘크리트기둥이 만들어지는 신개념 산공법이다.

아트필라 사업부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디자인된 성형품을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시공으로 새로운 건축양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렌탈하고 있으며, 아트필라는 중세유럽의 모든 기둥양식을 원형 그대로 표현하거나 한국 전통양식을 발굴 재현하고 미래 지향적인 건축양식을 만들고자 하는 이념으로 지속적인 연구 노력을 하고 있다.

문의 : (주)아트필라 (02-575-1077)

신 간 안 내

◇ 건설사업관리(CM)지식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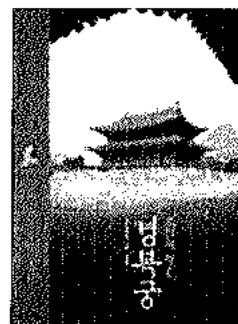
이 책은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에 적극 대처코자 건설산업에 CM(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건설사업의 활성화 및 건설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정부 및 업계에서 일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CM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서나 혹은 지침서가 개발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가 전무한 실정에서 탄생된 것으로 한국기술사회에서 1998년부터 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해 오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실무에 그대로 적용,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건설사업을 5단계 7기능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입찰안내서, CM표준계약서(안)-민간부문/공공부문, 과업수행계획서(안) 등을 부록으로 첨부해 있다.



한국기술사회 펴냄/651쪽/30,000원/도서출판 기문당 발행(02-2295-6171)

◇ 조선의 정궁 경복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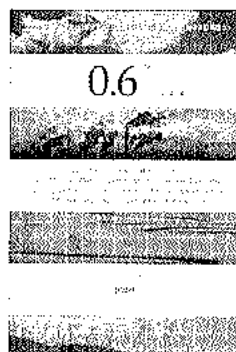
마음으로 보는 우리 문화 시리즈의 제 1권. 우리 건축에 일관되게 흐르는 독특한 미의식과 조형의식 등 우리 문화의 정신적 원형과 문화적 맥을 짚어보는 것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이며, 이 점이 경복궁을 말한 다른 경쟁 도서와 크게 차별되는 점이다.



김대벽 외 지음/조선일보사 발행/240쪽/15,000원

◇ 0.6°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의 한가운데를 발로 뛰어 생생한 현장감으로, 언론인 특유의 문체로 전하는 최신 녹색 보고서.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지구 온난화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에세이 형식으로 엮었다.



김수종 지음/한암사 발행/359쪽/12,000원

신건축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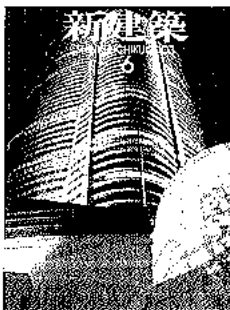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신건축

2003년 6월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학
교 건축」이 마
련되었다. 특
집을 통해 소
개된 작품은
대학 캠퍼스
시설에서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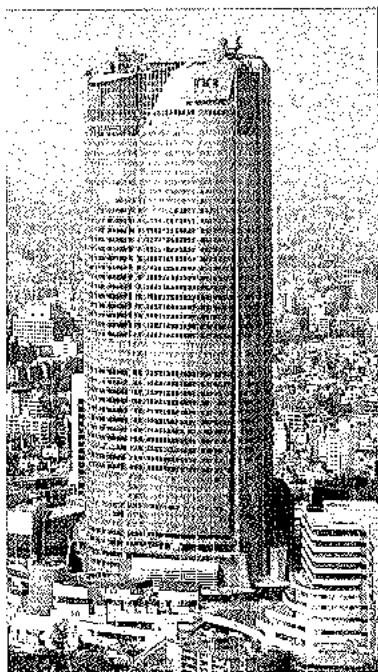
아원에 이르기까지 9개 작품이며, 2편의
에세이도 소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건축에서 마련하는 특집이 그러하듯
이 기획된 특집이 아닌 동일한 시설이
일시에 많이 준공되었을 경우 하나의 특
집으로 묶여낸 것이다. 오히려 이번 호의
특집은 표지사진으로도 쓰인 도심 재개
발 복합단지 「롯데 힐즈」일 것이다. 롯
데미 힐즈의 전체 구성과 각 건물들에 대
해서 30여 페이지에 걸쳐 소개하였다.

■작품: 「롯데 힐즈(六本木 Hills)」
롯데 힐즈의 계획의 시작은 1986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경의 롯데미
(六本木) 6丁目이 「재개발 유도지구」로
지정된 것이 1986년. 이를 계기로 이 지
역의 재개발 계획은 시작되었다. 그로부
터 각종 간담회와 협의회 등을 거쳐
1998년에 「롯데 힐즈 6정목 시가지 재개
발 조합」이 설립되었다. 전체적인 설계
가 완료된 것은 1999년. 기존 건물의 철
거와 함께 시작된 건물의 공사는 2000
년 4월에 시작되어 만 3년만인 2003년
4월에 오픈하였다. 공사기간은 실로 짧
으나 사업의 구상과 준비는 매우 긴 시
간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이다. 롯데미
힐즈에는 롯데미 힐즈의 중심건물이자
오피스 타워인 모리(森)타워를 비롯, 그
랜드 하얏트 도쿄(호텔), 상점가, 주거시
설, 그리고 미술관, 야외 공연장, 방송
국,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복합화 되어
「문화도심」을 표방하고 나섰다. 완공된
후 약 2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 롯데미
힐즈는 성공적인 도심 복합시설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호의 에세이에도 일본
설계의 부사장 大鹿正治도 「왜 롯데미
힐즈는 성공하고 있는가」라는 글이 소개
되었다. 그는 모리 시장의 추진력과 경
제보다 문화에 중점을 둔 일관성 있는



롯데 힐즈(六本木 Hills)



오피스 타워인 도리 (森タワー)

계획의 추진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새로운 도시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선명히 나타내는 것처럼 롯본기 힐즈의 오프닝을 기념한 행사로 롯본기 힐즈의 모리타워內的 갤러리에서는 「世界都市展-도시는 하늘로」라는 전람회가 개최되었다. 이 전람회는 오늘날의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시

카고, 뉴욕, 상해, 도쿄 등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모형을 통해 보여줌으로서 오늘날의 都市像을 검증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도시의 모습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각각의 도시를 설명하는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붕괴된 월드트레이드센터의 재개발 콤팩트한 도시만들기와 지역성, 역사성 등 도시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가운데, 전시의 압권은 1/1000축적으로 만들어진 도쿄와 뉴욕 등의 도시 모형이다. 이들 모형은 어려운 논의를 떠나서 보는 자체로도 도시에 관한 많은 생각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 전시는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들과 도쿄를 비교하고, 앞으로 도시의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는 아시아 도시의 모델로서의 도쿄'를 만든다는 롯본기 힐즈의 디벨로퍼인 '모리 빌딩'의 森ビル사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서 롯본기 힐즈는 신건축지 6월호에서 전시회 소식과 에세이, 작품소개 등 세 개 부문에서 소개된 셈이다. 다음은 롯본기 힐즈의 개발 구상에 대해 森ビル사장과 인터뷰

뷰를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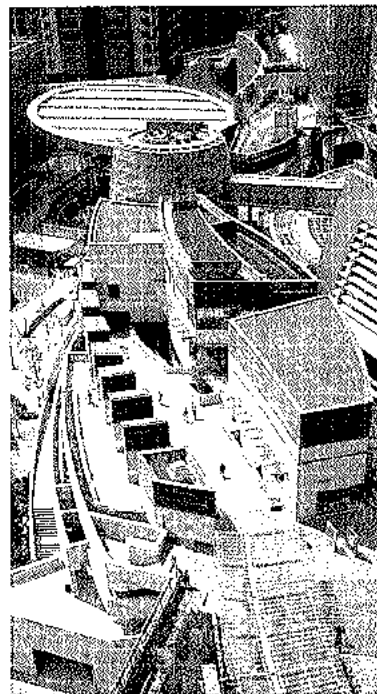
▶複合・集積(가) 도시 만들기의 열쇠 일본의 재개발 사업의 대부분은 이미 그 곳에 있던 도시기능을 그대로 놔둔 채 보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면서 그 표정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 그에 반하여 「롯데 힐즈는 새로운 가로로 프로토타입을 제안하는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는 재개발이라기 보다는 신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 모르겠다. 어느 정도 기존 가로의 맥락이 끊어지더라도 주어진 하나의 컨셉을 기초로 새로운 가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모두들 신선한 느낌을 받는 듯 하다. 또한 종래의 재개발은 오피스 혹은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여기서는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늘렸다. 즉 상업시설을 늘리고 미술관, 전망대, 시네마콤플렉스, 그리고 노천극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들어선 것이 롯데 힐즈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複合・集積型의 도시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고도 정보화 사회에 잘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아크 힐즈의 경험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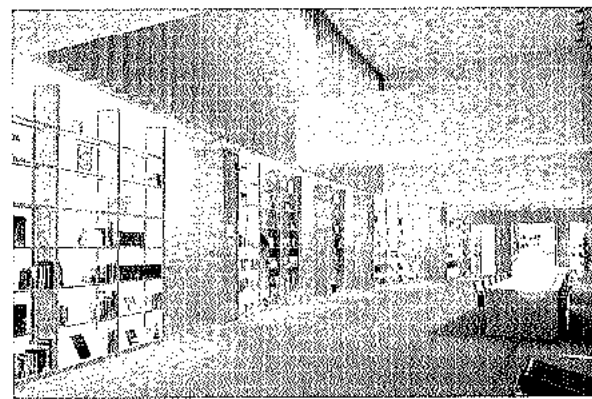
롯데 힐즈는 아크 힐즈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완성된 것이나, 아크 힐즈도 처음에는 복합화라는 개념이 그리 철저히 수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택, 사무소, 호텔, TV스튜디오, 공연장이라는 각각의 기능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여 있는 상황이었다. 2층의 보행자 전용 레벨에는 광장을



상천가



아오 공인점



도시관

설치하였으나, 무언가 그로 인해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느낌이었다. 모리(森)사장 자신도 아코 힐즈에 살고 있으나, 직주근접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근접하고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것이 지금처럼 활기 넘치는 광장이 된 것은 준공 후 약 10년을 넘겼을 즈음, 점포를 외부에 개방한 오픈카페 스타일로 교체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거기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지역의 사람 등 도시 전체에 개방한 것이다. 그로 인해 이전에는 한적했던 주말에도 북적대는 시설로서 아코 힐즈는 변모하게 되었다. 롯데기 힐즈는 이곳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one and only'의 가로가 되도록 구상하였다. 판매시설 및 식음료시설, 그리고 서비스 시설도 다행이 이러한 컨셉에 맞는 상점들이 들어서게 되었으나, 이 또한 아코 힐즈의 성공에 의해 만들어진 이번 사업에 대한 신뢰성에 그 토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시만들기는 영화제작과 유사하다. 롯데기 힐즈의 가로만들기를 통하여 도시만들기는 영화의 제작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디벨로퍼라기 보다는 프로듀서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우수한 인재들을 모으고, 그 모임을 생각해낸다.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자금도 모아야 한다. 또한 완성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 이후의 관리도 필수적이며, 이후의 제작을 위해서 인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꿈을 담아내는 부분이 없으면 일이 성사되지 않는 점도 영화와 닮아있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업시설 하나를 만들더라도, 상점가라든지, 쇼핑센터, 혹은 백화점이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설, 하지만 꿈이 존재하고 방문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이들이 행하고자 하는 가로만들기의 목표이다.

▶도시의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롯데기 힐즈는 앞으로의 도시모델로서 작용할 것으로 믿고 있다. 앞으로 정보 산업, 혹은 서비스 산업의 국제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시간의 '富', 즉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고, 그 여유시간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층화하고, 컴팩트하게 만들고, 기능을 집약하여 각자가 자기실현의 기회를 높이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재생에도 연결된다는 것이 모리 사장의 생각이다. 일본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아직 아시아의 다른 도시에 비해 힘이 있으며, 뉴욕도, 파리도, 런던도 아닌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아시아 도시의 모델이 동경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는 주장한다. 현대의 도시가 나아가 갈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그러나 '책상위에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곳(롯데기 힐즈)에 직접 와서 이러한 선택도 있다는 것을 실감할 길 바란다'는 것이 롯데기 힐즈를 통해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현대 도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자 물음이다.

a+u

2003년 6월

이번 호에서는 지난 5월 호에 이어 '벨기에의 건축(Driving through Belgium)' 특집의 2편으로

'어번 랜스케이프에서의 건축(Object in the urban landscape)'이 실렸다. 오



랜 기간 고정된 형태로 형성된 전통적인 벨기에식 주거형을 벗어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지난 특집의 주제였다면, 도시와 랜스케이프가 혼재해있는 상황에서 도시 시설물의 모습을 다룬 것이 이번 특집이다.

▶벨기에 건축에 대한 두 번째 특집

지난 호와 마찬가지로 벨기에의 건축의 면면을 훑어보기 위해 차를 몰고 벨기에 전역을 돌아다녀야 한다. 벨기에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례들이라는 점, 그리고 전원과 도시가 혼합된 지역이라는 점은 여전히 벨기에 건축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배경이 되는 듯하다. 지난 번 보다 강조된 것은 벨기에의 '어번 랜스케이프'라는 특징이다. 어번(도시)과 랜스케이프(주로 전원과 자연)라는 상반된 의미의 단어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벨기에의 도시 혹은 농촌은 도시와 농촌의 조각들이 뒤섞여 있는 듯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번 호에 소개된 작품들은 이러한 어번 랜스케이프에 심어진 소규모의 도시시설들이다. 주로 오피스 시설들이며, 여행 안내소나 전시 공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거대한 자본의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들 소규모 시설들은 도시와 랜스케이프가 뒤섞인 상황, 그리고 정부주도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기 힘든 벨기에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자신들의 독특한 삶의 터를 가꾸어가는 벨기에인들의 모습들이 더 쉽게 발견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들의 건축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도 않으며, 디자인이나 공법에 있어서도 첨단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들의 건축이 바로 벨기에인들에게 필요한 건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건축의 본질과 역학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벨기에의 도시와 랜스케이프

벨기에에서는 특히 북부에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된 결과 유럽에서도 몇 안되는 조밀한 인프라에 의해 누더기와 같은

랜드스케이프가 전개되게 되었다. 이로써 도시와 지방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다. 현재의 상황을 「그것은 이미 도시도 랜드스케이프도 아니다. 촌이나 작은 마을, 도시 그리고 작은 규모의 랜드스케이프 조각들의 혼합물이다. 그 안에 주택, 군, 상업지, 공업지대나 주유소가 떠올리며 확장되어 추악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한 에세이도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된 에세이는 벨기에 국내의 다양한 공간들이 어떻게 그 모습이 변화해왔는가,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언급과 '랜드스케이프' 모델을 명확하게 하는 조사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몇 개의 프로젝트 사례도 소개하고 있는데, 도시 스프롤 현상 속에서 자신들이 서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 작업에 의해 네트워크를 보다 농밀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는 반면, 기존의 건조물이 만들어낸 환경의線を 변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 어느 것도 분산되는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작지만 랜드마크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굳게 확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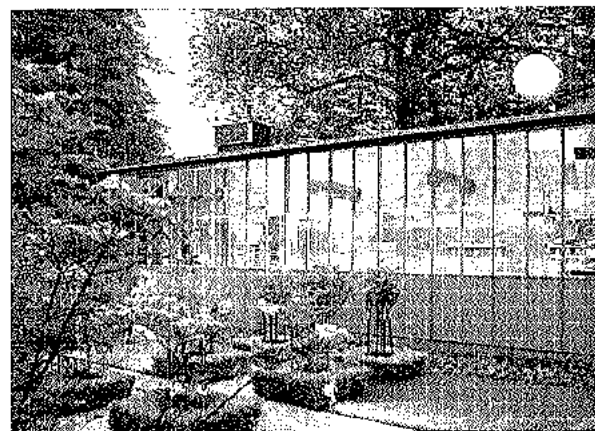
▶에세이: 「스카이라이닝 벨기에-도시계획의 탐구」, 피터 유텐호베(Pieter Uyttenhove)

현재 벨기에에선 프랑스 지방이나 브뤼셀, 겐트, 앤트워프, 루벤으로 둘러싸인 마름모꼴의 거대한 지역과 외곽 지방

의 북부 등 촌락지대에서 광범위하면서도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의 런던에서 템즈강 하구에 이르는 지역, 네덜란드의 랜드사르트, 혹은 투르 지방이나 파리 분지, 이탈리아 북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도시화는 세계화와 더불어 각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행정면에서의 지방적 특질의 양 측면이 함께 작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로서 공간개발에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에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정치가, 건설업자, 주민이나 이용자)에게 도시화는 그다지 문제로서 다가오지 않는다. 도시화에 의해 이전에 비해 이동과 활동의 자유가 늘어나고 원했던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도시계획의 시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無力化의 증거밖에는 안된다. 과거 수백 년간 벨기에는 도시계획에 의해 가능한 대도시권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 왔으며, 적어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하여 자연이 남아있는 지역, 즉 전원지대를 남길 수 있는 한 남겨 왔다.

도시화는 분명히, 본래 공간프로세스가 아니라 자연보존, 농업, 고용, 서비스, 문화를 단일 영역으로 묶어 내는 사회경제적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그 하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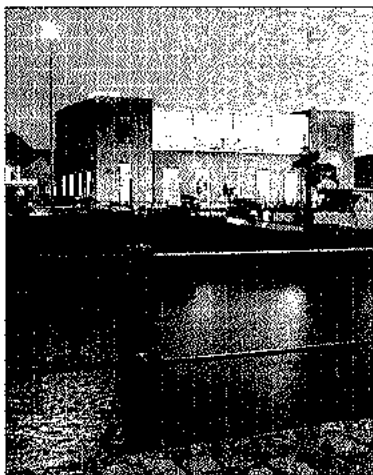
레스토랑 카르멜리트(Carmelite)의 주방 화장 및 계수

구역 안에서 촌락, 공업, 서비스, 도시라는 지리적 혹은 경제적 구분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으나, 칼름트호우트의 황야에서 우둔지방의 곡물지대, 프랑스의 양돈장,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에 의해 리본처럼 연결된 신흥개발지대, 그리고 브뤼셀 유일의 역사적 가로경관이 있는 그랑 프레이스 광장까지 모두 동일 공간(사회시스템)에 귀속시켜 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은 서로간에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간상 흩어져 있는 요소가 상호 의존하는 관계는 용어를 최대한 확대해석해서 말하자면 「에콜러지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에콜러지의 개념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기존 안에 대해서 무언가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벨기에와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오랜 세월동안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 무엇이 제시되더라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어차피 행정능력이 無力하여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계획이라는 환상에 목을 매고 있기보다는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벨기에에서는 행정선도의 토양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집단책임 감각이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아 어떠한 도시개발의 모델도 수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벨기에 시스템



Visitor and Exhibition Center



시장조사회사 '콤파니'의 再改裝

의 특유한 현실속에서 자신들 스스로 접근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위로부터의 변화(top down)」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변화(bottom up)」의 방법으로 현실을 직시하며 이야기하는 것이다.

▶작품소개

기노 데부루이네(Gino Debruyne)의 「알라베르세이데(Walraverszijde)의 Visitor and Exhibition Center」, 피트 앤 필립 비에린 아키텍트(Piet en Philippe Vierin Architecten)의 「레스로랑 카르멜리트(Karmeliet)의 주방 확장 및 개수」, 빔 고즈 아키텍투르(Wim Goes Architectuur)의 「시장조사회사 '콤파니'의 再改裝」, B-아키텍트(B-architecten)의 「창고를 고쳐 만든 문화센터」 등이 소개되었다. (번역/강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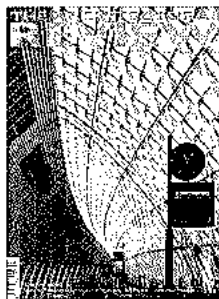


창고를 고쳐 만든 문화센터

Architectural Review

2003년 4월

이번 호는 육상교통수단인 기차, 트램, 지하철 등의 역사에 대한 근래의 디자인 경향을 소개하였다. 도시



의 중심으로 기능하는 역사의 특징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프랑스 TGV의 신설역들과 슈투트가르트의 중앙역 등을 자세히 다루었다.

■ 육상 교통 시설

교통수단은 세계를 좁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증가하는 공해와 확대되는 도시화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교통수단이 발생시키는 공해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축소하는 방법은 도시지역의 밀도를 높여서 사람들의 이동거리를 줄이는 것이며,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최대한 장려하는 것이다. 런던에서는 이미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졌다. 오슬로의 도시철도 시스템은 런던의 경우와는 좀 대조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철도 시스템이 커버하고 있으며 이용인원도 적은 편이다. 운임수익만으로는 투자비용 회수 및 운영이 어려워 정부차원에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로운 도시교통시스템으로서 도입된 시가전차시스템은 도시내 이동을 원활하게 한다. 세계 대도시가 이러한 경량전철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의 BART, 밴쿠버의 스카이트램 등은 통근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도시망을 효과적으로 통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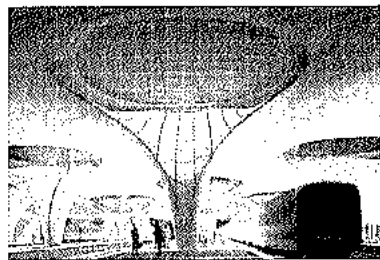
공중 철도시스템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갖

고 있지만 도시조직을 심각하게 파괴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도 한다. 방콕의 스카이라일시스템은 잘 조직된 도시를 두 부분으로 찢어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카이로나 베이징의 잘못된 교통망 계획도 위와 같은 예로서, 훌륭한 도시조직을 파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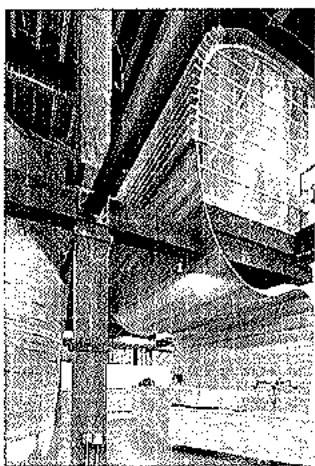
파리의 Gare du Nord와 뉴욕의 Grand Central Station과 같이 대도시의 역사는 출발과 도착이 이뤄지는 지점이 되는 동시에 도시의 중심으로서, 역사 앞의 광장은 크고 작은 시위의 장이 되어왔다. 최근 중앙역으로 새롭게 지어진 Pennsylvania 역은 프랑스의 TGV 역과 베를린의 Lehrter역과 같이 새로운 개념의 역사로서, 공항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교통시스템이 만나고 집중된다. 공항을 도시의 새로운 중심으로 잘못 인식하려던 경향이 과거에 한때 있었지만, 도시의 실질적인 중심은 중앙역이라는 설정이 보다 합리적이다. Ingenhoven Overdiek의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은 철도기술의 변화가 기존의 역사 건물과 그 주변 도시지역에 어떻게 새로운 기능성과 상상력을 부여했는지를 보여준다.

■ 인테리어 디자인

- Marmol Radziner + Associates의 광고회사, San Francisco
미국의 유명광고회사인 Chiat Day Company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이어 샌프란시스코에 지사를 두고 상상력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사옥은 Frank Gehry의 유명한 생안경 건물로서 무미 건조한 캘리포니아의 거리에 영화적 상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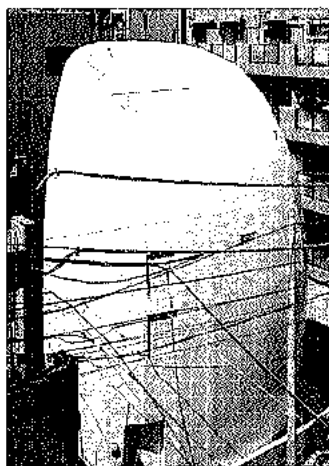
Marmol Radzner + Associates의 광고회사

상력을 환기시키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Gehry의 뒤를 이어 뉴욕 사무실의 설계는 Gaetano Pesce가 맡았다. 화려한 색상과 초현실적인 형태, 그리고 저렴한 재료의 특이한 조합을 통해 일반적인 사무실 개념에서 벗어난 창조적인 장소를 만들어 내었다. 개인사무실이나 개인 작업 공간이 전혀 없었던 뉴욕 사무실과는 달리 지금의 Chiat Day Company는 다소 관습적인 업무공간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Marmol Radzner는 샌프란시스코 프로젝트에서 이전의 사무실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한때 조선소였던 부지는 골드러시로 캘리포니아에 밀려 들어온 사람들이 버린 선박들로 어지러웠던 곳이었다. 이후 사창가, 아편굴들로 유명했던 지역이 1960년대 이후 재개발되어 디자인 및 광고관련 회사들이 입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컨텍스트에 영감을 얻어 Radzner는 난파당한 선체내부와 같은 이미지를 인테리어에 반영하였다. 흘러내리는 물과 쇠초되어 흩어진 목재 더미를 연상시키는 폴리카보네이트 칸막이 벽과 목재 구조물 등도 이러한 컨셉을 구체화한 것이다.

■ AR House

Masaki Endoh + Masahiro Ikeda의 주택, Tokyo

Natural Ellipse로 알려져 있는 이 주택은 도쿄의 쇼핑과 엔터테인먼트의 중심



AR House

지인 시부야에 자리잡고 있다. 러브호텔 밀집 지역에 들어선 이 건물은 외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닫혀있으며 내부로 향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최상부층의 테라스도 하늘을 향해 열려 있을 뿐이며, 몇 개의 창문은 각각 철저하게 계산된 조망을 갖고 있다. 수직 수평의 철제 구조체가 쌓알을 연상시키는 타원환상면체의 뼈대를 형성하고, 단열성능과 방화성능을 가진 강화 섬유가 외피를 담당한다. 건물은 두 개의 아파트먼트로 이루어진다. 기하학적인 형태로 인해 중심의 코어를 기준으로 하여 좁은 공간은 화장실과 부엌으로 이용되며, 반대쪽의 넓은 공간은 거실과 침실로 쓰여진다.

Architectural Record

2003년 4월

20세기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도되어 온 실험주택 및 건본 주택을 재조명한 기사가 특집으



로 실렸다. 아울러 Record Houses 2003에서는 현재 유행하는 운동성과 끌리추라는 모티브로 디자인 개념을 전개한 주택 작품들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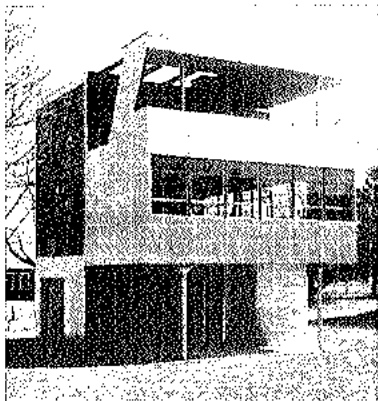
■ 건본주택의 전망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미술관, 잡지매체, 박람회 등은 유행을 선도하면서 혁신적인 케이스 스터디 주택의 디자인과 계획을 후원하였다. 미국인들에게 모더니즘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대량 생산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내놓았으나, 그러한 혁신적인 주택을 시장에서 대량으로 생산시키려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미국 근대 건축의 발전에 귀중한 역할을 하였다.

1900년에 대중적인 잡지인 'Ladies' Home Journal'은 근교의 중산층을 위한 주택의 디자인을 최초로 후원하였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이중 세 채를 디자인하였는데, 진보적인 스타일과 창의적인 건설방식의 라이트의 계획은 유럽 양식의 건축모형을 거부하고 미국적 랜드스케이프를 반영한 것이었다. Architectural Record는 스위스 태생의 근대 건축가 William Lescaze의 건본주택을 1928년 소개하였고, 이를 통해 "미래의 미국 근교 주택"의 연구는 큰 힘을 얻게 된다. 국제주의 양식의 주택은 콘크리트 벽과 노출된 난방배관, 그리고 지붕 위의 기상학적인 기구로 대변되었으며, 이는 벽난로 주위의 단란한 가족 생활을 위한 배경보다는 "살기 위한 기계(machine of living)"로서의 주택이라는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내포하였다. 미국의 대공황 동안 주택건설은 주춤하였지만 실험적인 시도는 번성하였다. 세계 최초로 지어진 알루미늄 주택으로서 주목을 끈 Alfred Frey와 Lawrence Kocher의 주택이 1931년 뉴욕 건축 연맹의 정기 전시회에 소개되었다. 금속재 주택의 아이디어는 당시 다른 건축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계

기가 되었다. 1933년 시카고에서 열린 박람회에서는 기업의 후원을 얻어 13개의 견본주택이 전시되었다. George Fred Keck은 유리와 스틸로 이루어진 12면체 형태의 주택을 내놓았다. 그의 "미래의 주택"은 태양열 난방장치와 중앙 공조방식(따라서 창이 열리지 않았다)의 설비가 갖추어졌으며, 건축주의 소형비행기를 위한 격납고가 1층에 계획되었다. 이후 1941년 MoMA는 Buckminster Fuller의 Dymaxion House를 미술관 마당에 전시하였다. 공업적으로 생산된 부재를 사용하여 경량이며 저가였고 변형도 쉽다는 점을 강조하여 큰 주목을 끌었으나, 대량생산되어 보급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1945년 Arts & Architecture의 편집장 John Entenza에 의해 기획된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 프로그램은 당시의 젊은 건축가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면서도 혁신적인 디자인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대중적으로 소개된 이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슬라이딩 유리 문과 평지붕은 주택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 가장 큰 역할은 캘리포니아에 적합한 "indoor-outdoor"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한 것이다. 기존 미래형 주택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로서 진보된 기술을 부각시키는 대신 이 프로그램은 자연으로의 회귀를 제안하였다. 넓은 테라스와 바비큐 그릴을 갖추고, 생활을 즐기는 장소로서의 주택 모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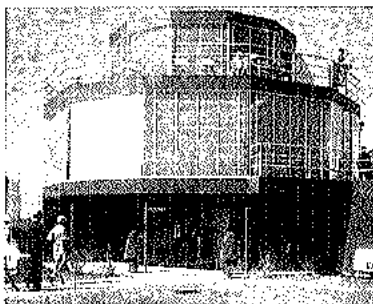


Alfred Frey와 Lawrence Kocher의 주택

서부에서 케이스 스터디 하우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인기를 얻은 지 4년 후 뉴욕의 MoMA는 Marcel Breuer의 견본주택을 조각정원에 지었다. 내외부 사이의 경계를 지우는 넓은 유리창과 유동적인 공간이 특징적인 이 주택을 약 7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지난 30년간 혁신적인 주택 디자인을 대량생산 시장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약화되었다. 주택전문가나 개발업자들은 최첨단의 디자인이 곧 대량 생산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검증 없는 상품으로 모험을 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1998년 Michael Bell이 기획한 전시회 "16 Houses: Owning a House in the City"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선보였다. 전시된 작품들은 형태적으로 매우 다양했으며, 유리나 스틸로만 이루어진 매우 대담한 Bell의 유리 주택 @2도 포함되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조립식 주택의 개발로 건축가들이 예견한 실험주택의 실현은 보다 더 가까워졌지만, 이러한 기술의 진보가 건축시장에서 깊은 영향력을 갖는 것은 아직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전반에 걸쳐 제시되어 온 견본주택은 정체되길 거부하는 문화에 대한 요구와 미지의 것을 탐구하러던 시도로 재조명될 것이다.

■ Record Houses 2003

역동성과 놀라움은 20세기 예술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제로 떠올랐으며, 오늘날 건축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핵심적인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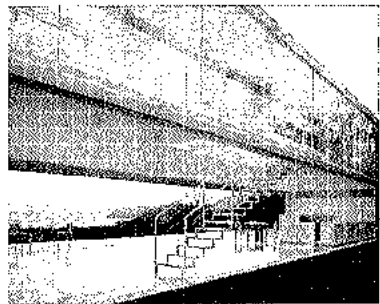
유리와 스틸로 이루어진 12면체 형태의 주택

소로 적용되고 있다. 올해의 Record Houses에 선정된 작품들에서도 건축가들은 움직임이라는 이슈로 활발하게 그들의 아이디어를 펼쳐나갔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에서 보여 졌던 놀라움 기법은 재료나 재질의 겹침을 부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때로는 공간의 겹침 자체로 움직임을 생성시키는 조작도 보여 진다.

Sean Godsell의 Peninsular House는 두 개의 목재 스크린 사이에 있는 반 외벽적인 통로를 통해 진입한다. 마치 피코닉 바구니의 덮개처럼 목재 스크린이 한지에 의해 열리면 주택의 내부가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스크린의 겹침은 주택으로서 사적영역을 보장하면서 위장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목재스크린의 질감과 반투명성은 랜드스케이프와 조응한다.

Shigeru Ban의 Picture Window House는 다른 방식으로 운동성과 시각적인 가벼움을 강조한다. 슬라이드 되는 대형 유리창에 의해 집의 프레임은 바다를 담는 대형 액자가 되고 내부 공간은 데크까지 연장이 된다.

Thomas Phifer의 Taghkanic House는 얇고 움직이는 커가 유리창 앞에 돛과 같은 형태의 브리즈 솔레이유를 형성한다. 그리고 Valerio Dewelt Train의 Dublin Residence에서는 골강판의 외벽이 변형되면서 때에 따라 조각적인 변화를 보이며, 기계장치에 의해 골강판문이 반으로 접혀 올라갈 때면 내부정원이 드러나게 된다. (번역/최원준)



Picture Window House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 88

산재보험 케어센터 / 90

서울맹학교 / 92

구로종합사회복지관 / 96

강북구민건강관리센터 / 100

동강사진박물관 / 104

건국대 산학협동관 / 106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이용선)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신축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해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이용선)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지난 7월 9일 발표했다. 지명현상설계로 치뤄진 이번 현상설계에는 당선작 외에 포스에이씨건축, 금성건축, 인터월드건축, 율건축에서 참여했다.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산19-1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학교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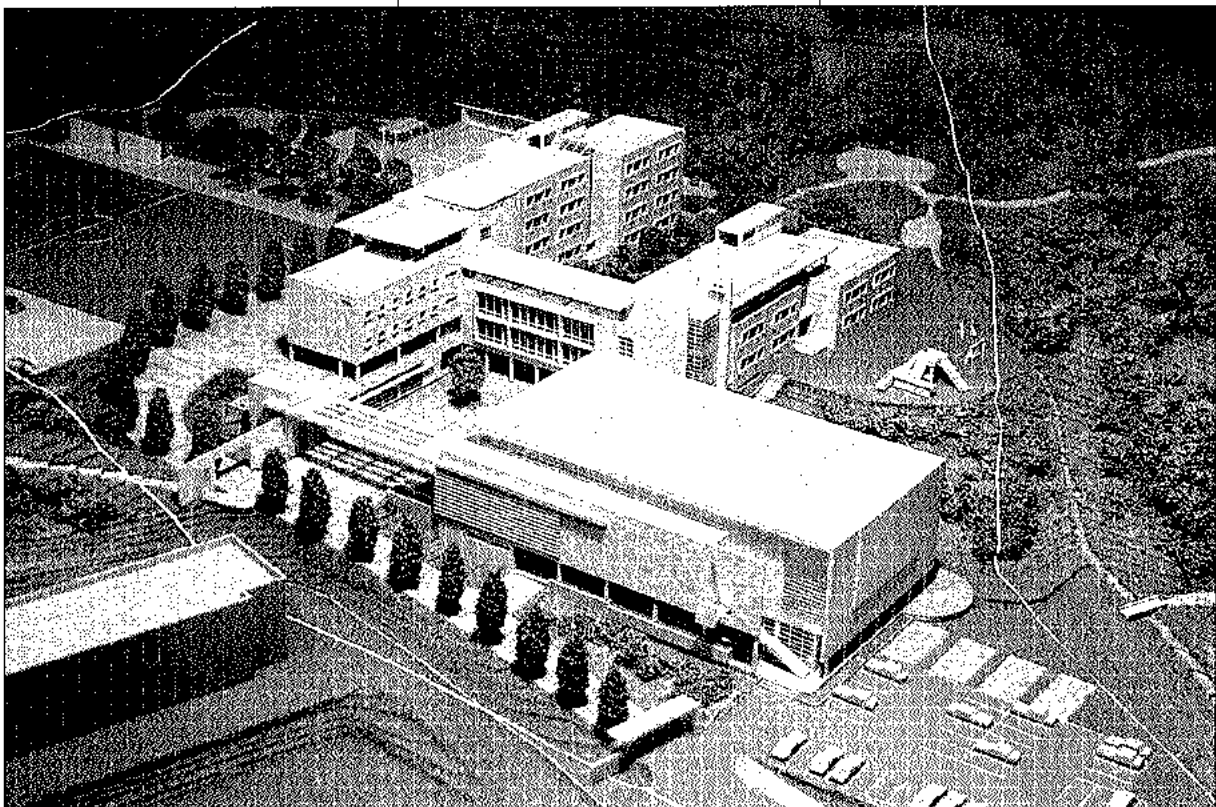
대지면적 26,846.00㎡

건축면적 3,020.00㎡
연면적 8,050.00㎡
건폐율 11.25% (법정:20%)
용적률 22.79% (법정:80%)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초등학교)
주차대수 40대
외부마감 외벽-붉은벽돌/알미늄시트/노출콘크리트/압출성형시멘트페널, 창호-THK18 복층유리
지붕-메탈시트(티타늄징크판) / 콘크리트 슬라브
설계팀 이용민, 정석범, 원윤정, 황승현, 김명진, 김영삼, 김태규

CONCEPT-1

지형에 순응하는 외부공간의 연속성 그리고 자연을 활용한 학습공간 구성 - 환경친화적 생태학교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기존지형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부지를 조성한 것처럼 건물과 지형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진입부에서부터 경사진 자연지형을 적극



활용한 외부공간의 연속 구성으로 자연에 순응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외부공간은 성장단계별 놀이마당으로 구분 제공되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CEP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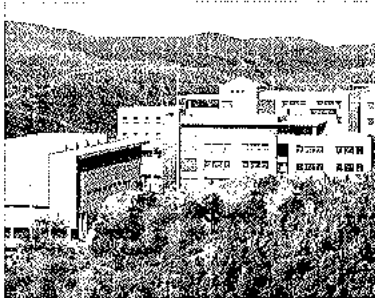
저학년(1,2학년)과 고학년(3~6학년)의 설정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과, 학교생활에 1년 정도 익숙하게 된 2학년 2개학년을 저학년으로 설정하고 1, 2학년을 한데 아우르는 공간으로 저학년동을 조성한다.

지침도 1, 2학년 교사는 별도의 교사연구실을 두지 않고 교실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한 식구로 생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저학년동의 교실과 복도에는 다종 다양한 코너를 조성하여, 가정에서 떨어져나가는 심리적 이유감(離乳感)을 최소화할 하도록 하였다.

3학년부터는 개인성장단계에 따라 수준이 결정되기에 공간구성상 중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옥외공간은 안마당과 대운동장을 중/고학년이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CEPT-3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공간 활용 - 저학년동, 고학년동, 관리 및 특별교실동의 건물군 배치

저학년동은 충분한 채광을 위해 정남향으로 계획하였으며, 학생들의 진입동선을 고려 진입구에서 가까운 부지의 남측에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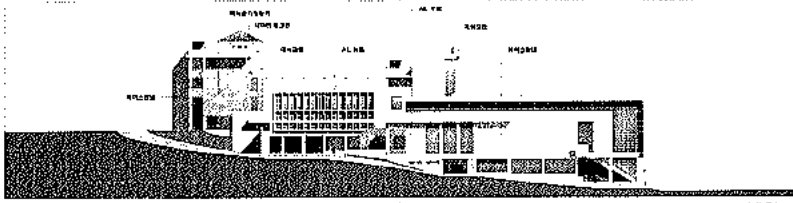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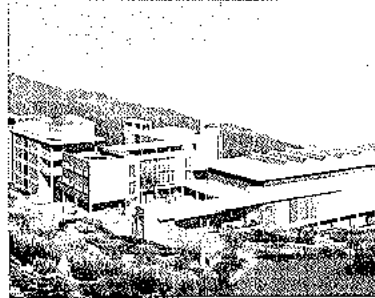
고학년동은 학년별로 4개교실과 정보화코너, 교사연구실, 화장실, 계단실 등으로 구성하여, 능력별 개별학습 및 주제적 학습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교실동은 전체시설의 중심인 저학년동과 고학년동 사이의 배치하여 거점공간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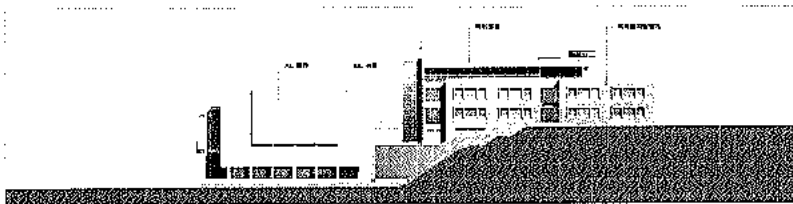
관리/행정동은 진입도로와 근접한 서측 모퉁이에 배치하여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관찰과 외부순원의 체구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복측 운동장도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CONCEPT-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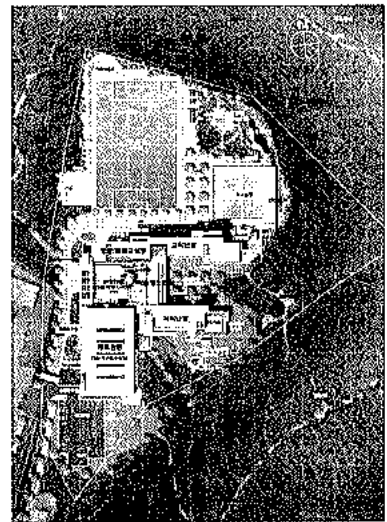
실습 / 연구학교로서의 기능 수용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콘코스레벨)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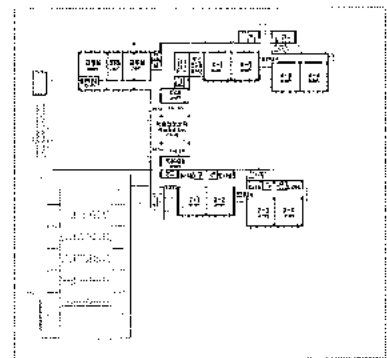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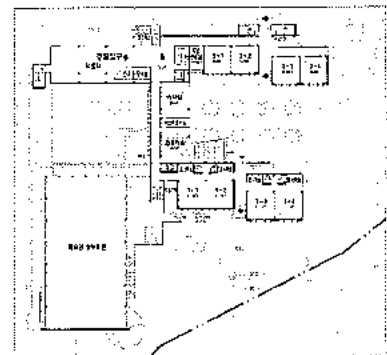


북측면도

이비 초등학교의 실습학교로서의 특성화는 물론 현직교사의 연수, 연구 및 교생의 교원실습공간의 제공 등 교과실습목적 학교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대지진입부 주차장과 연계된 수영장 및 콘코스(행사마당)레벨의 체육관, 식당, 시청각실 등의 연계구성은 학생들의 다목적 행사는 물론 지역사회 개방시설로서의 공공문화 및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산재보험 케어센터

Care Center,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당선작 / (주)건축사사무소모람
(김흥수) + (주)종합건축 금성
(정해상)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문창호교수)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화수리 산 21-1번지 동 8쪽지
지역지구	관리지역
대지면적	18,000.00 m ²
건축면적	3,714.11m ²
연면적	11,885.99m ²
건폐율	20.63%
용적률	52.75%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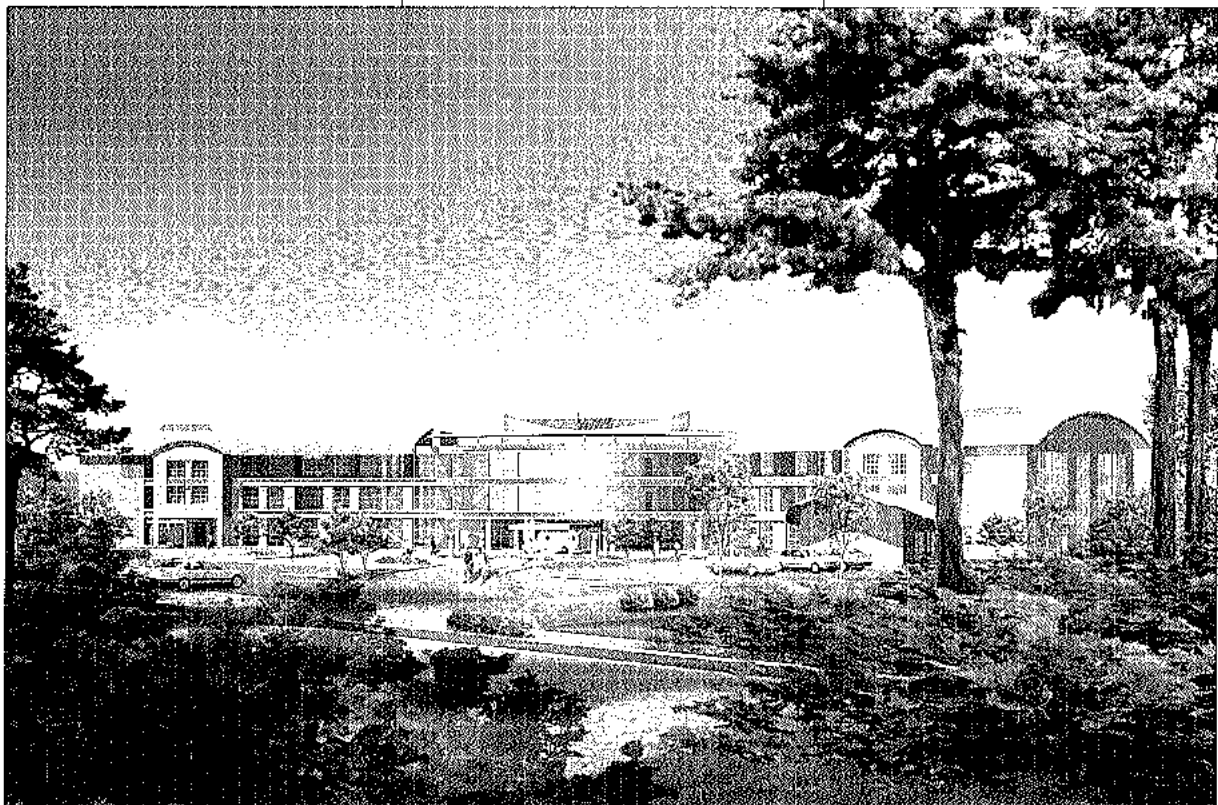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대수	102대 (장애인주차 4대 포함)
외부마감	외벽: 유리커튼월, 치장벽돌, 고밀도 목재패널 등
창호	THK18 복층유리
설계팀	송명규 소장, 김동범, 안성호, 류정식, 이승곤, 감현석

산재보험 케어센터의 계획에 있어 고려해
야 할 주요한 요소는 의료서비스에 적합
한 기본적인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더불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센터에서 거
주하게 될 이들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케어센터에 거
주하는 이들에게 있어 이 시설은 그들 개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함에 충분한
시설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나이가 재
활과 치료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주변
과 사회로부터 자칫 고립되기 쉬운 입소
자 개개인에게 자연 및 공동체와의 교류
를 통해 자아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과 환
경이 되어야한다. 이에, 본 계획안의 기본

목표를 산재보험 케어센터라는 특별한 프
로그램 내에서 적절한 규모의 생활 공동
체를 형성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의 계획
하는 것으로 요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한 계획의 세부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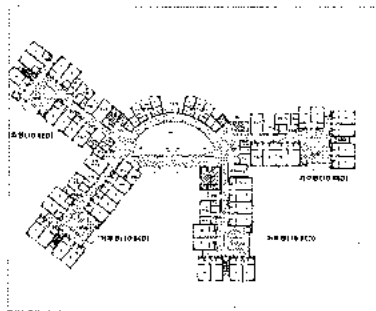
거주동 내부의 데이 룸(day room)을 중
심으로 개호 서비스가 뿐 아니라, 식사와
여가활동과 같은 입소자들간의 사회적인
교류와 활동이 이루어지며, 케어센터 입
소자의 주요 생활공간인 거주동 각각은
이러한 데이 룸 중심의 생활 공동체로 제
안할 수 있다. 10개 거실단위(unit)로 구
성된 거주동 클러스터(cluster)는 각각의
독립성과 영역성을 강조하여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케어센터 내에서
도 개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연장할 수 있다.

케어센터의 환경은 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외부환경과의 접촉기회를 증대시킴으로
써 자연과의 교류 속에서 다양하고 능동
적인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이 영위되도
록 한다. 조망과 일조, 고저차 등과 같은
외부의 자연적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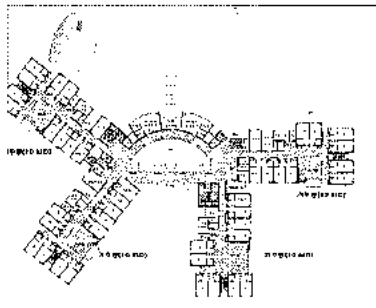


하고, 내부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외부공간을 제공하여 시설 이용자의 활동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확대되는 치유환경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쉽게 시설 내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전체의 이미지에서 의료시설이 주는 삭막한 분위기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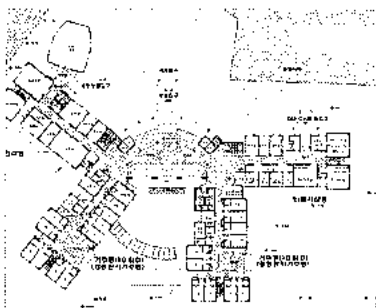
이러한 각각의 공간들은 개호·의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시설 이용 등과 같은 기능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클러스터 형태의 단위동을 형성하고, 이들 단위동들의 위계적인 배치를 통하여 기능적·효율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센터의 중앙부에 공용공간을 배치하고 수직동선의 일부는 각 단위동 내에 분산배치하여 각 기능군의 독립성과 서비스 동선의 효율을 높이며 재난시 파란거리를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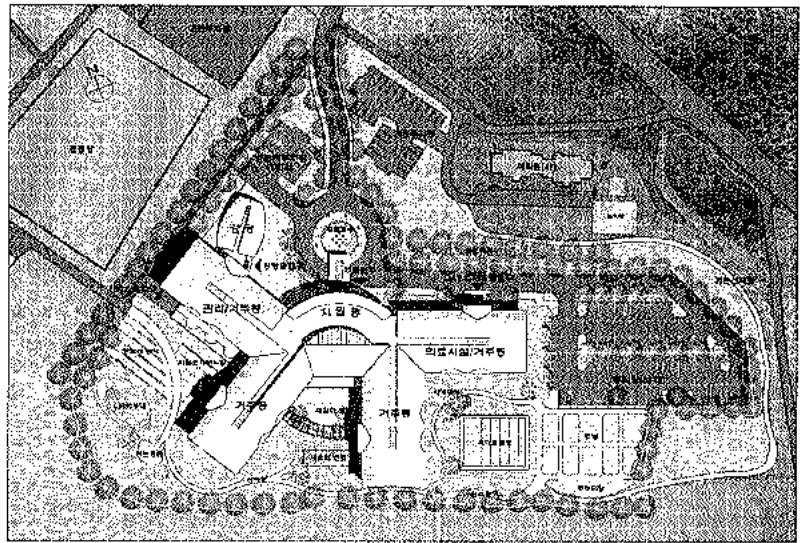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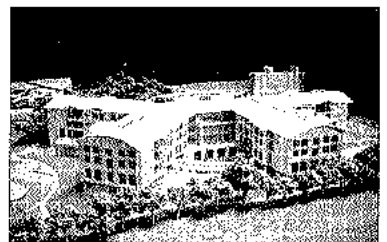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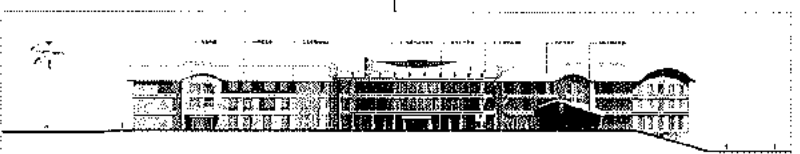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배치도



단면도



중면도

서울맹학교

Seoul National School for the Blind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서용주·최덕호·김성우)

서울맹학교는 1931년 제생원 맹아부의 설치로 국내 최초 공교육 특수교육기관으로 시작하여 현재 2001년 신설된 의료 재활과정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교육의 요람이 되고 있다. 기존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일부 교육시설의 이전 증축을 통하여 교육환경의 개선을 도모코자 현상설계를 실시하였다. 당선작으로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서용주·최덕호·김성우)의안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작에 (주)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한상욱)의안이 선정됐다.

대지위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5,961.40㎡
건축연면적	2,009.13㎡
연면적	7,950.10㎡
건폐율	33.70%
용적률	112.9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40대 (장애인주차2대, 일부 프로그래주차)
규모	교육행정동: 지하 1층, 지상 5층 / 기숙사동: 지상 4층
외장 마감	치장벽돌, THK18 복층유리
설계팀	이근영, 윤창기, 박남준, 유재유, 이응숙, 남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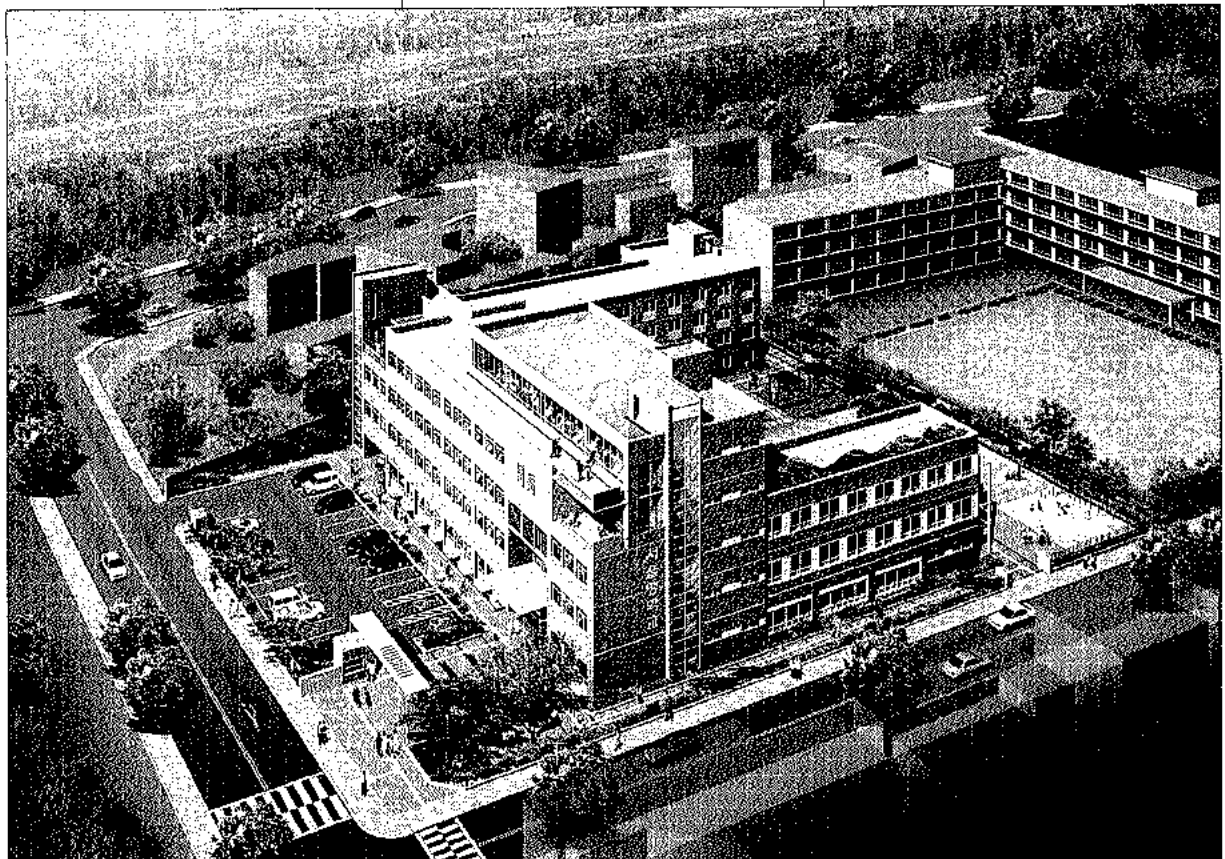
설계개념

본 설계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학교시설 설계로 이번설계의 가장 중요한 설계 개념은 무엇보다도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려된 건물계획이었다. 첫째 짧고

단순한 동선계획, 둘째 공간인식을 위한 빛 처리계획, 셋째 소음을 이용한 방향성 제시, 넷째 재난시 피난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함과 장래의 학교발전을 고려한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가 되도록 설계는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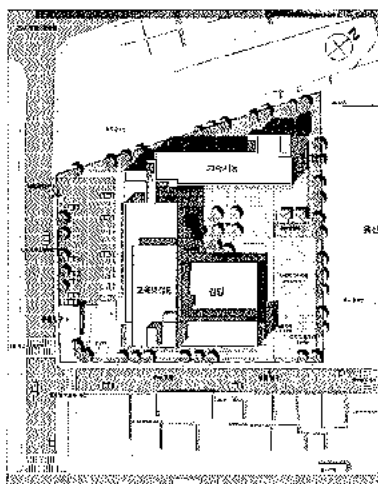
배치계획

첫째, 교육행정기능의 본관동을 주출입구에 근접배치하여 시각장애우가 건물로 접근 시 동선이 짧도록 하고 이용의 편의를 위해 유도블럭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도모하였다. 둘째, 중앙코어 이외에 각동 복도 끝에 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대책이 가능토록 하고 비상시 외부발코니로 대피할 수 있는 층별 Safety Zone도 확보하였다. 셋째, 장애우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장래 학교의 위상변화 및 시설확장에 대비한 증축계획을 고려하였다. 특히 증축 공사중 기존시설이동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부지 후면에 증축부지를 확보하였다. 넷째, 인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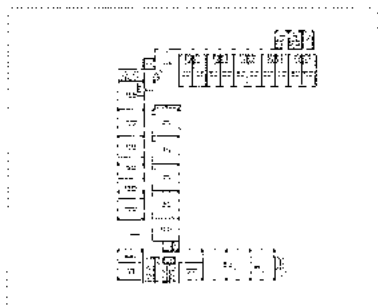


어려운 원형, 다각형 공간은 배제하고 장 방향 단위로 구성하였으며, 간접소음은 시각 장애우들에게 방향을 인식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연속된 각 실의 길이 변화로 시각 장애우들의 방향감 인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복도와 굴곡부 끝단에 창문을 설치하여 빛의 명암을 이용한 공간인식이 가능토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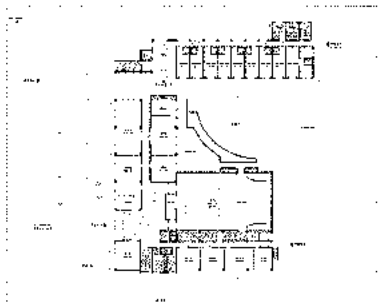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부지남측의 12M 도시계획도로는 순차적인 부지이용이 가능토록하여 계획도로 설치 전에는 전면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계획도로 설치 후에는 운동마당을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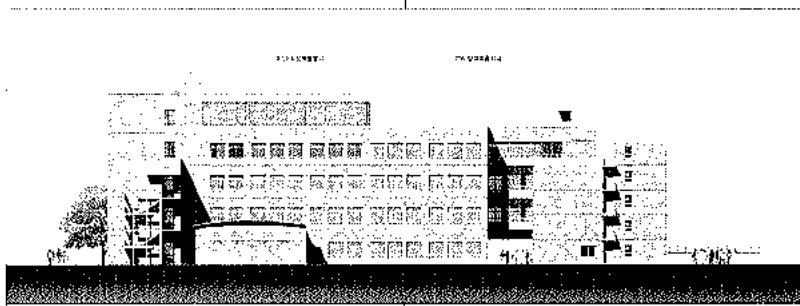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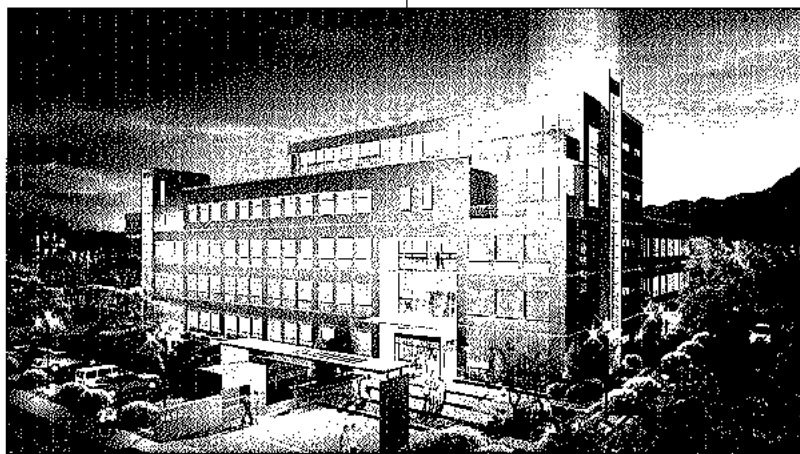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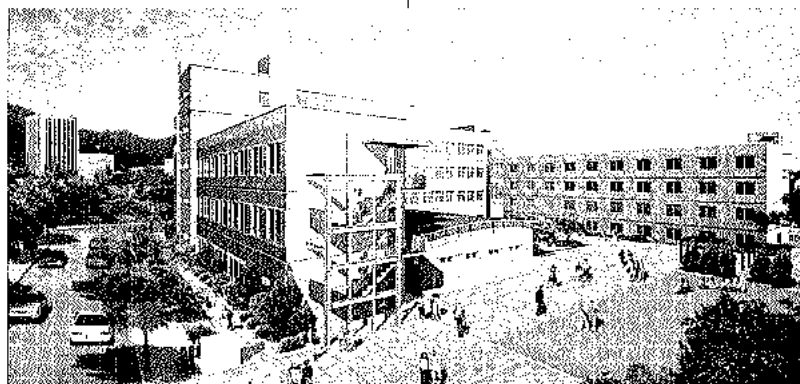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평면계획

평면계획 개념은 시각 장애우 피난동선의 최단거리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평면 각 동 끝에 피난계단 및 Safety Zone을 구성하였다. 또한 복도 통행 시 목표점을 인식하고 방향성을 부여토록 복도 단부를 Open하였고 복도 및 옥외공간에서의 방향감을 잃지 않도록 계획에 고려되었다. 먼저 지하층은 Sunken을 설치하여 식당 환경개선 및 외부로의 별도출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지상 1층은 행정지원시설과 기숙사의 출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였으며 필로티 계획으로 후정 외부공간으로 자연스러운 통과동선을 유도하였다. 특히 강당을 1층에 구성하여 외부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용도의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지상 2

층에서 4층은 교육시설과 기숙사영역을 수평분리하고 층간 연결통로를 확보하였다. 특히 기숙사영역은 남동향 편복도로 구성하여 철로 번 소음을 차단하고 빛의 명암 차이를 이용하여 방향감을 인식하는 요소로 활용하였다. 교육zone에는 일반 교실군을 남향으로 배치하고 시각 장애우의 행동패턴을 고려한 직각 동선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복도는 벽면부착 돌출물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도록 처리하고 유도 손잡이로 안전성을 도모하였다. 지상5층에는 도서관을 독립영역으로 구성하였고 휴게실 및 옥상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다양한 공간체험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특히 내부의 노출기둥은 시각 장애우의 안전을 위하여 원형기둥으로 처리되었다.



배치도

▶ 우수작 / (주)까치종합건축사
사무소(한상욱)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6,600㎡
건축면적	1,869.39㎡
연면적	8,447.23㎡
건폐율	28.32%
용적률	98.19%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주차대수	44대 (법정 43대, 장애인주차 2 대 포함)

배치계획

- 용산구 지구단위 계획과 대지와의 연계성
- 대지와 건물내부와의 연계성
- 시설별 기능에 적합한 향, 조망 확보
- 이용자를 위한 동선거리의 최대단축

- 향후 증축용지 확보

평면계획

- 기능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
- 장래 변화 수용 가능한 융통성 있는 평면 구성
- 명확한 조닝과 동선의 단축으로 합리적 평면 계획
- 선로 및 보행물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학교 부지 내에서 산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구성
- 이용빈도, 접근성을 고려한 동별/층별 시각장애자를 위한 Barrier Free Design개념 도입

입면계획

- 벽돌, 유리, 메탈 등을 사용하여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입면계획
- SOLID (벽돌, 메탈)와 VOID(유리)의 사용으로 시각적 효과 유도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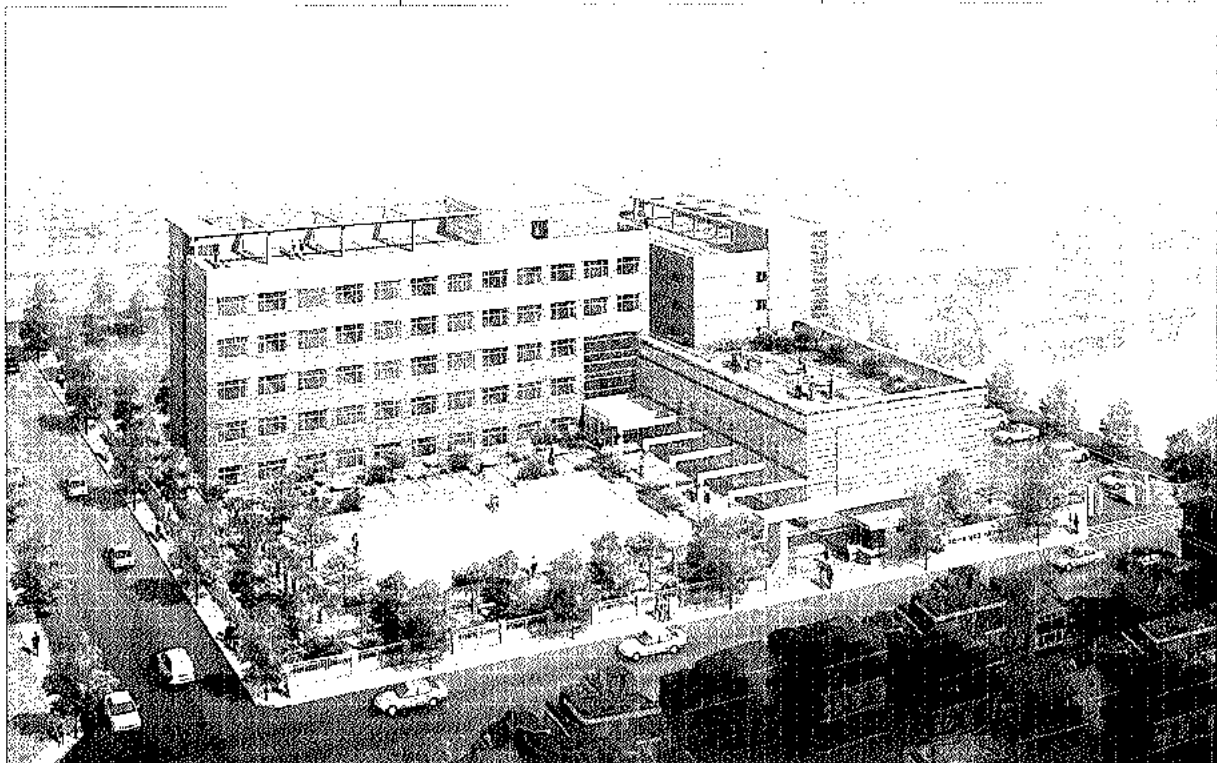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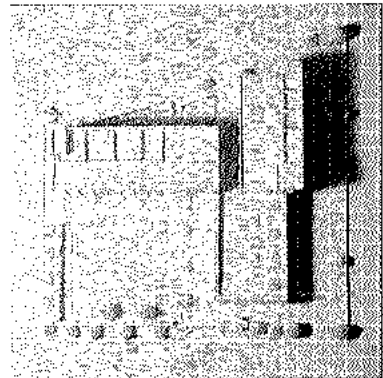
- 기능별로 수직적 조닝을 구분하여 상호 독립성과 연계성 고려
- 경제적인 설비 System을 위한 적정 층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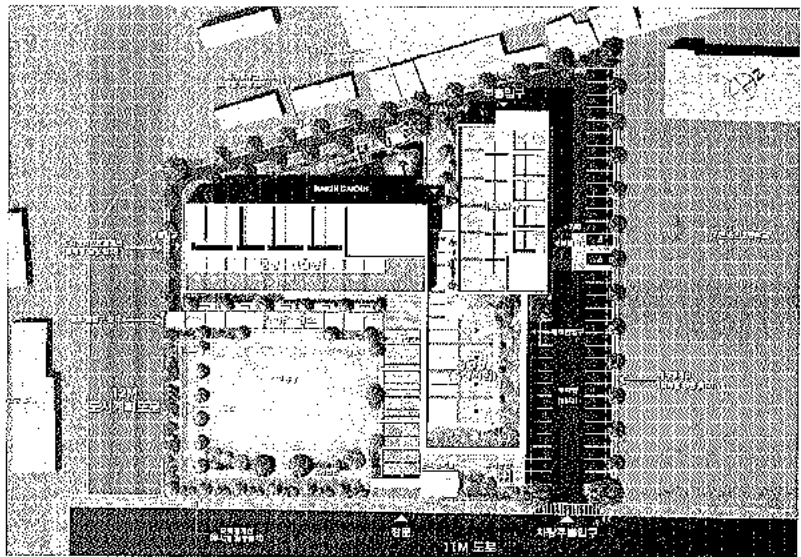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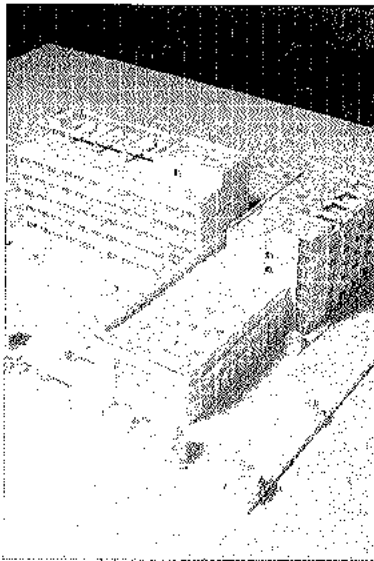
- 합리적인 단면 System의 사용 및 구조적 안정성 확보

- 수직적 동선의 단순화로 인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계획
- 수직적 확장을 고려한 건축, 구조 및 기타 분야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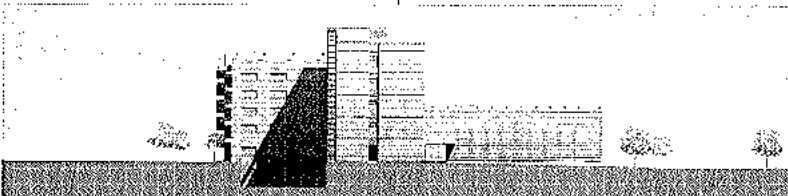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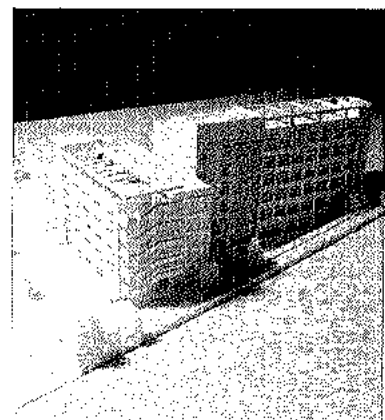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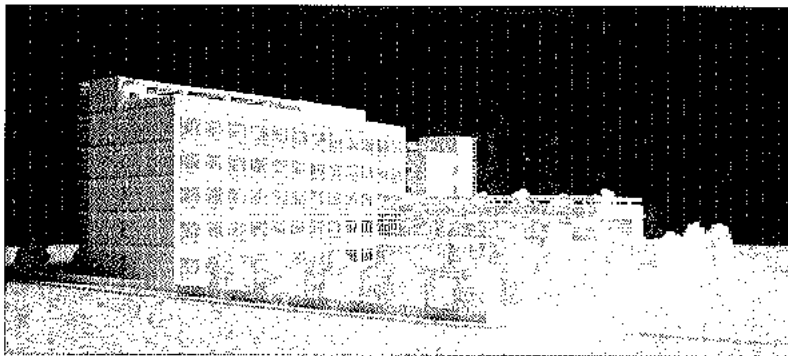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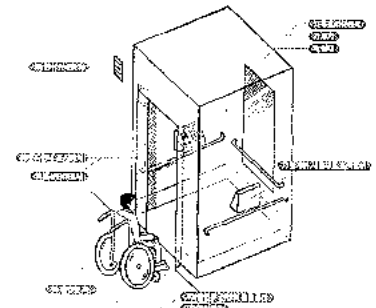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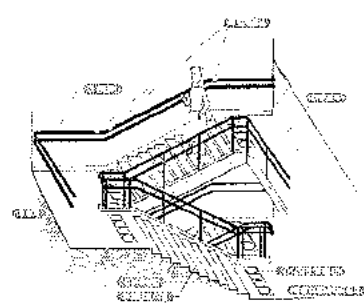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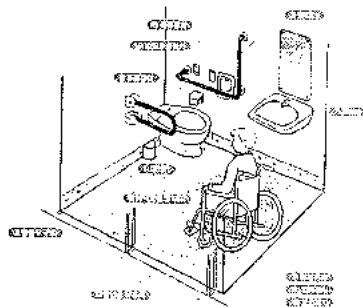
동선계획

- 동별 코어기능을 부여하여 원활한 수직 동선체계 구성
- 기숙사에서 남녀 학생의 동선 분리
- HOME BASE와 교사실, 교실을 효율적인 동선으로 연계
- 동선의 단축으로 효율적인 동선체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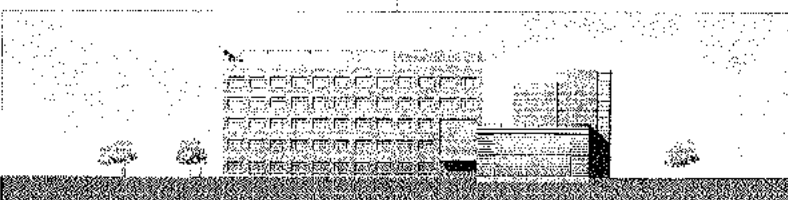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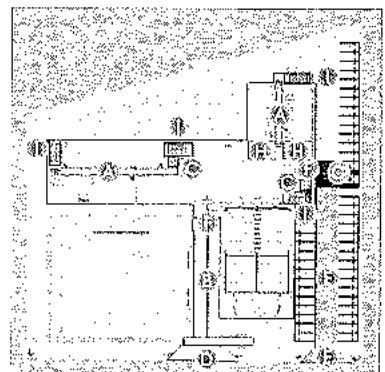
배치도



동면도



서면도



도면도

구로종합사회복지관

Social Welfare Center, Guro-gu

▶ 당선작 / 단아건축사사무소 (조민석)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혜택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 결과 당선작으로 단아건축사사무소(조민석)의 안이 선정됐다. 우수작으로는 유일건축사사무소(임해인)의 안이 선정됐다.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76-19호 외 5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일부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2,095㎡
건축면적	818.02㎡
연면적	3,122.64㎡
건폐율	39.05%
용적률	119.4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대수	계획 : 19대 (장애인용1대 / 대형버스3대 포함) 법정 : 12대
설비개요	GHP SYSTEM (천정형 냉,난방), 저속치환 공조방식
외부미감	세라믹패널, 알루미늄 복합패널, THK24 로이유리

계획안의 주안점

- 기능별 명확한 조닝
사회복지관은 청소년 집단실, 방과후 교실, 기능교실등 복지관 본연의 기능을 하는 실들인 SERVANT ZONE과 상담실,

관장실, 사무실, 회의실 등 본 기능의 수행을 지원하는 실들인 SERVICE ZONE 그리고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CORE ZONE 이렇게 3개의 존으로 구성된다.

본 계획에서는 이러한 3개의 ZONE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매스를 분리하고 각각의 매스에 별도의 코어를 배치하여 동선을 단축하며 WAY FINDING이 쉽도록 계획하였다.

-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진입축에 따라 전면광장을 넓게 마련하고 두 개의 매스 사이에 이벤트를 계획하여 비자회, 베품시장, 전시회, 각종 공연이 가능한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 건축적 산책 (ARCHITECTURAL PROMENADE)
이트리움을 중심으로하는 입체적이며 여



유로운 공간구성으로 이용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장면을 제공함으로써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도록 하였다.

- 개방적 공간 구성

이벤트 물음 유리박스 아트리움으로 디자인하여 진입광장에서의 시각적 개방감과 남측 인근 주택에서 공원으로 향하는 시야를 열어줄 수 있는 시각적 통로로 계획하였으며, 주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사통팔달의 접근성을 갖는 출입구 계획을 하였다.

주차계획을 보면 기능별로 주차공간을 구분 배치하였다.

방문자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 면하여 배치함으로써 방문자들이 쉽게 인지하며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였다. 셔틀버스 주차장은 많은 인원들이 일시하차 및 승차가 이루어지므로 방문자 주차장과 구분하였고, 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 여유공간과 승하차의 편의를 위한 피로티형 플랫폼을 계획하였다.

또한 직원용 주차장과 서비스 주차공간을 건물의 후면에 배치함으로써 전면광장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서비스 주차공간은 무료급식실 주방 후면에 배치하여 식자재

반입이 용이하고 각종 쓰레기의 수거가 편리하도록 계획하였다.

- 외부공간계획

만남의 광장 (비움-자율에 의한 완성) :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프로그램과 예기치 못한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여지를 남기며 비어있어서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한마당으로 다양한 행위와 놀이가 있는 곳, 퍼포먼스와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로 계획하였다.

아외공연장 (자율-주민참여 다목적 집회공간) :

이벤트물과 인근 공원을 연계시키는 다목적 모임공간으로 대규모의 공연과는 다른 분위기의 퍼포먼스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선큰마당 (휴식-아늑한 정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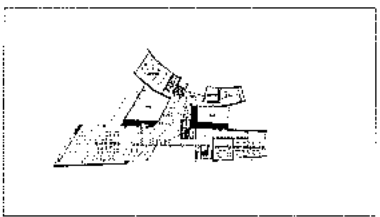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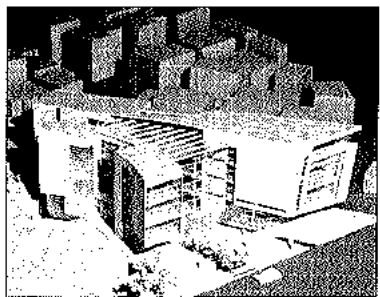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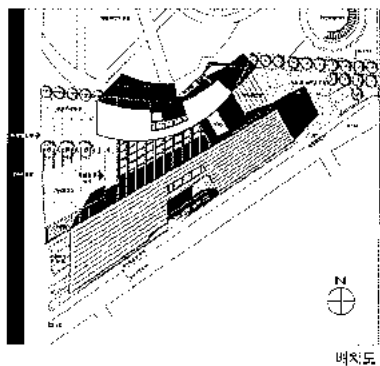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정원계획으로 명상과 휴식, 담화가 있는 주민들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조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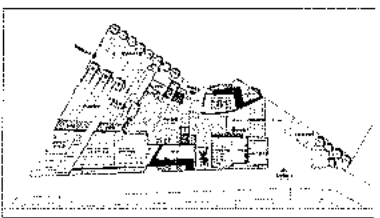
그라스 아트리움은 지역사회 공공시설로서 개방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며 곡선과 사선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입과 시각상의 강한 흐름을 전달

함으로 드라마틱한 공간으로 기억에 남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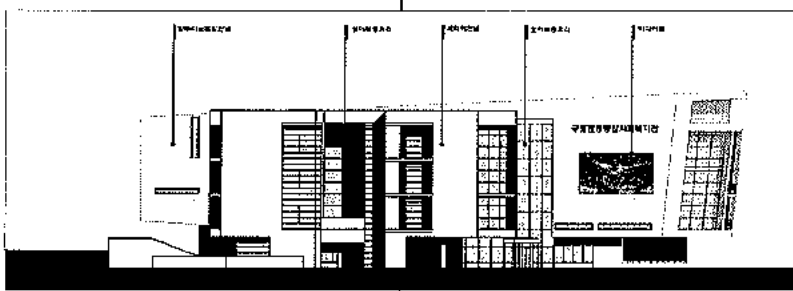
또한 만남의 광장에 면한 벽면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보행자들에게 복지관에 대한 정보와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였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북측입면도

▶ 우수작/유일건축사사무소(임해인)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76-19호의 5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공항 고도지구
대지면적	2,095.00㎡
건축면적	666.93㎡
연면적	3,089.41㎡
건폐율	31.83% (법정: 60%이하)
용적률	114.06% (법정: 300%이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계획 : 16대 (장애인용 2대, 서틀버스 3대 포함) 법정: 16대
설비개요	GHP SYSTEM (천정형 냉난방)
외부 마감	프로데마(고밀도목재패널), THK24 로이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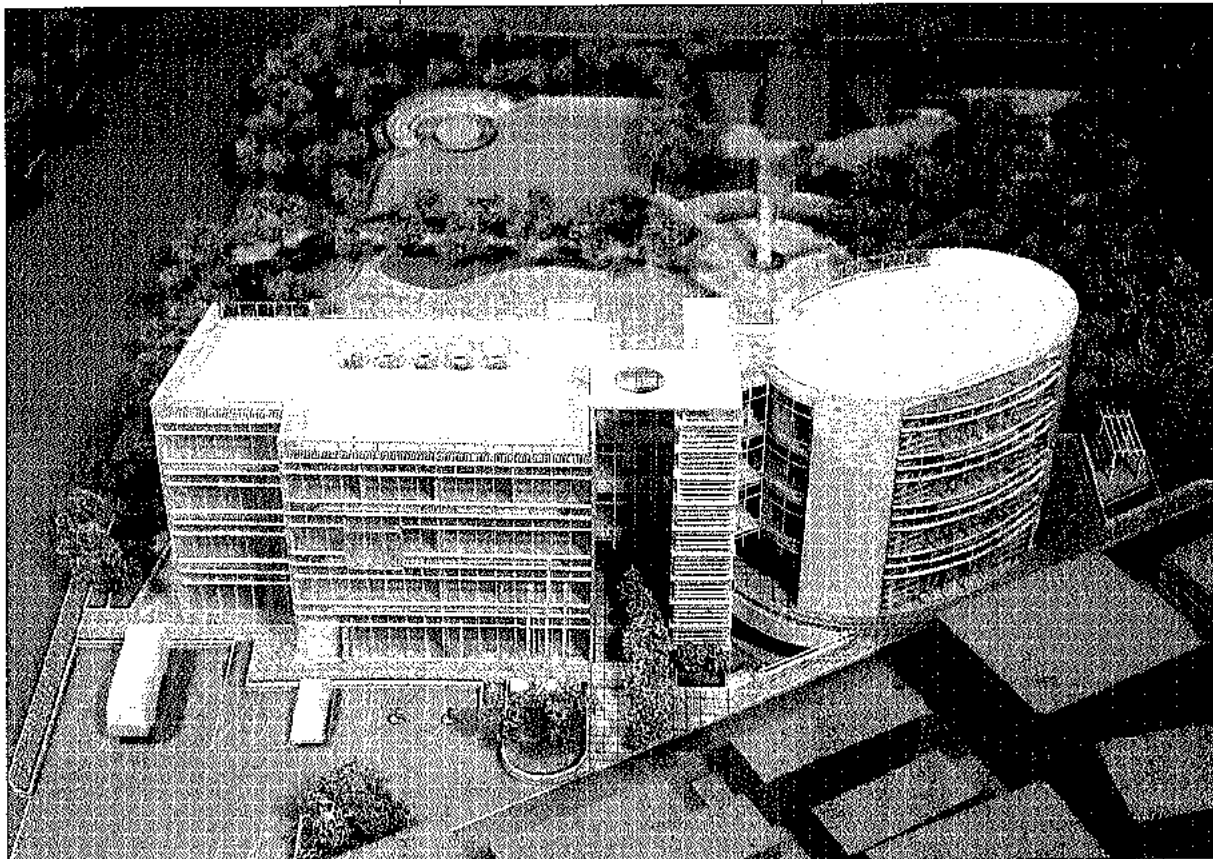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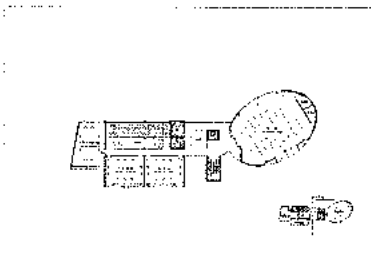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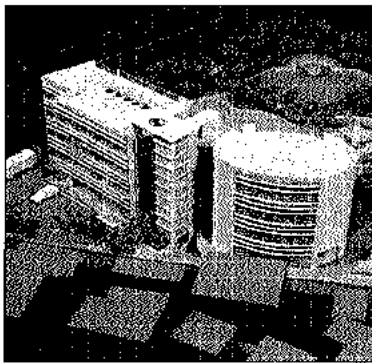
아파트 단지, 대학 캠퍼스 내에는 잔디밭 위로 길이 형성된다. 이는 사람들이 도로가 나 있음에도 돌아가는 것이 싫어서 잔디밭을 가로질러 걸아가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 대지는 잘 조성된 공원과 3~4층 규모의 저층 연립주택단지 내에 위치해있다. 남측으로 4m 도로가 있는데, 이곳과 공원에서 주민의 대부분 진입이 예상되어, 이 둘을 터주어서, 주민들의 자유롭게 복지관으로 들어오고 나가며 공원을 복지관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코어를 다니는 길에 둠으로써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부담없이 복지관에 들를 수 있다. 또한 주택단지내에 둘러싸여져 있다보니 건물의 인지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타원형 매스를 사용하여 지역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높이는 건물로 디자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타원형 매스는 요구하는 실의 면적에 맞추어 규모를 정하다보니 상당히 큰 타원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는 식당,

체육단력실 등이 들어가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복층의 조망과 남측의 향을 골고루 느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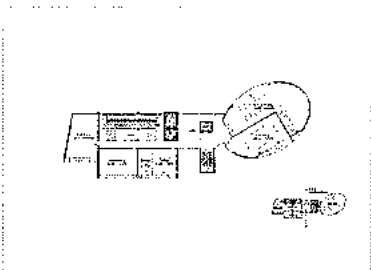
이 건물에서는 램프를 전층에 걸쳐서 설치할 수 있었다. 램프는 복층 어린이 공원에 인접하게 배치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이 램프를 오르내리며 감상할 수도 있고 공원에서 건물을 봤을 때 램프가 보이면 흥미를 유발하여 건물로의 유입할 수 있을 것이다.

대지의 서측은 경부선 철도가 놓여져 있어, 밤낮으로 소음이 야기되어 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Double Skin이다. 이 대지는 남향으로 길게 놓여져 있으므로 남향으로 실을 배치하고 더블스킨을 설치함으로써 소음도 줄이고 에너지 절약도 할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건물에서는 램프, 오픈로비, 더블 스킨 등 여러 건축적 장치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획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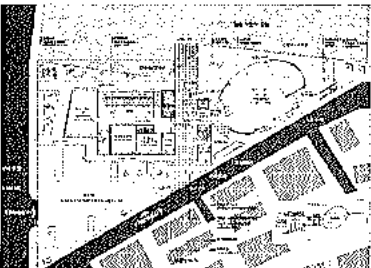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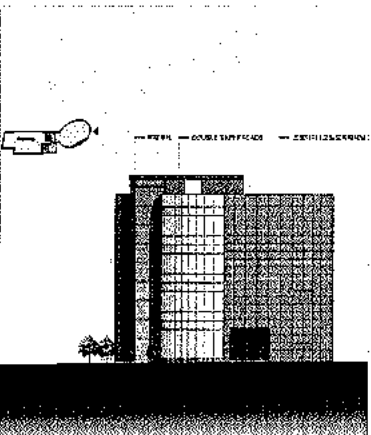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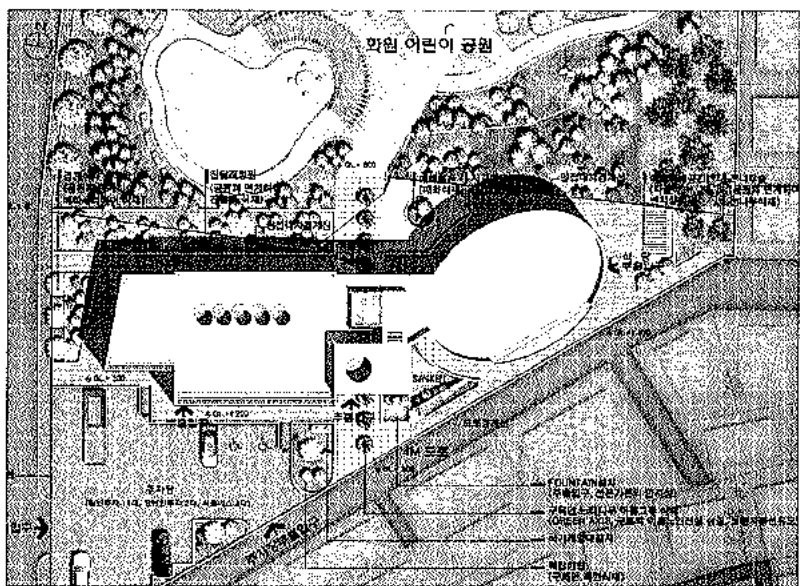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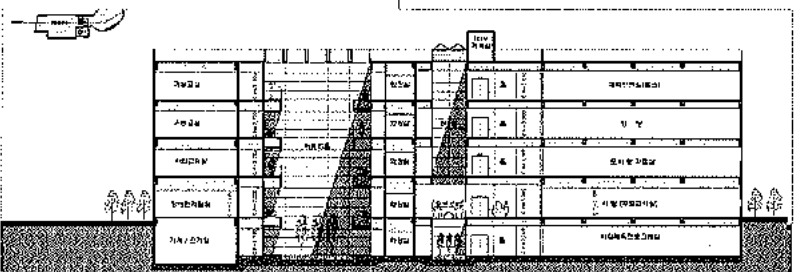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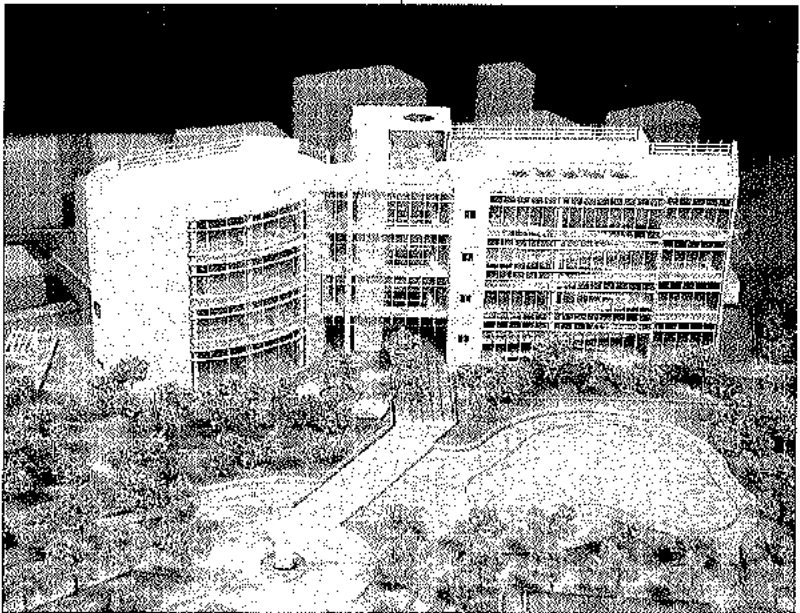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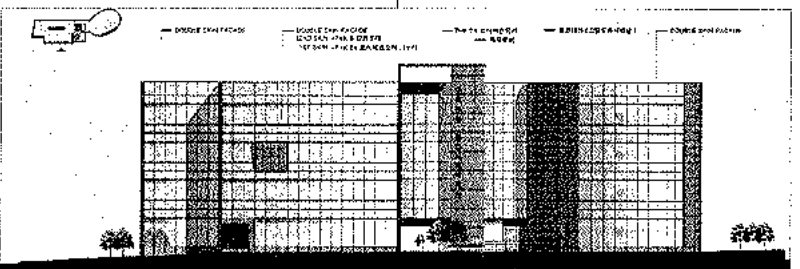
우측면도



배치도



주단면도



정면도

강북구민건강관리센터

Healthcare Center, Gangbuk-gu

▶ 당선작/유일건축사사무소(임해인)

서울시 강북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많은 문화활동의 장을 제공하고자 강북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 유일건축사사무소(임해인)의 안이 선정됐다. 우수작으로는 신세기건축사사무소(전희상)의 안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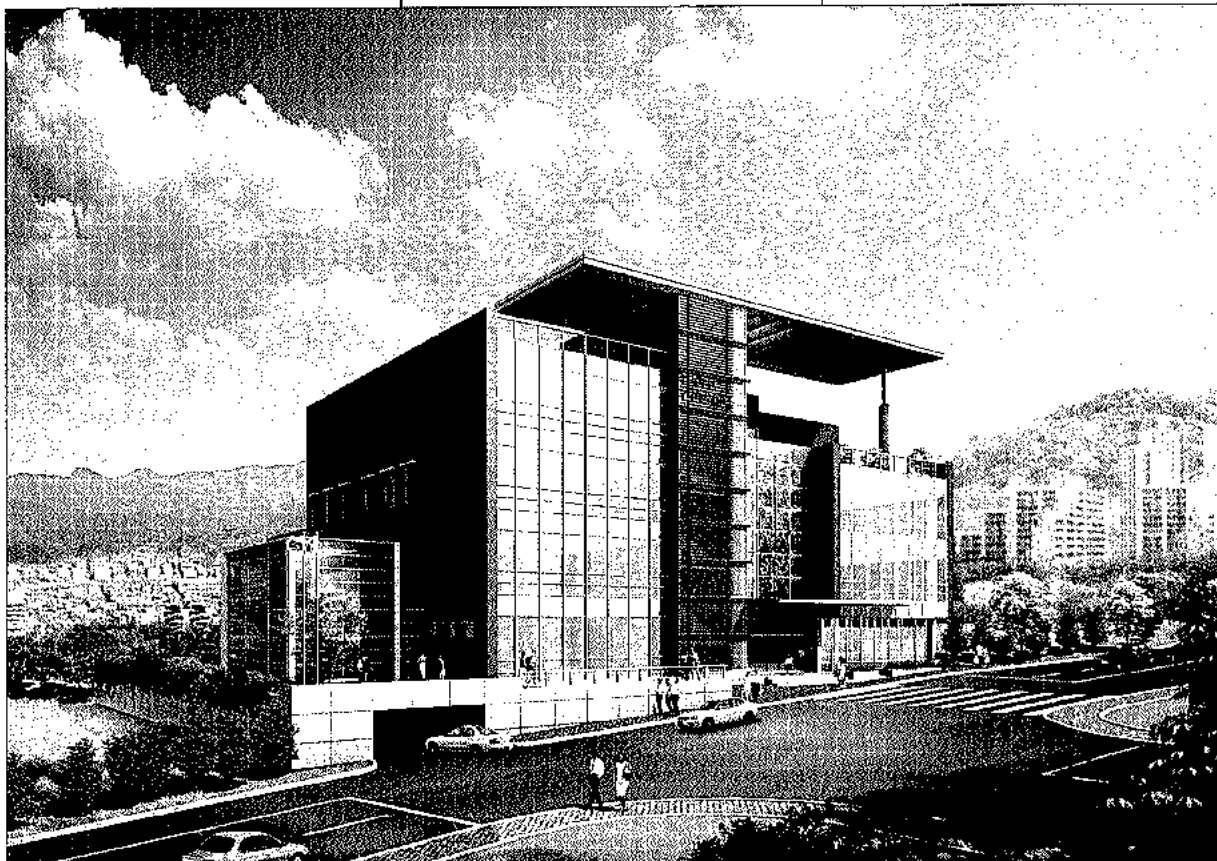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6,7동
852-209 외 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159.0㎡
건축면적	695.16㎡
연면적	2,637.28㎡
건폐율	59.98% (법정: 60%이하)
용적률	203.53% (법정: 300%이하)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비개요	GHP SYSTEM (천정형 냉난방)
외부마감	프로데마(고밀도목재패널), THK24 로아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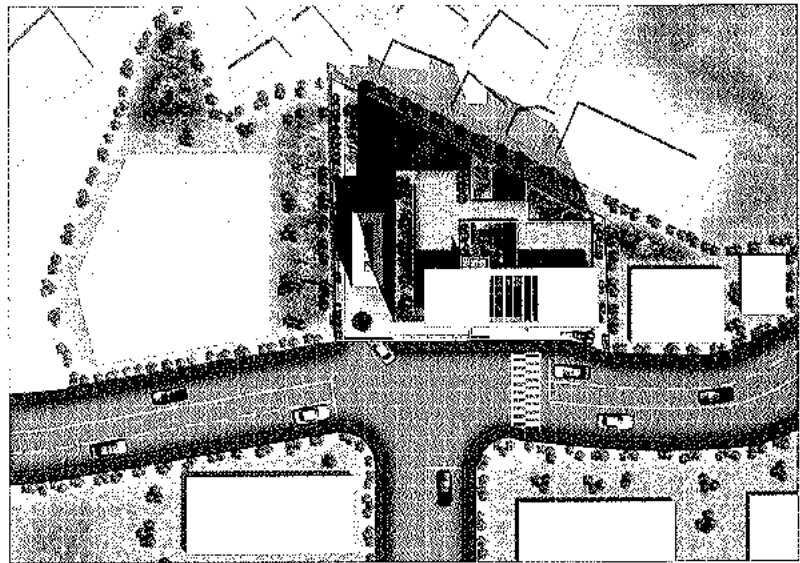
공공건물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의 딱딱한 공공건물을 벗어나 주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많은 문화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기능만 갖다기보다 여러 기능들이 복합되어지는 추세이다. 이번 현상 또한 구민건강관리센터, 동사무소, 문화교실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건물이다. 구민건강관리센터는 정신건강과 장애인 재활치료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구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센터라 들어오는 만큼, 건물 곳곳에 빛이 들어옴으로써 밝은 건물을 만드는 것은 기본일 것이다. 이러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 건강관리센터의 시작이었다. 대지형상은 서울 어디나 그렇듯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옆에 있다. 대지형상은 건물이 들어서는데 좋지 않은 사다리꼴을 하고 있고, 넓은면이 남측이면 좋겠지만 북측면이 가장 길다. 그리고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라 사전제한이 건물배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남측에 최대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건강관리센터의 특성상 좋은 환경을 요구하는 실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실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건물의 중심부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단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아트리움에 형성되게 된 것이다. 아트리움을 통해서 건물 곳곳에 빛을 들어오게 되면서 보다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아트리움에 물, 수목 등 자연요소를 설치하니 삭막한 건물에 생기를 불어넣는 핵심요소가 되었다. 아트리움이



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실의 배치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주민에게 열려있는 건물이 됨으로써 주민들의 유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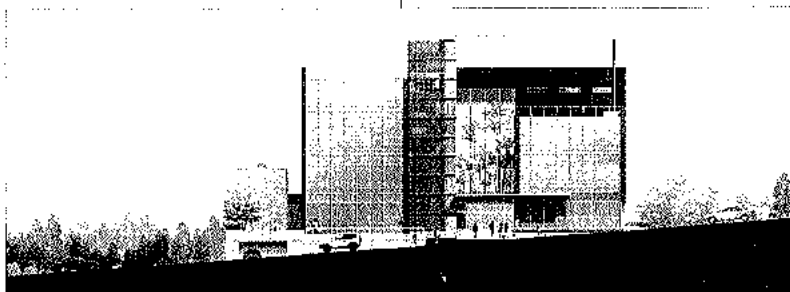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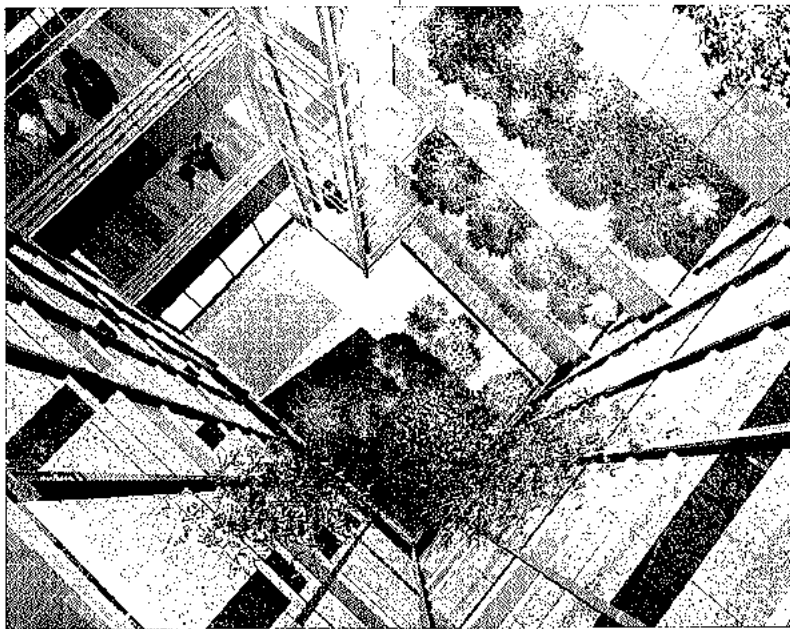
이 건물에서 중요한 것이 장애자용 램프이다. 램프가 설치됨으로써 그들에게 올라가는 방법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고, 재활의 치료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같아서는 전층에 램프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사다리꼴이라는 대지의 형상과 요구면적의 부족함이라는 장애(?)으로 인해 장애인 재활교실이 있는 2층까지만 올라가게 되었다. 이 건물은 우선 건강관리센터의 부분만 신축되고 후에 인구가 증가하여 동이 나뉘어질 경우 동사무소, 문화교실 등이 증축된다. 한지붕 아래 건강관리센터와 동사무소가 같이 살림을 하는 것이므로 이 둘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런 점에서 중간에 아트리움을 배치하여 건물을 2개로 분리하여 명확한 조닝을 해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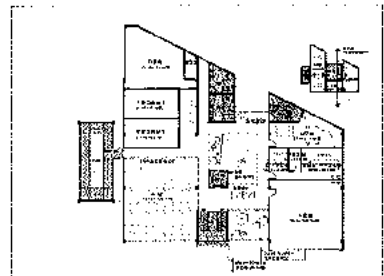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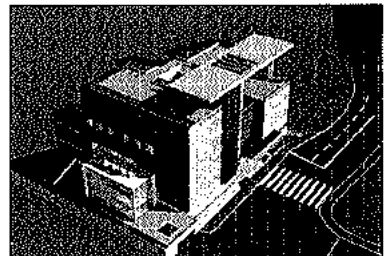
배치도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 필요한 실면적을 채워나가면서 매스를 분절해나가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그리하여 입면에서도 거대한 면이 보이기보다는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주는 효과를 줄 수 있었다. 건물이 2개의 매스와 가운데 아트리움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이 두 매스를 한 건물로 엮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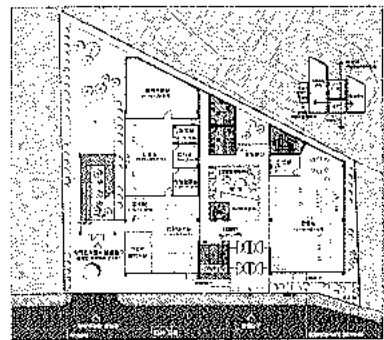
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지붕에 캐노피를 씌우게 되었다. 마감직전까지 고민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 이것이고 지금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잘 되어서 후에 이 건물이 지어진 뒤 주민들과 함께하는 건강관리센터가 되리라 기대한다.



절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우수작/신세기 건축사무소(전희상)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아 6, 7동 852-179의 20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159㎡
건축면적	682.19㎡
연면적	2,634.32㎡
건폐율	58.86%
용적률	206.83%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주차대수	16대
설비개요	중앙냉난방
외부마감	화강석, 문경석, 알리눔패널

계획목표

- 지역복지의 중심
- 지역주민 삶의 건강과 질적 향상을 위해

보건서비스와 행정서비스, 사회재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 구민센터를 설립

- 추후 사회적, 지역적 요구의 변동을 고려한 가변적, 유동적 건축을 계획

복합청사계획

- 지역의 건강과 외로환경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건강관리센터 건립
- 주민들에게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사무소 설치
- 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회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화교실 계획
- 강당등의 대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여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적 계획

- 공사순서에 따른 복합청사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
- 1단계공사에서 설립된 건물이 그 자체로서 주어진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추후 2단계 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이 조화될 수 있는 공간과 동선체계 설립

다기능의 조화

- 복합기능을 지닌 건물로서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동선 계획
- 복합된 기능들이 필요로 하는 설비 시스템을 통합설치하여 관리의 유용성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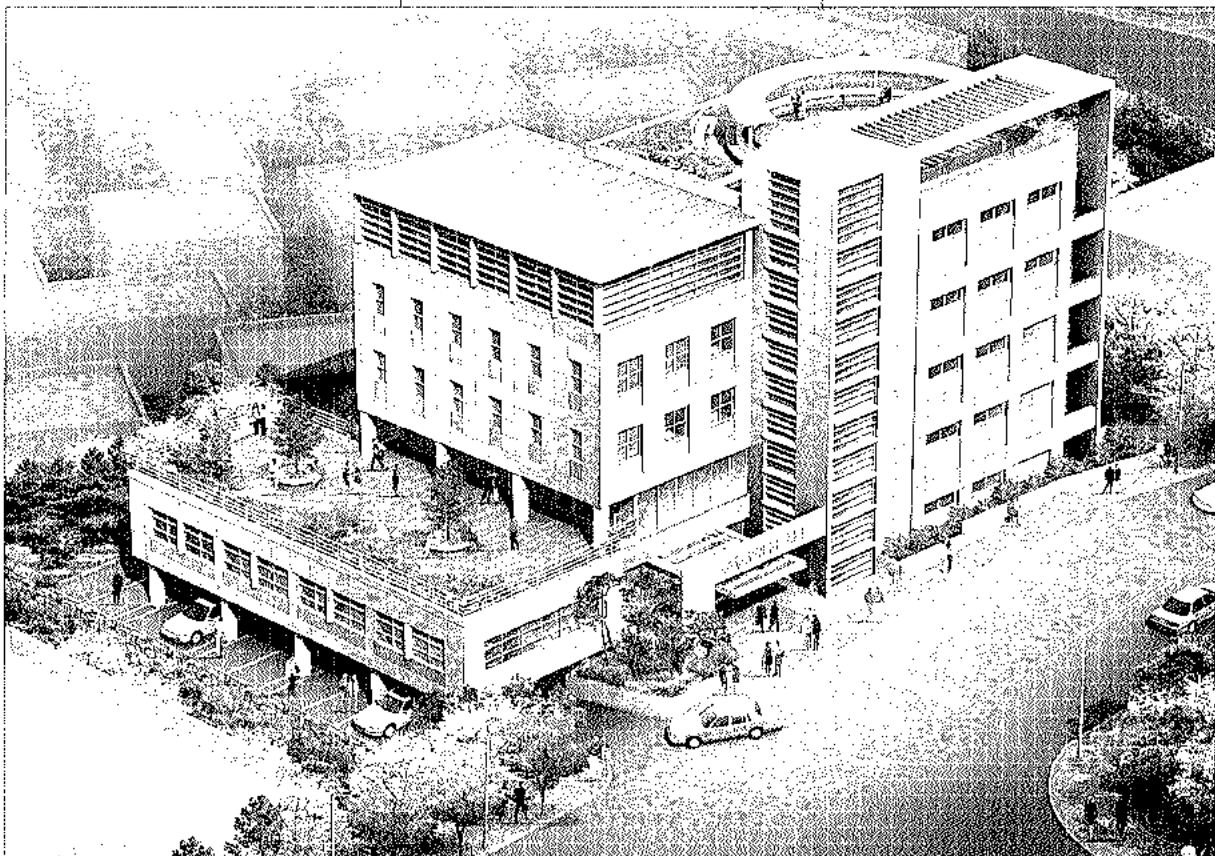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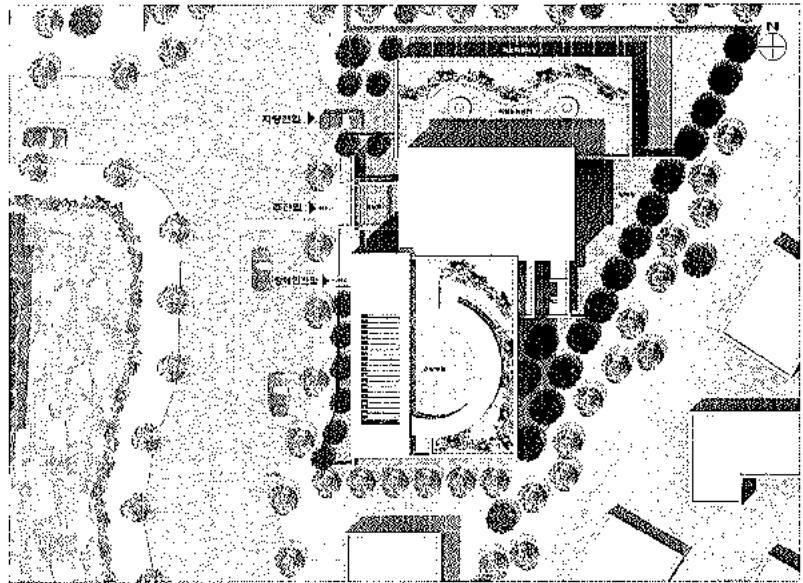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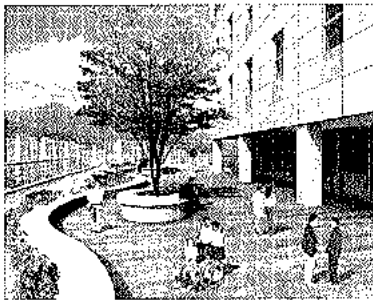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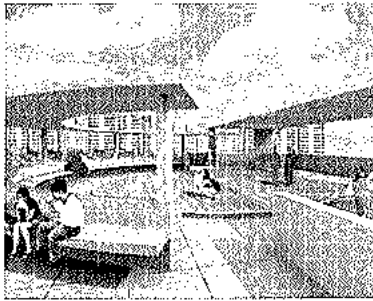
합리적, 효율적 배치

- 장래 증축을 대비한 토지이용 계획
- 진입축상에 안마당을 계획하여 열린 마당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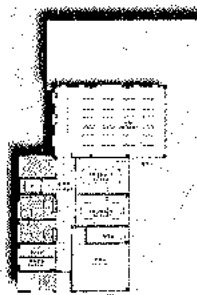
외부환경도입

- 양호한 일조확보를 위한 매스를 분절하여 남·동쪽으로 열린 공간으로 배치
- 테라스와 발코니, 옥상정원 등을 통한 외부환경의 적극적인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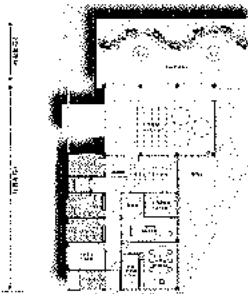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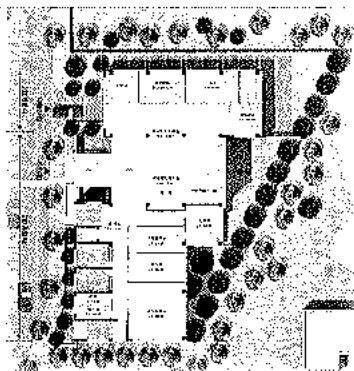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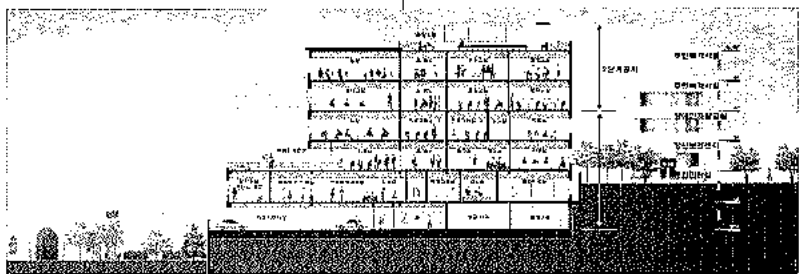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동강사진박물관

Donggang Museum of Photography

▶ 당선작 / (주)형제·K건축사사무소
(김삼수)

대지위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17-2외 1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23,109㎡
건축면적	710.00㎡
연면적	1,039.00㎡
건폐율	7.98%
용적률	9.57%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공연 장, 다목적실)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 전단벽식 / 철 골조

주차대수	계획: 69대(장애인주차 3대/ 대 형주차 4대/ 관리직원용 5대/ 일 반 57대)
외부마감	제물치장 콘크리트/자연석치장 쌓기/적삼목붙임
설계팀	이관태, 홍대호, 송용현, 유진아, 박수희

영월의 동강은 체험과 모험 그리고 문화
예술행사가 있는 장소이고, 패러글라이
딩, MTB, 뗏목뛰우기, 래프팅 등의 행사
와 함께 동강사진축전이 열리는 곳이며,
단종의 능, 김삿갓 유적지 등 역사와 유서
가 깊은 고장이다. 인근에는 별마로 천문
대를 비롯한 각종 박물관이 있어 관광객
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재미를 주고 있다.
이번 동강사진박물관은 천혜의 비경 동
강, 그 아름다움과 함께하는 동강을 주된
테마로 하는 축제의 일환이다. 국내 최초
의 사진마을선언의 구체화를 위해 실시된
사진박물관을 계획함에 있어 자연과 사
람, 사진과 예술의 조화로움이 공존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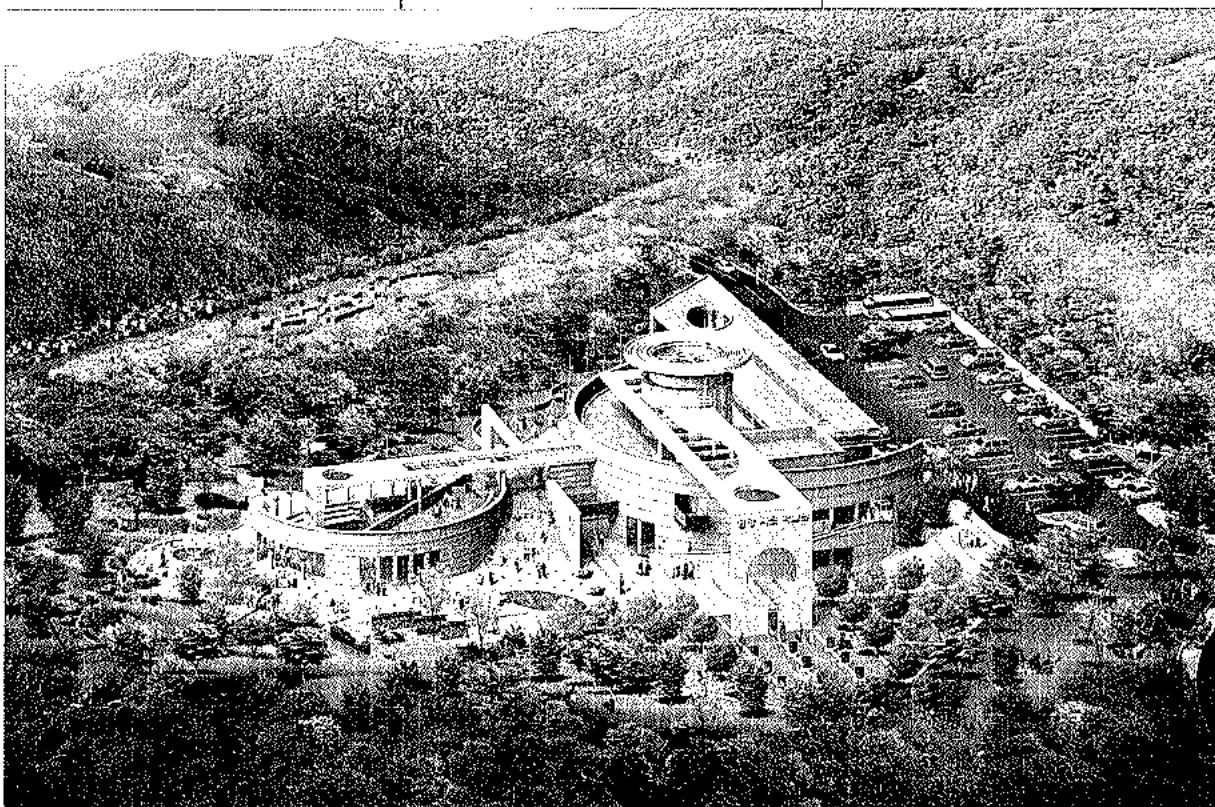
박물관을 설계하고자 했다.

먼저, 프로그램의 극대화를 위해 전통적
인 공간 수법을 응용하여 부지를 위계적
으로 분할하고, 여기에 『동강』이란 자연적
인 요소와 『사진』이라는 광학적인 요소를
어떻게 기존 군청사, 군의회와 조화롭게
접목배치하느냐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군청사건물축을 기준으로 대지중심
에 건물을 배치하여 주인입과 도심지와의
관계성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산허리
에 위치한 장소에 어울리는 사면성을 가
지도록 하였다. 또한, 프레임에 의해 시각
을 한정하고 선에 의해 흐름을 유도하고
다시 축의 적임에 의해 흐름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공간에 리듬을 부여하여 단조로
움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동강과 서강의 합수머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동강사진박물관이 사진
문화의 메카이자 동강의 랜드마크로 새로
이 자리매김 되어지길 바랄뿐이다.

계획기본구상

• 영원한 흐름의 「동강」과 순간의 영상인
「사진」의 이미지를 선의 형태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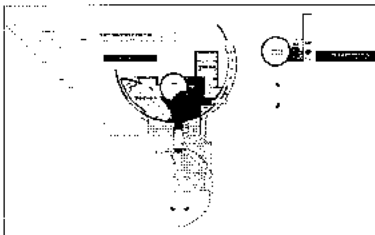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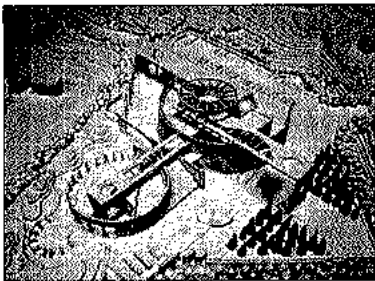


(병치와 조화) → 선

- 사진기의 광학적 이미지를 HI-TECH로 표현 → 빛
- 동강의 자유곡류천 이미지를 영원한 흐름의 건축적 이미지로 표현 → 흐름
- 동강과 서강의 합류점이 내려다 보이는 장소적 특성을 반영, MASS의 분절과 통합 → 조화
- 지역적 특성인 충절의 고장에 부합된 전통적 이미지를 건축적으로 승화 → 요소

배치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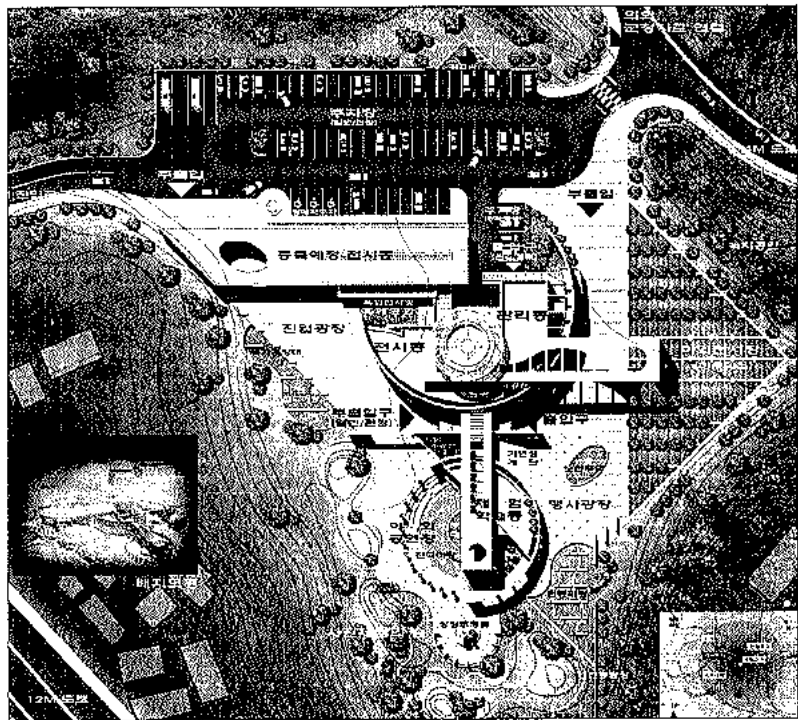
- 영역성: 흐름과 단절, 기능과 용도, 내외공간의 특성화에 따른 영역의 조합과 분리의 계획
- 외부공간: 건물의 기능별 특성을 주변의 공간과 상호연계하여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 인지성: 전면도로에서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주진입로에서의 실질적인 이미지를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 계획
- 접근성: 자연 지형지세의 흐름에 따른 진입로 유도과 건물 출입구로의 인위적 접근요소를 점목한 계획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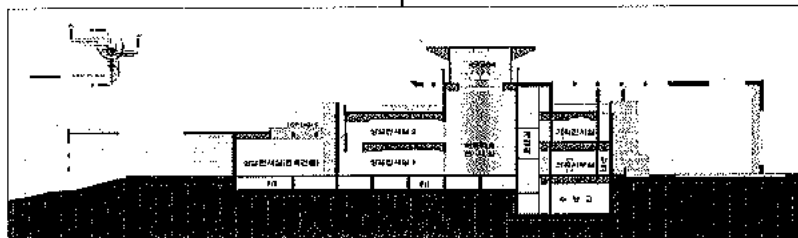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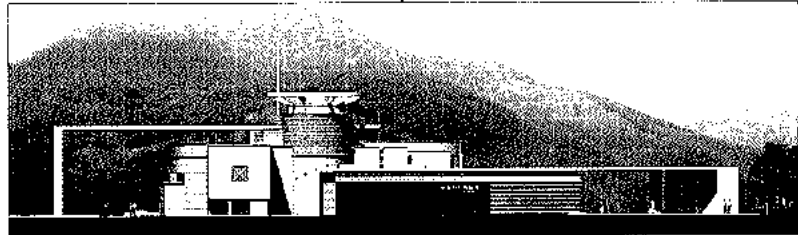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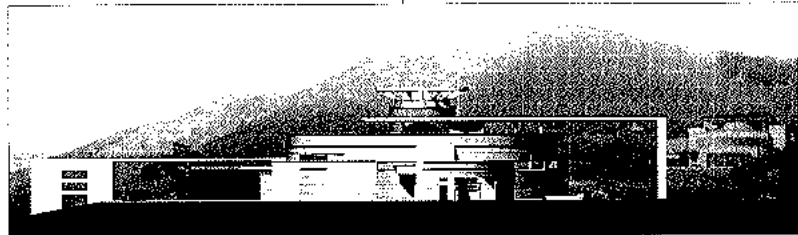
외투시도



단면도



배면도



경면도

건국대 산학협동관

Industry and Education
Cooperation Center, Konkuk
University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박영건·심재호)+(주)단우
건축사사무소(최명철·심우근)

지난 4월 17일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부지내에서 산학협동관 신축을 위한 현상 설계를 실시한 결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박영건·심재호)+(주)단우건축사사무소(최명철·심우근)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4월 24일 발표하였다. 당선작외에 우수작에는 공간건축(이상림·안재일)의 안이 가작에는 무영건축(안길원·서화조)의 안이 각각 선정됐다.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부지 내

대지면적	6,199.74㎡
건축면적	3,509.7㎡
연면적	15,439.4㎡
규모	지하 1층, 지상 8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대수	지상 50대, 지하 117대
외부마감	화강석, T24 복층유리
설계팀	조주현, 김선유, 손기영, 서제성, 김은호(범건축), 최홍연, 박기선, 최현영, 오세원(단우건축)

건국대학교 산학 협동관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와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대학 캠퍼스의 상징적인 가로에 면하고 있는 신축대지의 장소성과 두 번째로 실질적인 주변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로서 대지 앞을 지나가는 지하철 2호선(지상구간)과의 관계, 건설중인 건대 부속병원, 그리고 신축건물과 인접해있는 축산대학건물과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맥 위에서 요구되는 복합적인 세 가지 기능(특수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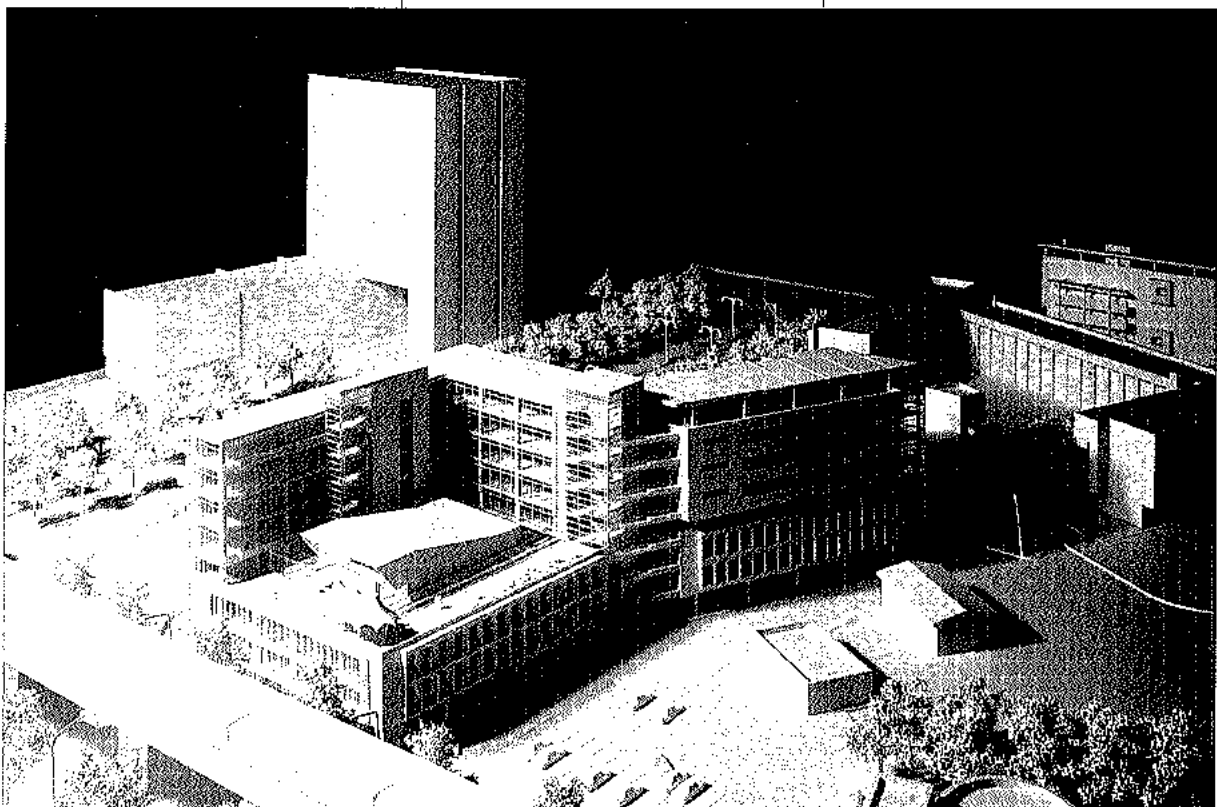
원, 벤처 창업 보육센터, 강의실)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설계의 주안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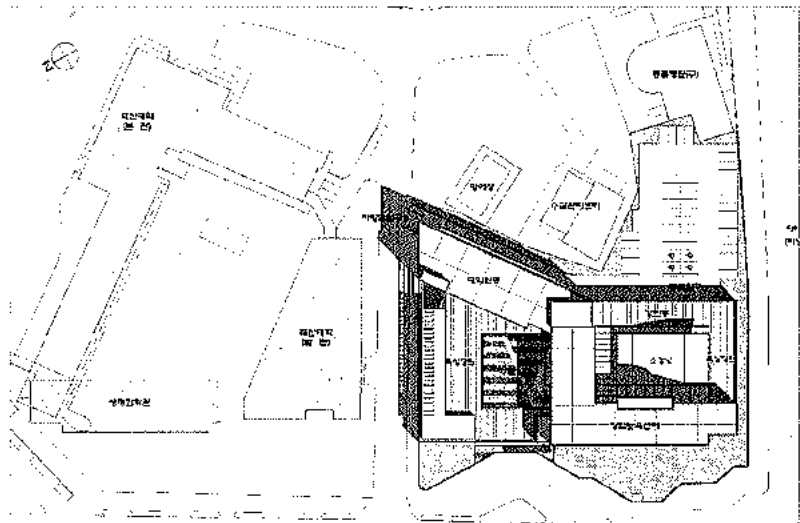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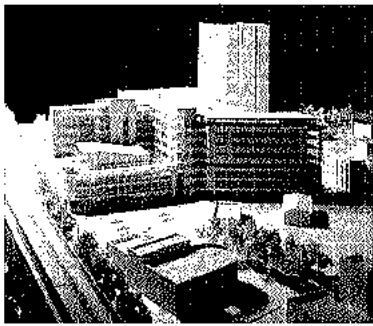
건물은 크게 저층부와 고층부로 나뉘고 고층부는 다시 두 개의 볼륨으로 분절되어 저층부 위에 올라타 있는 형식으로 계획되었다.

저층부는 일반 강의실 및 소강당으로 구성하였고 고층부에는 특수 대학원과 벤처시설을 배치하였다. 저층부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중정(외부 중정 / 아트리움에 의해 덮힌 내부 중정)을 두어 공간적 위계를 주면서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장소의 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필로티와 직접 연결되는 외부 중정은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캠퍼스내 보행동선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고 내부 중정은 적층 되는 두 개의 소강당을 담고 있으며 옆에 놓인 계단을 통하여 4층의 옥상 정원으로 연결되어 강당 상부와 함께 도시적 소통을 이루는 요소로서 계획하였다.

대지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와 주변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산학 협동관 건물이 스스로 드러내기보다는 주변문맥에 순응함으로써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배치 및 입면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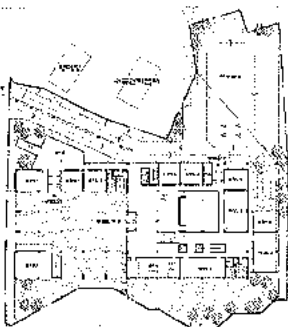
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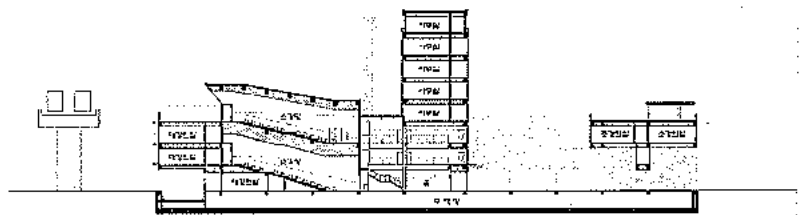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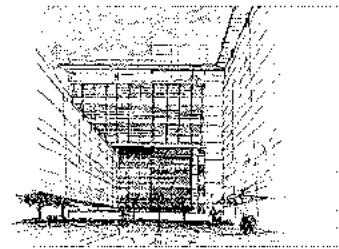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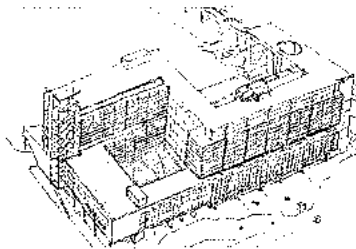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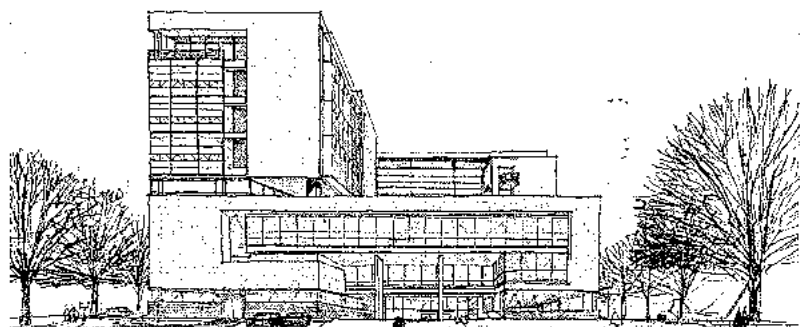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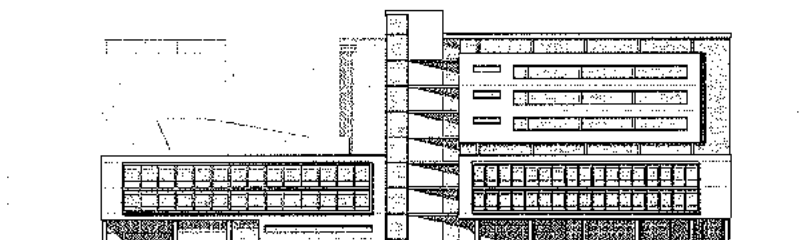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단면도



비단도

▶ 우수작 /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림 · 안재일)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부지 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대지면적	6,199.74㎡
건축면적	3,969.0㎡
연면적	15,259.0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8층
주차대수	158대 : 지상 55대, 지하 103 대(장애인 5대 포함)
외부마감	커튼월 System, THK24MM 컬러복층유리, 화강석
설계팀	송대섭, 유대균, 전미숙, 박지호, 계소라, 송선호, 김미수, 이재호

Condition

Site 는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남단 주출입구인 상허문 측면에 자리한다. 기 존재하는 상허기념도서관 진입의 강한 방향성과 남측 스타시티 개발부

지의 거대함 사이에서 대지의 위치와 프로그램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중간적 성격을 띤다. 채 정리되지 않은 대지 동측 일감문 주변 상황과 지상주차 등의 육중한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캠퍼스와 도시를 시각적으로 가로막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Characteristics

도시와 캠퍼스를 동시에 마주하는 양날의 칼 같은 경계선상의 대지, 대지를 스쳐가며 15M 높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2호선, 도시와 학교를 아우르며 캠퍼스의 새로운 얼굴을 엮어나갈 극단적 경계로서의 단면, 정면을 기능하기 어려운 장소. 도시의 한 부분으로서, 동시에 캠퍼스의 일부분으로서, 다채로운 기능적, 형태적 역할을 형상화하기 위해 건물의 상하부는 각각 다른 방향성과 다른 의도에서의 Void를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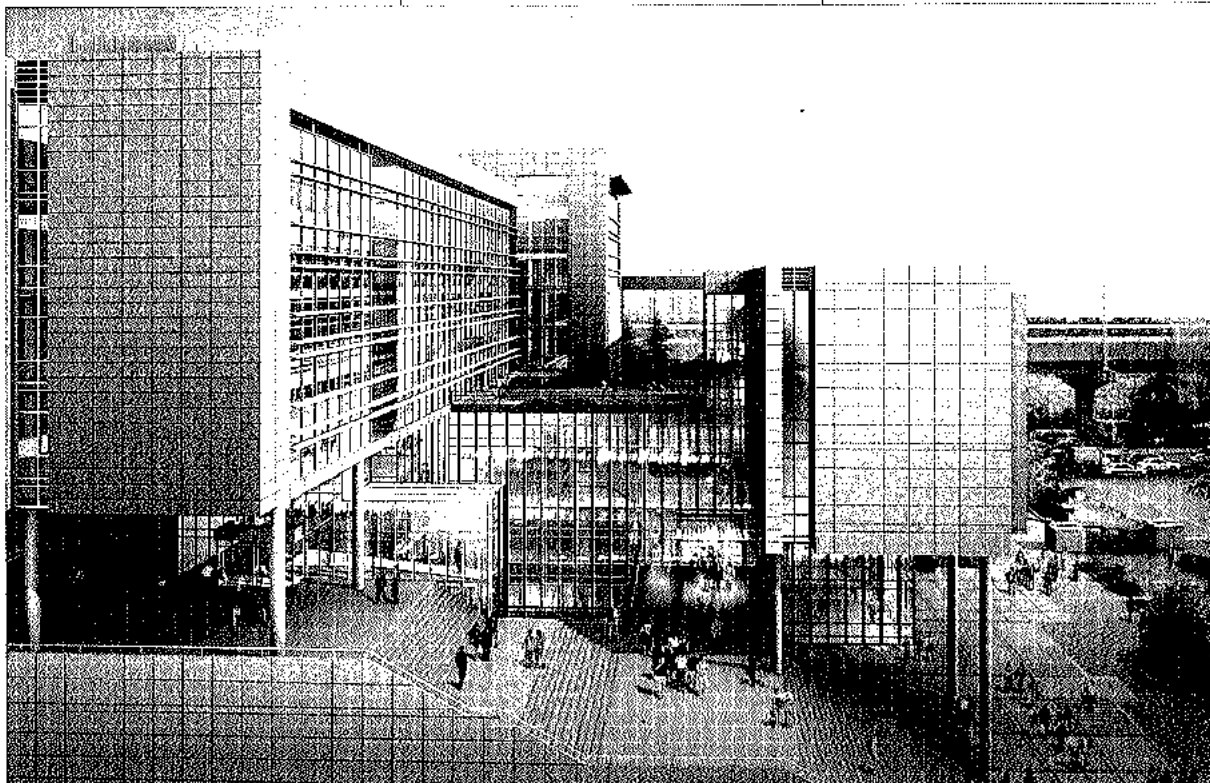
Description: Meaningful Void

빈 공간을 삽입하는 단순한 움직임은 많은 기능과 의미를 내포한다. 지하철에서, 미래의 고층건물에서 바라볼 8층 건물이

기존 캠퍼스를 그림처럼 보여줄 창으로 원하도록 양분된 건물 상층부 매스 사이의 Void는 도시로 열린 대지를 조형화 한 도시로의 축으로 기능한다.

Void 너머의 데크광장과 외부계단은 동선처리와 함께 시각적으로도 공간에 움직임의 요소를 부여하는 장치가 된다. 장치가 의도하는 장면은 신축 생명과학대학과 상허기념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시선을 강화하고, 시각적, 공간적으로 서로 얽혀지는 일련의 빈 공간들은 gate 로서의 대지에 적정 수준의 상징성을 부여하게 된다. 캠퍼스의 기존질서를 감안하고, 휴먼스케일에 맞는 Void 공간을 형상화 하기 위해 건물 하층부 공간 구성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간적 움직임을 삽입했다. 캠퍼스 내 Street로서 선형의 마당공간을 하부에 두어 상허문에서 일감호로 이어지는 보행동선을 강화하였고, 동선의 유기적 흐름을 위해 캠퍼스 주 보행동선이 지나는 대지 북측에 대형 외부계단을 삽입하여 기능적으로는 수직적 입구분리를, 공간적으로는 일감호를 향하는 외부공간 형성을 가능케 했다.

궁극적으로 상층부와 하층부의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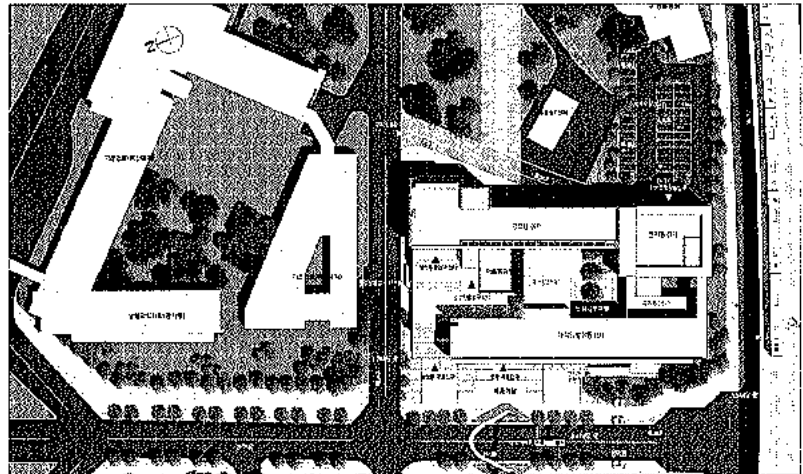
Void(상층부 매스간의 틈과 하층부의 보행 street)는 거시적, 미시적으로 상이한 스케일을 지닌 채 서로 직교하며, 상하부에서, 혹은 내외부에서, 공간의 중첩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움직임을 빚어 내게 된다.

Form and Fun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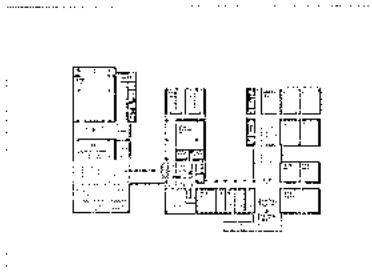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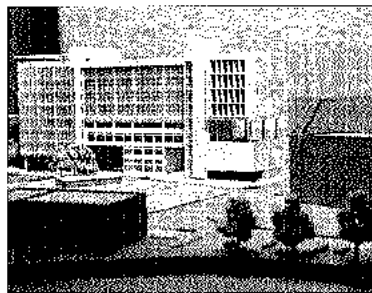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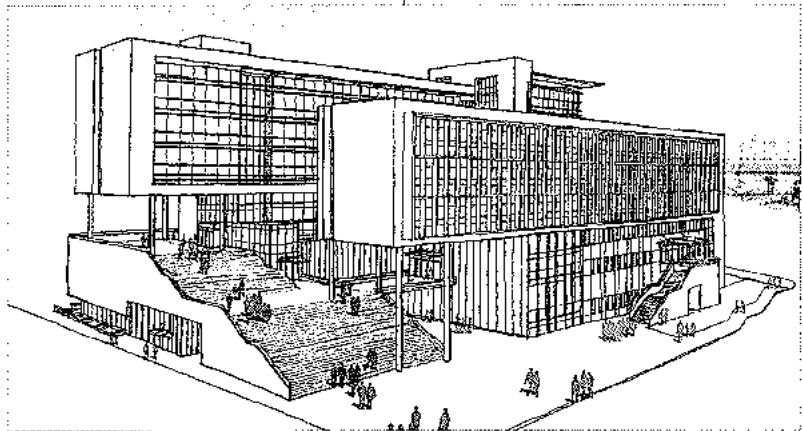
복합적 기능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양한 이용자 그룹과 이용시간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명확한 기능적 분리를 위해 대학원 행정시설, 강의와 벤처 창업보육시설은 개별 매스로 분리되었다. 저층부에는 접근의 원활함이 요구되는 소강장과 평생교육원/외국어교육원 시설을 배치하였고, 상하문에서 일강호로 이어지는 보행동선을 잇는 walkways 와 대형 외부계단과 연계되는 데크마당은 동선 분리와 함께 이벤트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반복되고 중첩되는 내 외부 공간은 건물에 최적의 일조와 공간감을 부여하는 건축적 커를 덧붙이게 된다.

Persp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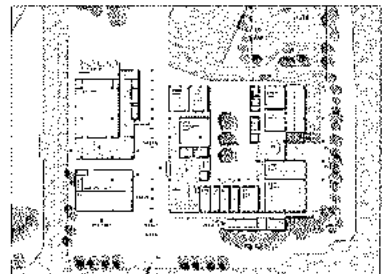
장소성의 고려란 기존 질서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흐름을 이어나갈 건축물을 제안하는 것이다. 기존의 익숙한 풍경으로 채워질, 새롭게 비워진 열린 하늘의 틈, 도시 너머 캠퍼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형태, 움직임의 흐름을 수용하는 질서와 다층적 활동을 위한 자유를 제시할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대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의 부분으로서 장소와 그 흔적을 담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교류와 연계, 도약과 발전을 대변하는 캠퍼스의 단면을 동시에 이야기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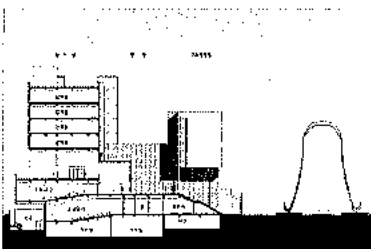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종단면도



서측면도

▶ **가작 /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안길원 · 서학조)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부지 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학교용지
대지면적	6,199.74㎡
건축면적	3,683.68㎡
연면적	18,548.8㎡
건폐율	59.4%
용적률	237.9%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주차대수	지상 45대(장애인 4대 포함), 지하 110대
외부마감	회강석, 사암, THK18 복층유리
설계팀	최창섭, 노광현, 양희범, 김지현, 백봉주, 송도근, 박진성, 김삼수, 백혜원, 김재영

건국대 산학협동관은 건국대 신정문 쪽에 위치하여 기존의 캠퍼스 축과 인근건물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캠퍼스 내·외부에서의 상징성 확보와 산학협동관의 기능을 풀어야 하는 프로젝트이다.

□ 자형의 단순한 매스구성과 배치로 상하로 축과 Street wall에 순응하면서 캠퍼스의 재정비를 고려하며 상하기념관의 강한 축성을 더욱 부각시켜 새로운 캠퍼스의 질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일 매스의 단단하고 정돈된 이미지는 상징성과 인지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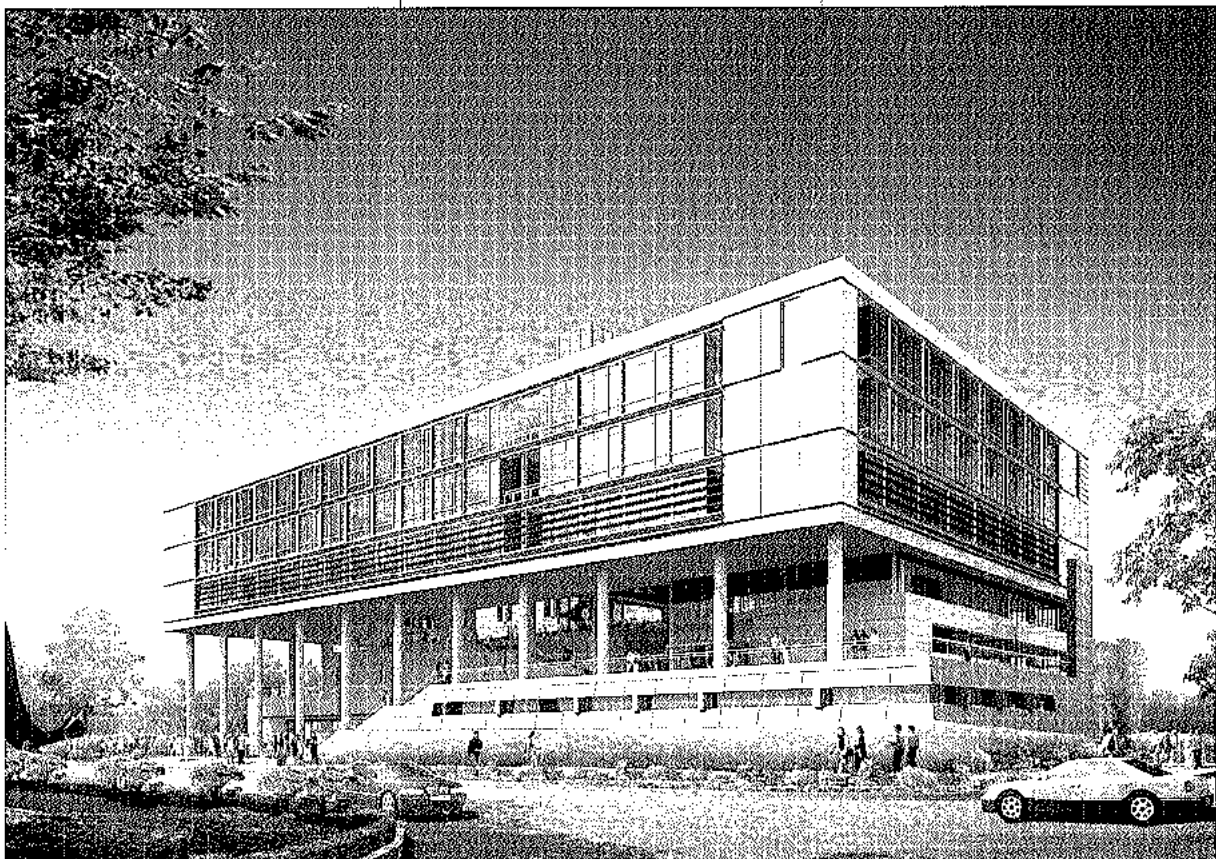
평면계획은 주간시간대에 주로 사용하는 교육원을 저층부에 배치하고, 야간시간대에 주로 사용하는 특수 대학원을 상층부에 배치하여 시간대별 효율적 관리체계를 형성하였다. 벤치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기 위하여 레벨차이를 이용하여 출입구를 별도 형성하는 등 강의, 벤치, 대학원 각 기능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였다. 또한 □ 자형의 평면구성을 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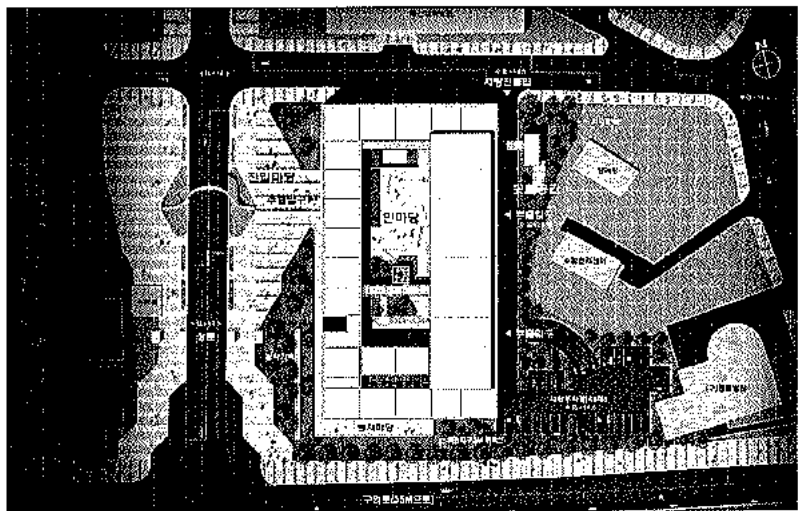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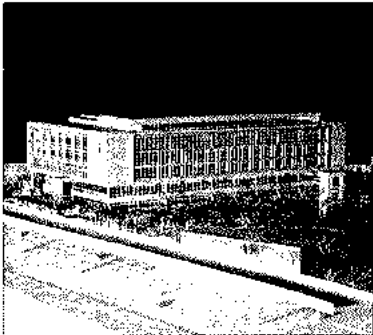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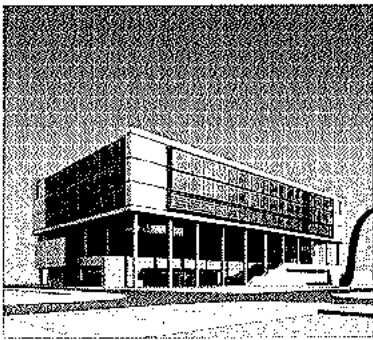
추후 시설용도 변경에 융통성 있게 대처 가능 하도록 하였다.

레벨별 DECK 마당을 조성한 단면 계획은 기반부의 휴먼스케일 연출 및 자연스러운 동선 인입을 유도하였고, 쾌적한 옥상정원으로서 안마당(중정)을 형성하여 건축속의 자연과 내·외부 공간의 관입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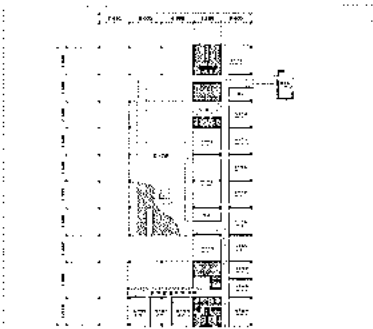
아울러 저층부는 피로티와 대형계단 설치로 개방감과 역동적인 시선흐름을 유도하고, 상층부는 수평적 매스를 강조함으로써 가로와 연속성과 확장성을 유도하여 휴먼 스케일과 슈퍼 스케일이 대비되는 조화로운 입면을 구성하였다.

결론적으로 건국대 산학협동관은 다양한 기능의 건축적 해결과 캠퍼스내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고려해야하는 계획부지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결코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으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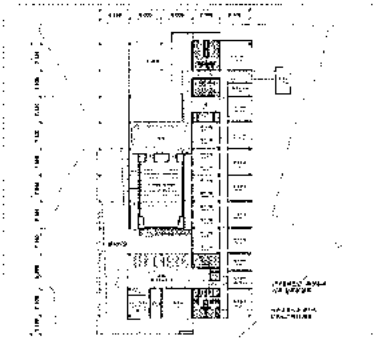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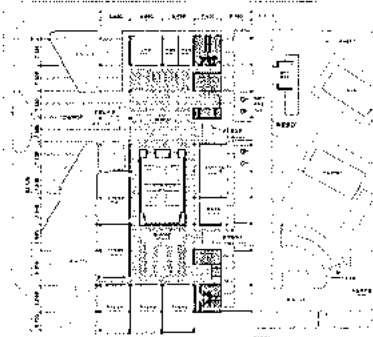
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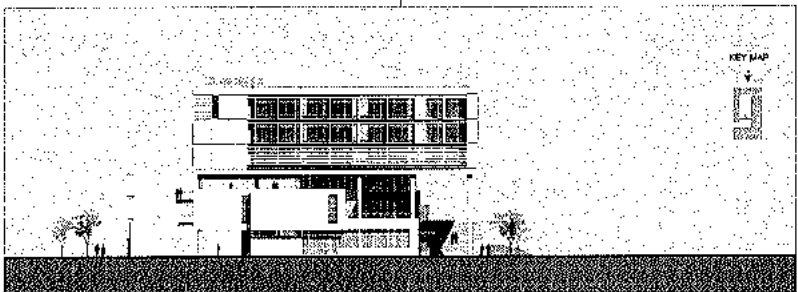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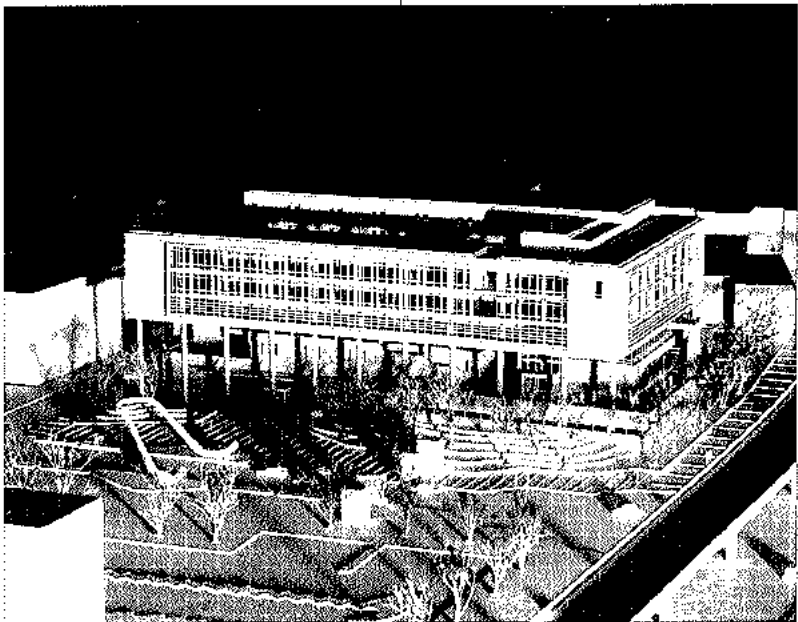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좌측면도



정면도